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238호 2014년 2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대기업의 신사업 성공전략' 연구차 방미계획 중인 모교 재학생들이 박진수 지도교수(뒷줄 오른쪽)와 함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현빈(공대 09)·양강민(경영대 09)·오상록(경영대 09), 아랫줄 왼쪽부터 오혜인(사회대 11)·이승은(경영대 11)·이재은(경영대 11).

미주 동창회와 지역 동창회간

상향 표준화 작업 착수

각 지역 동창회는 지역적 특성, 창립 배경과 회원 수 등의 차이점 등으로 각각 회칙, 서류양식, 주소록 양식, 재정보고 양식 등이 조금씩 다르고 또 미주 동창회의 동창회보 발송용 주소록 양식, 재정보고 양식 등이 달라 표준화 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 단체나 기관에서 (서류)양식을 표준화 하면 생산성이 40% 이상 시간과 노력이 절감될 수 있다는 미국 산업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이를 감안해 지역 동창회의 여러 가지 양식들을 비교 검토해보고 좋은 선례를 취합해 지역 동창회에 맞게 상향 표준화를 권장하는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동시에 미주 동창회에서 필요로 하는 회보 발송용 주소록 양식, Brain Network Symposium 과 Mentoring Program을 위한 전문인력 Database 양식, 전체 회원명단 책자 발행시 필요한 정보를 평소 지역 동창회에서도 수집할 수 있게 하면 5~10년 간격으로 미주 전체 회원명단 책자 발행에 크게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실시하는 미주 동창회 내부감사에서 얻어지는 재정 및 세금보고 자료를 활용하면 동창회 상향 표준화에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이번 상향 표준화 노력은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에서도 토의와 준비를 거쳐 지역 동창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미주 동창회와 25개 지역 동창회가 하나가 돼 효율적 운영체계가 확립되고 Group IQ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모교생 '대기업의 신사업 성공전략' 연구차 방미계획

(4개 지역 동창회 협조요망)

양강민 학생을 포함, 총 6명의 모교 경영대 재학생들이 2013년 12월부터 학교와 POSCO 지원을 받아 '대기업의 신사업 성공전략' 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대기업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주제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대기업의 신사업 성공전략' 연구팀은 2월에 총 4개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ITINERARY에 따라 연구를 진행키로 했는데 일정은 2월 8 ~ 14일 뉴욕, 14 ~ 16일 보스턴, 16 ~ 24일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이 일정을 이미 해당 지역 동창회장님들에게 알렸으며 모교 재학생들이 각 도시를 순회할 때 지역 동창회 회장단과 관련분야에서 일하시는 동문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교 재학생들이 이런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미국의 대기업 관계자 또는 신사업 관련 연구 및 일을 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뵙거나 e메일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재학생 팀원들의 능력 및 인적 네트워크 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재미 동문들께 도움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해당 지역동창회에서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언을 주실 분을 소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출신이 아닌 분도,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도 괜찮다며 소개시켜 주시면 방문 또는 e메일 중 그 분들께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인터뷰 등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2면에 계속>

미시간 주립대 윤하용 부교수

Journal of Finance 최고논문상

미시간주립대 윤하용(사진) 부교수(재무학)가 지난 1월 4일 재무학 저명 학술지인 저널오브 파이낸스(Journal of Finance)가 주는 최고논문상인 브래틀 그룹 프라이즈(Brattle Group Prize)를 수상했다.

저널 오브 파이낸스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 가운데 매년 자본자산가격결정 분야와 기업금융 분야에서 각각 두 편의 논문을 뽑아 브래틀 그룹 프라이즈를 시상한다.

윤 교수가 프랜시스코 페레즈-존잘레즈 박사와 공동으로 집필해 지난해 10월 실린 논문 '위기관리와 기업의 가치(Risk Management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Weather Derivatives)' 는 2013년 기업금융분야의 최고 논문으로 뽑혔다.

윤 교수의 논문은 기업의 파생금융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오랫동안 재무학에서 숙제처럼 남겨진 파생금융의 인과관계를 파헤쳐 학계로부터 인정받았다.

윤 교수는 "학계에서 파생금융에 대한 의문과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금융위기 발발로 규제하느냐 금지하느냐 등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며 "그 동안의 논문들이 파생금융 상품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비교했다면 이 논문은 기업들이 파생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수상과 관련해 "재무학 분야에서 한인들의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윤 교수는 모교 졸업후 지난 95년 메사추세츠 공대에서 기계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 연구소에 입사했다가 1998년 한국의 IMF사태를 경험하면서 재무학에 관심을 갖게 돼 다시 미국으로 유학해 2006년 컬럼비아대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 중앙일보 인용>

피아니스트 김고은 동문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콩쿠르 대상

뉴욕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고은(음대 03 사진) 동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지난 해 말 1등상을 수상했다.

김고은 동문은 스페인 페롤 지방에서 예선을 거쳐 지난해 11월 본선에 오른 3명 중 한 명으로 영예의 1등을 차지한 것.

김 동문은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재학 중 러시아로 유학해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 음악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와 박사과정 수료 후 2012년 도미해 뉴욕의 맨하탄 음대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밟았다. 현재는 뉴욕에서 연주활동을 하며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도 봉사하고 있다.

김 동문은 이번 대회에 앞서 국제 키보드 인스티튜트 주최 도로시 매켄지 콩쿠르, 맨하탄 음대 아이젠버그 프라이드 콘체르토 콩쿠르, 호로위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안도라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두루 1등상을 받은 화려한 수상 경력의 소유자로 동포사회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뉴욕 한국일보 인용>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와 관악 후원회비가 원동력입니다. 매년 10명 중 3명(30%) 정도가 동창회비를 내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 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및 참가 등록

▶6월 27일(금) = Brain Network Workshop (한국학·생명과학) + 서울음대 순회공연 관람 ▶6월 28일(토) =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 관악세대 Conference ▶6월 29일(일) = 친선 Golf 대회 및 시상식

▶참가등록 Site:SNUAA-USA National Board Meeting Tel.703-893-1340 https://www.starwoodmeeting.com/ StarGroupsWeb/res?id=1312239217 & key=D4E96. Reservation은 December 23, 2013부터 May 30, 2014까지.

23rd SNU Distinguished Achievement Award
Ban Ki-moon,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January 6th 2014

↑반기문 UN 사무총장 '자랑스런 서울대인상' 시상식후 동문 및 관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뒷 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익현 본교 기획처장, 안지현 인문대 교수, 김창수 뉴욕 동창회 직전회장, 설경훈 유엔 차석대사, 백지아 유엔 차석대사, 윤여철 유엔 사무국 의전장, 이경림 미주재단 재무, 강정화 유엔 인도지원 사무차장보, 김형길 뉴욕 부총영사,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특보, 송세주 뉴욕 총영사, 오준 유엔 대표부 대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부, 오연천 모교 총장, 김성환 글로벌 사회공헌단 단장, 박상원 뉴욕 동창회 회장

반기문 UN사무총장

'자랑스런 서울대인상' 수상

지난 1월 6일 오후 5시반, 뉴욕시 맨해튼 45가에 위치한 한국 UN 대표부 1층 라비에서 제 2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문리대 63학번 반기문 UN사무총장이다. 이날 오연천 모교총장이 도미했고, 김성환 모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단장(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남익현 모교 기획처장(경영대학 교수), 안지현 모교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오 총장을 대동하였다.

안지현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오연천 총장은 "반기문 동문이 지난 7년간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UN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며, 빈곤퇴치와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해온 것을 기리기 위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수상 소감 피력이 있었고, 김성환 모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장과 오준 주 UN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원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은 매년 10월 홈 커밍데이에 수여해 왔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23회 수상자로 단독 선정된 지난 10월에는 당시 UN 회기 관계로 반 총장이 시상식에 참석치 못해 이날로 미루어졌고 오 총장 일행이 도미해 시상식을 가진 것이다.

이날 뉴욕 동창회 박상원 회장(음대 67), 김창수 직전회장(약대 64, 경영대학원 68), 미주재단 이경점 재무(상대 64)를 비롯해 UN 사무국, 한국 UN 대표부 및 뉴욕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서울대 동문들과 뉴욕주재 한국의 언론 특파원단이 대거 참석했다.

뉴욕 주재 외교관계의 동문은 오준 주 UN 대표부 대사(문리대 74), 김원수 UN 사무총장 특보(법대 75), 설경훈 UN 차석대사(상대 70), 백지아 UN 차석대사(문리대 81), 윤여철 UN 사무국 의전장(문리대 81), 유대종 UN 공사참사관(문리대 82), 손세주 뉴욕 총영사(사대 73) 등이다.

시상식후 오 총장은 참여 인사들을 Mr.K's Restaurant(570 Lexington Avenue)에 초대해 만찬을 베풀었다. 만찬장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수상 축하와 더불어 모교와 고국 총동창회 및 미주 동창회, 반 총장이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채울 UN의 발전 등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기사 및 사진 = 미주 동창회 김창수 논설위원>

게 시 판

▶워싱턴 DC 공대 동창회 = Annual Banquet을 3월 15일 오후 6시 Palace Restaurant(7131 Little River Tnpk, Annandale, VA 22003)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특별 Program을 위해 저명한 Dance Instuctor, Mr. Paul Mola 를 초청해 분위기를 흥겹게 한다. 제 1부는 Social hour와 Dinner, 2부에서 Agenda처리, 3부에서는 Dance Lesson and Dance the Night Away 의 여흥이 준비된다.

회비는 $50 per single, $100 per Couple. 식사 때 Wine 찬조해 주실 분($20 or $50 or etc.) will be appreciated.

<Ki-Ho Chung (240-423-8204)>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상찬) = 2월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은 '신년 문화축제' 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하고 동문들의 연극잔치, 음악연주와 공연도 펼쳐지게 된다. 2014년 신임 회장은 이서희(법대 70) 동문, 현 총무는 한태호(문리대 75)동문, 차기 총무는 김기형(상대 75) 동문이 맡게 됐다. 총회 일시: 2월 8일(토) 오후 5시(Double Tree by Hilton 562-863-5555 13111 Sycamore Dr., Norwalk)

▶남가주 공대 동창회 = 공대 동문 주소록이 발간돼 공대 동문들에게 우송될 계획이다. 신임 김영도(공대 67) 회장 연락처 는 949-254-931(C) kimyoungdo304@hotmail.com

▶록키 마운틴 동창회 = 신임 회장으로 김영일(법대 64) 동문을 선임했다. 김영일 회장 연락처 719-321-9989 email: youngisaackim@hanmail.net

▶밴쿠버 동창회 = 2014년도 신임회장 및 임원진이 최근 다음과 같이 선임됐다. 회장 이명규(농대 69),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남궁영(공대 77) 총무 유태준(인문대 84), 주부호(공대 87), 재무 심진택(상대 80), 박미선(가정대 86), 홍보 홍영기(공대 86), 최창수(농대 88) 서울 사무소장 박병우(사회대 76), 웹사이트 관리 겸 소식지 위원 최승선(공대 76), 조재용(사회대 76), 문봉채(공대 80), 감사 최승선.**<총무 주부호>**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 = 인문대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장웅조(95년 입학) 동문을 새 식구로 맞았다.

장웅조 동문은 2004년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예술정책 및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2년부터 Seattle University의 Arts Leadership 대학원 과정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 동문의 연락처는 WoongJo Chang 5808 E. Mercer WayMercer Island WA 98040 전화 614-330-4702(C)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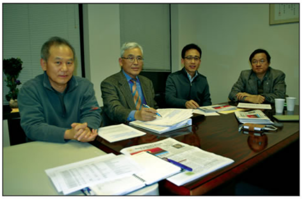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 = 우리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초청해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에서부터 우주비행까지' 를 타이틀로 지난 1월 11일 오전 10시 Lake Hills Library 강연회를 가졌다.

2월에는 UW에 1년 동안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안성훈 서울대 교수가 강연할 계획이다. 안성훈 교수는 '3D 프린터와 적정기술의 예로 본 기술의 영향력(Impact of Technologies: Case Studies on 3D Print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Home Stay Volunteers>

▶민홍기(문리대 심리학 61) 1740 Lockerbie LA Vienna LA 22182 (703)731-5391, 281-0639

또는 부인 **김주환(의대 간호학 72)** hongkimin19@gmail.com ***



↑미주 동창회가 지난 1월 12일 정평희 사무총장 주재로 버지니아 비엔나의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유홍열 재무국장, 정평희 사무총장, 김정식 사업국장, 장경태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1면에서 계속>

그들은 미주 동창회 사이트(www.snuaa.org) 지부회 리스트에 나온 김호범 동문(상대 69, 시카고 동창회장)에게 e메일을 보냈고, 이어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에게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Website와 Networking을 통해 모교 재학생들과 미주 동창회가 연결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양강민 학생은 미국에서도 각 지역별로 동창회가 운영중인 것을 보고 서울대생으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창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이 모교 및 동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비록 선배님들을 한번도 뵌 적은 없지만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경영대 재학생 미국 방문단 연락처: Kangmin Ya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82-10-3595-4654

▶양강민 팀장 연락처 kangmin1216@naver.com

지역동창회간 교류 환영

미주 동창회는 25개 지역 동창회 및 2개 서부 캐나다 지역 동창회와 긴밀한 Two-Way Communication(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지역 동창회는 횡적 교류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New England지부 장수인 회장은 허성도 교수의 한국사 녹취록 중 서울대 역사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JjfaQ1MiEgw)을 발견해 다른 지역 동창회장들에게 알렸고, Houston동창회(회장 이호성)와 Chicago동창회(회장 김호범)에서 최근 벌였던 백악관 Site 서명운동으로 일본인들이 벌이는 LA근교 글렌데일 시민공원 위안부 소녀상 철거운동의 서명에 반대하는 한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2월 3일까지 10만명 이상을 채우는데 일조했습니다.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lease-protect-peace-monument-glendale-central-library/Z1OfHILP.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27개 지역 동창회가 횡적 교류를 활성화,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협조하는 분위기로 만들까 합니다.***

차 례

3. 역사교과서를 어찌할꼬/ 한사군의 위치 / 동문 영시 감상
4-5.<모교소식>2013 학술연구상 시상/ 서울대생 가장 많이 읽은 책/ 서울대병원에 국내 첫 PTSD센터/ 졸업생중 60%만 취업/ 학생 오케스트라 챔버 앙상블/ IMF총재 특강/ 러시아 15개대 총장단과 교류논의 / <모교 교수칼럼>그믐날 노시인과··
6-7. <기획·통일은 대박>어떤 통일인가 / '통일은 대박이다' 인기고조/ 대박통일 밥상 함께 차리자/ 대박 통일과 변화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양극화와 중용/
8. 종자와 바이오 의약을 잇는 신성장 동력산업/ 향기/ 오늘은 무엇을 배웠을까
9.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10. 마지막 편지/ 동문 시 감상/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이라지만
11~13. 미주 동문 동정
14-19. 미주 지역 동창회 소식
20~22.<관악세대>교과서 전쟁/ Alzhemer's Disease/ 박완서의 싱아와 개성공단/ <동문 시 감상>겨울편지/ 문화명당 인왕산에 올라/ Jackpot은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건강한 희망 Here & Now살기/ 우편배달부가 시를 읊은 까닭/<동문시감상>저녁 때 내리는 눈발
23.<My Journey to America>아메리칸 드림</>
24.<동방여행기>청나라 고도 심양에서
25.<여행기> 아리조나 이야기
26-27. 동창회비, 관악후원금 등 후원금
28. 동문 업소록
29. 동문업소록/ 신간안내
30.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편집후기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고국 동문 역사교육 칼럼

"역사교과서를 어찌할꼬?"

류동길(상대 58)
숭실대 명예교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논란을 보는 마음은 어이없고 참담하다. 역사교과서는 모두 8개, 교학사 교과서만 우 편향으로 알려져 있고 지학사 교과서가 좌파에서 약간 중도 쪽으로 와 있을 뿐 나머지 6개 교과서는 대한민국 성취를 부정하고 건국의 문제점을 들추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도입한 검정교과서제도의 결과가 이렇다.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삼으려했던 학교는 전국 1천 794개 학교 중 20여 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성향 사회단체들이 이들 학교를 상대로 협박과 악의적인 괴담, 유언비어 유포 등 온갖 방법을 동원, 채택을 못하게 압박했다. 광우병 파동이나 철도노조파업 등에서 보던 방법이 아닌가.

교육부는 교재채택을 철회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런 조사를 하고 발표만 하면 뭣 하는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사실상 없다. 이제 모든 학생들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편향될 수밖에 없다. 역사교육이 이래도 되는가.

역사에는 공과(功過)가 없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절대빈곤에서 탈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우리의 역사를 미화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학교 교육기간은 지적 훈련기간이다. 학생들을 편향된 시각의 외눈박이로 키워서는 안되는 것이다.

런던 대학과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인 일본 출신 모리시마 미치오는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1999년)라는 책에서 2050년 일본은 몰락한다고 했다.

일본몰락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교육과 정신의 황폐화에서 오는 정치 무능과 빈곤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성과가 가장 오르는 10대 후반의 젊은 학생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교육을 한다.

훌륭한 관료와 기업가와 문화인을 키워내더라도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본은 장래가 없다.

정치인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1999년 현실을 전제로 이때 교육받은 학생들이 50년 후 인생의 절정기에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추론하면서 2050년에 몰락한다는 것이다. 이건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역사는 어떤 시각으로 누가, 언제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역사 해석을 다양하게 허용하려고 검정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교조와 일부 세력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건 다양성이고 자기들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다양성 훼손이고 악이라며 교과서 채택을 방해한다. 그들은 교육을 잘 하자는 게 아니라 진영논리에 빠져 그들이 가진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억지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교과서를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전교조나 시민단체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세상인데 다양성 보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근·현대사는 집필자의 이념과 시각에 따라 역사 서술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현대사 비중을 50 ~ 80%로 지나치게 크게 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건 교육부다. 더욱이 퇴임한 지 1년, 6년도 안된 대통령 정권에 대해 교과서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역사기술이 아니라 정치선전이나 다름없다. 교과서가 신문의 칼럼이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면 교육부는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모든 역사 교과서에 오류가 많은 것도 논란을 키운 원인이다. 졸속 또는 편향된 시각으로 집필한 교과서는 부실공사와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게 한 책임,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족한 교과서 전문가, 짧은 검정 심사기간, 집필과 검정 기준 선정 등등에서 나타난 교육부의 무능과 무지를 들추려면 끝이 없다. 오죽하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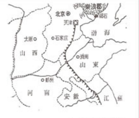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갈등은 정치권에서 비롯된 것인데 역시 정치권이 이 논란에도 빠지지 않고 있다.

국정으로 환원하든 검정제도를 유지하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 교육현장이 이념 대립의 현장이 돼고 대들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가능한가.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와 정치권이 모두 명심해야한다.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을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라.*** <yoodk99@hanmail.net>

한사군(漢四郡)의 위치

장수영(공대 57)MD
포항공대 전 총장



漢四郡의 樂浪郡과 古朝鮮

한고조 유방이 BC 206년에 천하통일 후 노관을 연왕에 봉했는데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었다. 위만이 1천여 명을 이끌고 패수를 건너서 조선에 들어와 조선왕 기준의 신임을 얻고 BC 194년 기준을 쫓아내고 왕이라 칭하니 이것이 위만조선이다 그때 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이었다.

그러나 BC 108년에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하고 낙랑·진번·임둔·현도 등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패수와 왕검성이 어딘가에 따라 한사군 위치가 밝혀진다.

이병도·이홍직·이기백·한영우 등 주류 사학자들은 패수가 대동강,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생각해서 한사군이 모두 한반도에 있었다고 본다. 즉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 진번군이 자비령 이남 한강 이북, 현도군이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 임둔군은 함경남도 지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와 이마니시 류(今西龍)같은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사군은 한무제가 고구려를 멸하면 진번군을 만들고 북부여-북옥저를 멸하면 현도군을 만들고 남동부여-남옥저를 멸해서 임둔군을 만들고 낙랑국을 멸해서 낙랑군을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것이고 실현된 것이 아니다.

한무제는 위만조선을 멸했지만 조선땅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하고 국경부근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순체와 양복 등의 장군들을 사형시켰던 것이다.

일본학자들은 삼국사기에 고조선 기록이 없음을 알고 한민족의 국가는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으로부터 시작되니 한민족은 자주성이 없고 BC 660년 신무천황이 즉위한 일본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평양지역에서 발굴된 봉니(封泥)에 낙랑태수장, 낙랑우위 등의 관직명이 있음으로 이 지역이 낙랑군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봉니는 공문서를 보낼 때 봉함하는 것으로 봉니가 출토된 곳은 공문서를 받은 곳이 되며 그곳이 낙랑군은 아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용강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제평산군신사비다. 한서 지리지에는 낙랑군에 점제현이 있었으므로 이비가 서있는 지역이 바로 점제현이라는 것이다. 또 한서 지리지에는 '탄열현은 분려산이 있는데 열수(列水)가 이곳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점제현에 이르며 바다로 들어가며 820리를 흐른다' 라고 되어 있다. 후한서에 열수는 요동에 있다고 했으나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와 이병도는 열수를 대동강이라고 비정했다.

점제현 신사비가 2천년 동안 서 있었다는 용강군은 온천지대로서 그 비가 서 있는 곳은 평야지대의 길 옆이었다. 그 지역에서는 "일본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비가 서 있었다" 는 말이 떠돌았다. 북한에서는 점제현 신사비 화강암 성분 분석결과 용강군 지역의 화강석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학자 손보기에 의하면 전제현 신사비의 돌이 갈석산의 돌과 같으며 일본인들이 배로 실어 그곳에 설치하고 한국 어린이를 옆에 세워 사진을 찍고 이곳이 낙랑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세번째 증거는 평양 지역에서 대진원강(大晉元康), 낙랑예관 등의 문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진원강은 291 ~ 299년대이므로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시기보다 400여 년이 지난 때이므로 연대가 맞지 않는다.

평양 지역의 낙랑 유적은 그 조성연대가 전한(BC 206 ~ AD 24)시대가 아니라 후한(AD 25 ~ 219)시대 이후의 것이다.

평양 지역에는 최리(崔理)의 낙랑국이 있었으며 37년 고구려에 의해 멸망한다. 그러나 44년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후한의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 낙랑지역을 정벌하고 살수 이남을 한사군의 낙랑군에 속하게 했다. 결국 평양지역에서 발견된 낙랑유적은 후한 광무제에 의해 설치됐던 군사기지 낙랑의 유적인 것이다.

낙랑군이 하북성 동북부에 있는 난하의 동부 연안에, 왕검성도 현재의 평양이 아니고 난하연안에 있었음은 신채호·장도빈·윤내현·문정창·최동과 이덕일에 의해 밝혀졌다. 열수와 패수도 청천강이나 대동강이 아니고 난하의 한부분이나 지류였다. 쓰다 소우키치는 패수를 압록강, 이병도는 청천강으로 봤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88 민제 건흥원년(313년)에는 요동에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점령됐다고 되어 있다. 같은 기사가 삼국사기 미천왕 14 ~ 15년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때는 한나라는 이미 멸망하였고 진(晉)의 민제 때였다.

1976년 발견된 평양근처 덕흥리 고분의 묘주인의 이름은 진(鎭)이며 신도현에서 태어나 고구려의 건위장군, 국소대형, 좌장군, 용양장군, 요동태수, 유주자사의 벼슬을 지냈고 77세에 죽었다. 서벽에는 주인공을 향해 인사하는 13군 태수를 그려 놓았는데 연군태수·어양태수 등 6군 태수가 있고 하단에는 북평태수·요서태수·창려태수·요동태수·현도태수·낙랑태수 글자가 지워진 또 한 명의 태수를 그렸다. 유주는 오늘의 북경지역이며 진(鎭)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글자가 지워진 부분은 대방태수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서지역에 있었으며 평양의 낙랑유적은 최리의 낙랑국과 광무제가 설치했던 군사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동문 영시 감상

Cupid's Arrow

영시 홍선애(미대 62)CA

I am a Cupid's arrow to mom ami
Ebony night by the ocean shore
May hands are shaky
My heart shivers before
The rhythmic roars of churning sea
Tonight like any other night
I yearn after him who's away
on his Faustian foray
Hoping he might
Appear like the beaming moon
Any time soon
Sailing out on the silvery waves
in the moonlit eve
Far out the horizon
With an illusion that I would achieve
A rendezvous with him
Alas, my arrow misses the elusive target
Whistling in the air
Shooting the void to my regret
Left alone I'm stiff like zombie
As the horse standing
Pink, frost-bitten at dawn
I still wait on as the frozen flower demanding
The warmth of smiling sun
Until then nothing done ***

큐피드의 화살

난 당신의 심장을 노리는 화살
바닷가 어두운 밤이 오면
떨리는 손으로
헐떡이는 바다 그 파도소리에

내 가슴은 마구 떨려오고
오늘 밤도 난
떠나간 당신을 못내 그리며
행여나 장승같은 사내의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저 달빛 타고 내려올 것만 같아
달빛 아래
은빛 파도를 타고
저 수평선 너머로 배 저어가면
행여나 당신과 만날 수 있을까
앗, 화살은 어처구니 없게 또 허공을 빗나가고

야속한 당신의 심장을 놓치고 말지요
이제 또 혼자 남아
반푼어치 가시나 되어
이슥고 새벽이 오면
이 서리 어린 분홍빛 장미를 품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요.
그때까진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답니다.***

Translated by Michael k.
供亮 김기형(상대75) CA

모교소식

2013 학술연구상 시상

교수 5인, 노력과 열정으로 얻은 ‘진리의 빛’

지난 해 11월, 2013학년도 서울대 학술 연구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학술 연구상은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마련된 상으로,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교수들을 매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다섯 명 교수의 이모저모다.

▶왕한석 교수(인류학과) = 연구분야는 언어인류학으로 한국 언어문화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존댓말 및 친척용어를 비롯해, 근래에는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후학들에게는 이 세상을 다녀간 흔적을 만드는 일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느 길이나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참으며 노력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병호 교수(전기•정보공학부) = 연구분야는 나노광학과 3D 디스플레이 등 응용광학이다. 파장보다 작은 금속 구조물을 이용해 빛을 파장보다 작은 크기에 강하게 집속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안경을 끼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시스루(see-through)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형준 교수(중어중문학과) = 연구분야는 중국 현대문학 및 비교문학이다. 그 중에서도 문학이론 및 문학비평 방면과, 중국 현대문학 초기의 대표적 작가인 루쉰(魯迅) 연구에 주력해오고 있다.

연구의 기본 입장은 비판정신이다. 현재 주류 담론이 되고 있는 학술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때로는 해체하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표다.

▶정진호 교수(의과학과) = 연구분야는 피부 노화의 발생 원인 규명 및 예방,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다. 특히 자외선, 열, 호르몬 등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밝혔으며,

↑위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왕한석 교수, 이병호 교수, 전형준 교수, 정진호 교수, 허창회 교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광노화 및 열노화 등의 피부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피부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표적단백질(target protein)을 다수 발견해 억제 방법을 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연구 중이다.

▶허창회 교수(지구환경과학부) =연구분야는 대기과학의 여러 분야 중 기후변화, 기후분석과 기후모델링, 그리고 장기기상예측 분야다.

기후변화 연구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표면과 대류권)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기후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다.

기후분석은 근대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해서 기후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연구분야이며, 기후모델링을 통해서 기후분석 결과와 메커니즘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후학생들에게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충분한 실력을 쌓아 놓으면 없던 자리도 만들어지고, 자신의 실력이 충분치 않으면 있던 자리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년 연속해서 ‘총,균,쇠’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이 지난 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 균, 쇠’(사진)로 집계됐다.

지난 해 말 모교 중앙도서관의 ‘많이 빌려본 책 목록’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총, 균, 쇠’는 총 137회 대출돼 가장 많이 빌려 본 책 1위로 조사됐다.

‘총, 균, 쇠’는 미 캘리포니아대 지리학 교수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로 문명간 불평등의 기원이 지리적 차이에 있다는 연구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1998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 책은 바로 전 해에도 총 81회 대출돼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09~2011년에는 2위를 기록했다.

이 책에 이어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 하나인 에우리피데스의 ‘에우리피데스 비극’(사진)이 96회로 2위,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과 또 다른 그리스 비극 작가인 아이스퀼로스의 ‘아이스퀼로스 비극’이 95회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5위(88회)를 기록했다.

6위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7위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8위는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였다.

또한 9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 4대 비극’, 10위는 알랭 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가 차지했다.***

<서울 = 뉴시스>

서울대병원에 국내 첫 PTSD센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위해

아시아나기 생존자들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 치료

한국 정부가 지난 해 7월 서울대병원에 PTSD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치료센터 제1호를 오픈했다. 한국내 PTSD치료센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4곳 이상 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치료센터의 설립은 지난해 아시아나기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원인이 됐다. 아시아나기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 됐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하고 있다. WSJ는 “일부 탑승자들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금 모(53) 씨는 “한번은 기분전환을 하려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소리가 나는 장면에 충격을 받고 마비증세가 왔다. 진정제를 먹고도 몸 떨림 증세가 낫지를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금씨는 직장에 6개월의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사고를 당하면 충격의 후유증으로 분노와 불안, 악몽 등이 수반되며 대부분은 수주가 지나면 진정된다. 그러나 금씨처럼 일부는 PTSD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사고기 탑승 7명의 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정신과 김민영 닥터는 “PTSD 환자들은 몇시간 상담으로 치료되는게 아니다.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국엔 트라우마 관련 전문의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강 모(42)씨의 경우 부상은 치료됐으나 정신적 충격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는 “매월 한 번 상담을 하고 있다. 숙면을 취하려면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미국 연수를 위해서 사고기에 탑승했던 그는 비행기타는 것이 두려워 지난 10월 해외여행계획도 취소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PTSD로 6천 950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천 576명에 이어 25%가 증가한 수치다. *** <한국일보>

지난해 졸업생중 60%만 취업 성공

지난 해 서울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30일 ‘서울대 통계연보 2013년판’에 따르면 올해 학부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은 평균 61.3%로 파악됐다고 ‘머니 투데이’가 보도했다.

순수 취업률은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업한 학부생 가운데 2013년 6월 1일 당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들의 비율을 뜻한다.

대학원 진학생과 군 입대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취업률은 평균 74.5%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의과대학의 순수 취업률이 90.7%로 가장 높았다. 2위는 경영대(87.7%)였고 이어 사회대(74.2%), 수의대(67.9%), 공대(67.6%), 약대(66.7%)의 순서였다.

반면 간호대의 순수 취업률은 13.1%로 가장 낮았고 음대 19.8%, 자유전공학부 33.3%, 미대 33.3%, 사범대 44.6%, 자연과학대 45.5% 등 단과대학의 순수 취업률도 50%를 밑돌았다.

진학생과 군 입대자를 반영한 전체 취업률은 자유전공학부가 9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24명 가운데 21명이 대학원 등으로 진학했기 때문이라고 머니투데이가 분석했다. 이어 의대(90.7%)와 경영대(89.6%), 공대(83.2%), 사회대(80.8%), 자연과학대(79.9%) 순서로 전체 취업률이 높았다. *** <조선일보>

모교 음대 교수와 동문이 이끌고 있는 '학생오케스트라 챔버 앙상블' 뉴욕 공연

↑ '학생 오케스트라(KSO) 챔버 앙상블' 단원들이 공연 중이다

지난 1 월 16일 뉴욕 Merkin Concert Hall at Kaufman Music Center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국제교류 연주회가 있었다. 모교 음대 김덕기 교수 지휘로 진행된 이 연주회는 음대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년부터 중학생들이 참여, Mozart의 Divertimento in D major, Vivaldi의 'Four seasons', 대금 협주곡 '청성곡'을 연주한 독특한 연주회였다. 잘 알려진 Venezuela의 El Sistema를 닮은 듯한 이 음악운동은 1975년 베네주엘라의 Jose Antonio Abreu가 주도,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모아 음악을 가르치고, 합주함으로서 음악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신적 결속과 화합, 소통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길러 주는 등 성공적 아동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한국의 '학생 오케스트라' 운동은 2011년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사업의 주축으로 서울대가 전담 기관으로 선정돼 65개교에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40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음악적 재능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심과 배려심, 사회공헌을 높이는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교류활성화에 기여도 하게 된다. 서울대가 맡은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음악적 경험제공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도교사 역량강화, 운영 메뉴얼 제작, 악보뱅크 지원,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뉴욕 연주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년생부터 violin, viola, cello 연주자들로 구성됐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 연습부터 무대 연주까지 지도했다. 뉴욕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이 음악회에 참여해 이들을 격려했고, 서울대 미주재단과 뉴욕동창회에서는 연주자 전원과, 동행 교육부 관계자, 김영율 음대 학장을 레스토랑 초대, 성공적 뉴욕 데뷔 연주회를 축하해주었다. 음악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다양성과 기능성을 존중하며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며, 이 활동에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김영률 학장이 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식위주 교육에서 인성 교육과 emotional Intelligent의 중요성 교육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문들은 El Sistema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 음악회에 즈음하여 김영률 서울음대 학장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에게 서울대 미주 동문들의 성원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오인환 회장(DC 지역)은 음악회 행사 지역인 뉴욕 동창회 필자(박상원)에게 연락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여 성사되었는데 이는 미주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가능하였다.

이 단체와 실장 윤성원 동문의 연락처는 서울대 음악대학 55-301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880-9320 02-882-9320 e-mail csy5974@snu.ac.kr으로 하면 된다. ***

<박상원(음대 69) 뉴욕동창회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특강

Dialogue with Madame Christine Lagarde
Distinguished Lecture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10:00 ~ 11:30 AM, December 5 (Thursday) 2013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모교가 Christine Largarde IMF 총재(사진)를지난 해 초청해 'Christine Largarde IMF 총재와의 대화' 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회를 지난 해인 12월 5일 모교 국제대학원 소천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연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경제 현장에서 한국의 역할과 더 나아가 다자협력과 국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19세기가 유럽,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가 세상의 중심이 될 시대" 라며 "한국은 과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겨내면서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해 안전한 투자처가 됐다" 고 말했다. 행사는 라가르드 IMF 총재의 연설과 더불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등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

모교 재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은 Town Hall Meeting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 15개 대학총장단과 교류논의

모교는 지난 해 12월 9일 모스크바 과학기술대, 극동대, 모스크바 물리기술대 등 러시아 15개 대학 총장단과 접견을 갖고 교육 및 연구 등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연천 총장은 러시아 총장단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 자율성 확보, 정부의 재정지원 등 고등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러시아 대학 총장단은 최근 서울대가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 서울대와 복수학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대는 러시아 6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사 8명과 석사 21명, 박사과정 7명 등 총 36명의 러시아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방문 러시아 대학(15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Kazan (Volga region) Federal University ▶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State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SIS ▶National Research Tomsk State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Tomsk Polytechnic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National Research Nuclear University MEPHI ▶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Lobachevsky State University of Nizhni Novgorod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Samara State Aerospace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St. Petersburg State Polytechnical University ▶St. Petersburg Electrotechnical University LETI ▶St. Petersburg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on information technologies, mechanics and optics ▶Ural Federal University ***

모교 교수 칼럼

"그믐날 노시인과…"

송호근(문리대)
서울대 교수•사회학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지난해 세모의 거리는 어두운 기억을 떨치려는 듯 인파로 넘실거렸다.

궁핍했던 시절보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 무거웠고 일상의 갈피마다 묻어나는 조바심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설원을 달려온 기차처럼 흰 연기 푹푹 뿜으며 길게 눕고 싶은 세모의 오후, 노시인은 레스토랑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 시사 주간지에서 마련한 대담 자리, 주제는 아랑곳 않고 역사는 자연이라고 뜬금없이 그가 말했다. 역사를 춘추(春秋)로 불렀던 동양의 관습과 팔순의 시(詩) 연륜이 융합하자 우주의 사투리가 그냥 흘러나와 낮 술잔을 적셨다.

모골이 송연해진 사회학자는 1년 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었던 이념투쟁, 국정원 선거개입, 철도파업 같은 지구의 어느 구석에서의 싸움이 한갓 에피소드처럼 소실하는 것에 환호했다.

사회학자가 보는 세상은 긴장과 대립의 연속이고 불화를 싹틔우는 씨앗들에 분석적 시선을 꽂기 마련이다. 술잔을 단숨에 비운 그가 냅킨 위에 취할 흥(興)자를 길쭉하게 쓰면서 말했다. 흥(興)자 가운데 일(一)자가 아래 위를 지평선처럼 갈랐다.

'대지는 꿈틀대니까 밟아줘야 하거든, 그걸 밟으면 대지 위에 인간은 어깨가 굼실거리지, 그게 흥이고, 대지의 무도(舞蹈)야.'

노 시인의 말은 그냥 시였다. 춘하추동으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한국사회의 아귀다툼은 언젠가 '무도회의 취흥' 이 될 거라고 흘려 말했다. 희망사고가 아닐까 하는 사회학자의 의구심은 문명의 야만을 탈주하는 그의 시어에 흥겹게 유실됐다.

안드로메다와 교신한 듯한 그의 '무제시편' 에는 이런 시가 있다.

"正史는 단조로운 질서이다/ 야사(野史)는 불온한 일탈이다/ 정사와 야사는 서로 만나기를 저어한다…/ 유럽 여행 지겹다…/ 어서 떠나/ 남태평양의 오래된 해류 위에 맞지 않는 예언으로 떠 있으리라." (무제시편 86)

'맞지 않는 예언' 으로 춤출 수 있는 세상은 정사(正史)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청년 시절 통영 미륵산 토굴에서 일찍이 깨쳤거늘 '삼국유사' 같은 설화의 세계에 호적(戶籍)을 두고 환속한 그에게 끊임없이 시를 쓰게 하는 영혼의 시그널은 어디에서 발원한 것일까.

사회학자는 맞지 않는 예언으로 춤출 수 있는 특권이 없다. 나는 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사(正史) 쪽으로, '국민행복정치' 와 '철도파업' 쪽으로 그를 끌어냈는데, 그는 금세 어린 학생처럼 지루해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소란할까요? 소란 끝에 이윽고 고독이 찾아올까요? 사람들을 첨예한 이해관계로 몰아내는 자본주의에서 고독은 실존의식이 깃드는 아지트다. 고독을 겪은 사람만이 아니면 사람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차릴 수 없다.

고독에서 노 시인의 눈빛은 다시 반짝였다. 노 시인이 말했다.

"한국은 고독할 새가 없던 사회였다. 식민시대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고독 속으로 침잠했어야 했는데 원한과 적개심이라는 원초적 감정을 부추긴 냉전 이데올로기가 고독과 화해의 가능성을 틀어막았다."

화해란 오랜 대결 끝에 갈망하는 춤사위라면 우리는 아직 소란스러운 투쟁지대를 건너고 있는 중이다. 그럼, 서로 다른 '국민편익' 을 앞세운 저 투박한 격투기, 철도 민영화와 공영화 중 무엇이 정의인지 모른 채 분출하는 격투는 내년에도 다른 형태로 재현되겠지요?

'압축성장에서 겪지 못한 결핍 때문에 그렇지' 라고 그가 말했다. 압축성장은 가능했지만 이렇게 거친 사유로는 이해분쟁의 해소가 어렵다,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더 거친 이념논쟁이 개막된 이유도 결핍증 아닐까, 노시인은 문학에 빗대 말을 이었다.

'산문(散文)이 시(詩)로 진화하는 길목이 무너졌어.'

그래서인가, 평생을 짓누른 전쟁의 적개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절규하는 전쟁세대의 모습과, 그것의 연장선에 놓인 '안보정치' 가 대지의 취흥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반도의 문명이 을씨년스럽게 다가왔다.

'아사달과 아사녀를 춤추게 하는 시적 예언으로도 우리의 결핍증을 메울 수 없는 이때!'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노시인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데올로기를 시(詩)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듯 노시인은 시어를 쏟아냈다.

'팔순 세월이 이념에 짓눌려/ 野史로 가자, 유럽의 우람한 正史를 물리치듯/…/좌우 이데올로기는 저 변두리에서 풀이나 뜯으라.'

'대지의 무도를 망치는 좌우 이데올로기는 변방에서 풀이나 뜯으라' .

팔순의 노 시인이 남긴 이 말은 산문으로 무장한 사회학자에게 준 화두였고, 피곤에 지친 시민들에게 던진 신년 메시지였다. 대담을 마친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밖에는 눈발이 제법 굵어졌다. 재회를 언약하는 노 시인의 손은 따뜻했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노 시인의 좁은 어깨에 눈이 몇 점 떨어졌다.

시인(詩人) 고은, 그와 보낸 세모의 몇 시간은 행복했다. 내가 팔순이 될 때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기획> 통일은 대박

“어떤 통일인가?”

배인준(문리대 74졸)
동아일보 주필

‘자유민주체제 통일’ 만이 대박, 그러나 친북적 통일관도 만만찮아. 자유민주 통일 국론조성부터 험난 학교 바른 통일교육도 못하는 현실. 독일은 자유민주 도전세력 차단 서독 기본법을 살려 통일 후 안정

올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신년 키워드는 첫째 경제, 둘째 통일이었다.

통일에 관해서는 “올해 국정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라고 했다.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대내 기반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반은 통일에 대한 국민 다수의 동의(同意)일 것이다. ‘통일만 되면 좋겠다’ 가 아니라 ‘어떤 국가로 통일할 것인가’ 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통일이냐’ 하는 것이 최소한 수백년간 우리 한국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대한민국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을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믿는다. 그제 박 대통령도 당연히 이런 통일을 말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변질시키는 통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대박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수령 절대주의를 버무린 체제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국론 형성부터가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 그리고 국내 좌우 세력이 똑같은 통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수령 김정일은 6.15 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내 좌파 이론가인 백낙청 씨는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2006년)이라는 책에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한 논란을 제거한 절묘한 타결” 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남과 북 현재 정권의 일정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 말고는 다른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 고 덧붙였다. ‘우리 남한의 정권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북한 김일성 세습 왕조정권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는 얘기인 셈이다.

6.15 선언은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에 반대한다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뿌리가 닿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적화통일 목표를 바꾸거나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반(反)파쇼, 반제(反帝)통일” 이라고 둘러대지만 한반도 전체를 북한화(化)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북한 주민 2천 400만 명을 공포체제의 인질로 삼은 것도 모자라 남한까지 수령 절대주의 지옥으로 만들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주의의 축복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통일도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가벼운 숙제가 아니다. 다수의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선 자유 민주 통일에 대한 공감과 열망을 불어넣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지난 정부의 어느 고위 당국자는 “중·고교에서 올바른 통일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교장이 하고 싶어도 전교조 세력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고 말한다.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자유민주 통일에 대해 지지(支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지(沮止)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 하다.

그들은 이와 더불어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다짐한 미국(2013년 한미정상 선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제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박근혜 정부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로부터 올바른 통일관을 가르칠 수단도 없다.

긍정사관(史觀)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대한민국 전국 2천 3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채택률이 0 % 라는 기막힌 사실도 통일 논의의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일깨운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하고 답을 찾아내야 한다.

백낙청씨 같은 이른바 원로그룹부터 전국의 학교 일각, 민노총 같은 정치노동 조직, 일부 극좌 종교 조직, 그리고 대학생 조직까지 대한민국의 건전한 통일담론을 방해하는 세력은 운동성이 뛰어나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이들의 뿌리는 아주 깊다” 면서 “자금(資金)도 있는 데다 정치권까지 연결되어 있어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국론 조성부터 도전 받을 것” 이라고 걱정했다.

이들은 진보와 민주의 탈을 쓰고, 북한이 불리한 상황에서의 통일논의에 재를 뿌리기 위해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길 것이고, 일부 세력은 북한과 호흡을 맞춰 가며 남한 내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독일은 옛 서독인들로부터 사랑받던 기본법(헌법)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완성했다.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과 통일 독일의 안정은 대내적으로 기본법에 입각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헌법은 기존의 서독 기본법을 거의 고스란히 살리고 극히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injoon@donga.com>

신창민(법대 60) 교수가 쓴 2012년 저서

‘통일은 대박이다’ 인기고조

‘박 대통령 인식 정확’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2012년 동명의 책을 쓴 신창민(법대 60) 교수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낸 신창민 명예교수는 2012년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책을 내고 지난해 5월 필라델피아에서 강연도 했다.

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통일의 방법과 시기, 경제 · 정치적 이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남한 국민 입장에서 통일 뒤 10년 지나면 실질소득이 2.6배에 달하게 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 뒤 7만7천달러에 이르게 된다.

신 교수는 통일되면 정년 퇴직자나 예비역 장성 · 장교들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 뿐 아니라 일자리 등에서 ‘대박이 날 것’ 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을 시작하고 그 재원은 담세능력을 감안하는 통일연대세 형태(가칭 남북협력기금)로 GDP의 0.25%, 나머지 0.75%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신 교수는 “우리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 이래 통일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처음” 이라며 “늦었지만 다행” 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국내 문제로 다투기만 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모처럼 이런 대통령이 출현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 국민이 합심해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통일은 대박이다’ 의 영문판 출간에 대해 “외국인들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협력해 줘야 통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대박통일’ 밥상 함께 차리자

이원영(인문대 81)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한의학 박사

1년 전 ‘남북관계와 박근혜 당선인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다.

‘굴곡진 남북관계를 앞에 두고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중차대하다. 남북관계 개선, 아울러 통일의 노정을 닦는데는 최고 지도자의 철학과 비전이 중요하다. 박 당선인은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남북관계를 소신있게 추진하기에 더 없이 좋은 우군이다. 박 당선인은 희미한 물길을 내는 여객선보다는 북극 빙해를 뚫어내는 쇄빙선 같은 역할을 해달라.’

이 글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지난 1년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 이산가족 상봉 무산, 장성택 처형 등 남북은 ‘강 대 강’ 으로 대치하며 긴장이 높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통일’ 은 분위기가 맞지 않는 주제거나 아니면 종북몰이의 타겟이 되기 십상이었다. 지난 1년, ‘통일’ 은 실종됐다.

그런데 말띠 새해가 열리자 마치 경주마가 출발선을 박차고 내달리듯 ‘통일’ 이라는 단어가 봇물이 터지고 있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참인가, 남·북 정부와 언론들이 손발을 맞췄나 싶을 정도다.

스타트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끊었다. 그는 신년사에서 “올해 조국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 고 주문했다. 적극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화답하듯 우리 고국 정부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혼수상태에 빠진 통일 담론을 끌어올려야 한다” 고 언급했다.

놀랍고 어리둥절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신문인 중앙·조선·동아가 일제히 통일을 주제로 신년기획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낸 것이다.

중앙일보는 ‘신갑오개혁’ 어젠다에서 ‘한국이 동북아 주도권을 못 잡는 것은 분단 상황 때문’ 이라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 내려진 5.24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대화에 나서라’ 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는 주제로 연일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통일 코리아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통일이익이 분단비용보다 크다’ , ‘북한 나무심기를 통해 녹색통일 이루자’ 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통일 대박’ 발언은 올해 신년에 쏟아진 통일 화두의 화룡점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고 못을 박았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통일 담론에 대한 여러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교류와 통일만이 살길이란 점을 비로소 자각한 것이다.

“보수정권이 ‘종북몰이’ 로 진보를 위축시킨 뒤 ‘통일’ 이슈를 빼앗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등의 삐딱한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해석은 개인의 자유다.

중요한 건 보수든 진보든, 남이든 북이든, 통일을 하자는 원칙론엔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보수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마저 “통일은 대박” 이라고 선언했으니 그 당위성에는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겠다.

보수 언론들의 ‘합창’ 과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이 암울했던 지난 1년의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뜻깊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간 진보 진영이 종북몰이, 용공 분위기에 위축됐었다면 이제부터는 소신껏 통일을 말하라.

보수 진영이 통일을 말하기에 꺼끄러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새겨 ‘대박’ 행렬에 동참하라.

지난 1년, ‘국정원’ 을 놓고 시위-맞불데모 하느라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을 터인데 ‘통일밥상’ 을 차려 놓고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기획> 통일은 대박

‘대박’ 통일과 변화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백 순(법대 58)DC
미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한미포럼 위원
미주동창회보 주필

지난 해 11월 북한의 잔인한 숙청바람이 일어난 이후 금년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박’ 통일을 천명하는 등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와 주변의 상황이 성숙되어 가는 역사적 흐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정책적 관심이 실질적인 통일 달성에 중요 관건이 되고 있음은 독일 통일의 역사적 사실을 관찰하여도 주지할 수 있는 진리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요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작년 후반부터 근래 미 워싱턴 정가에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여 가는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정책이란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중단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난 거의 20년 동안 온건과 강경의 방법을 교차하면서 추진하여 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실패를 가져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초기의 강경에서 후기의 대화와 접촉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2000년대 부시 행정부도 초기에 북한을 ‘악의 축’ 이라 지칭하면서 대항을 추구하다가 후기에 외교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아무런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에 ‘전략적 인내’ 라고 내세우면서 외교와 접촉을 시도하여 왔고 근래에는 평양이 먼저 오래 전에 행한 비핵화의 약속을 지켜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든 미국의 북한정책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지만, 근래 미국의 북한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정책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교훈은 2가지다.

첫째 교훈은 북한 핵은 북한이 어떠한 국가 이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협상 카드의 한 목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체제와 직결돼 있다는 교훈이다.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칭하는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북한을 ‘핵보유국가’ 라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 북한체제와 핵보유를 동일선상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을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증거다.

정책 과시에도 핵을 ‘전략보검’ 또는 ‘보물’ 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며, 핵무기와 경제를 병진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던 김정은 정권이 최근 경제의 축을 담당하던 장성택을 숙청한 것도 핵무기가 경제보다도 우선순위임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둘째 교훈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조금씩 변화하여 가고 있다는 교훈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대가 변해 가도 북한을 동북아 안정의 ‘완충(Buffer)’ 으로 여겨 온 것은 동북아 국제외교상 주지의 현실이다. 어쩌면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전략적 근간에는 북한의 완충유지가 아직도 유효한 전략으로 남아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그러한 전략근간에 약간의 ‘흔들림(Tilts)’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제 외교계에 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래 중국 공산당 전략연구소나 북경 대학교 정책연구소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는 한국전쟁시 맺었던 북중 방위조약이나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북한 보호 정책에 얼마의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체제와 북한핵의 공동 우선순위, 중국의 대북한 전략의 흔들림 등 지난 20년 동안 실패한 미국의 북한정책이 얻은 2가지 교훈은 최근 미국의 북한정책에 적지 아니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오고 있다. 2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정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라는 국제외교 정책상 목표의 범주를 넘어 미국 국방의 뚜렷한 전략목표로 분명하게 부각하는 변화다.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6자회담이나 단독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동시에 추진해 왔던 강압정책을 한 단계 높게 강화하겠다는 정책결단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압정책은 (1)경제제재 (2)인권문제 (3) 문화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독자로 취해 왔던 경제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 체제를 통한 금융압박이라든지 공수 및 해상화물의 봉쇄 등 정책을 통해 강화하는 정책추구다. 유엔총회의 결의나 미 의회의 결의정도로 다루워 왔던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강력정책이다. 외부세계를 북한인민들에게 알리게 하는 인터넷과 한류 네트워크를 뛰어 넘어 학술교류와 학술포럼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알리는 방안을 확대하는 적극정책이다.

둘째 변화는 동북 아시아의 국제정치에 있어서 무시 못할 위치에 있는 중국과 북한관련 외교전략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변화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부여해 주고 대화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외교전략 정책을 추구해 왔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은 분명히 중국과 외교정략 정책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해 모든 필요 수단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도 고려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다는 결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정권체제 붕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준비도 비공식적인 외교대화의 방식으로라도 고려 중임음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 국방과 직결시키는 내용과 북한체제의 붕괴까지도 채택하는 중국과의 북한관련 외교정책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주제로 하는 미국의 북한전략 정책변화의 바람이 워싱턴 정가에 불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변화하는 미국의 북한정책은 ‘대박’ 통일을 성취하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극화와 중용(中庸)

문성길(의대 63) DC
워싱턴 동창회 전 회장

요즘 들어 부쩍 양극화란 말을 자주 듣는 것 같다. 전에는 이념의 양극화가 극성을 부리고 지금은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많은 생각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념이건, 부이건 양극화란 둘 다 모두 바람직스런 현상이 아닐 뿐더러 더욱 심화될 때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종국에는 사회 계층간의 분열로 한 나라가 결단날 수도 있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사회는 불가능할까?

이념의 양극화 비극의 한 예로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의 고통을 처절한 동족상잔 후 60여년을 겪고 있지 않는가! 혹자는 이념은 무슨 이념, 종전(2차 세계대전)후 강대국들의 국익을 위한 각축장의 무대였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어느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부의 양극화 심화는 그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하며 그 비극의 대표적 예는 아마도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을까?

온갖 사치는 다 하고 사는 지배계층이 있었는가 하면 헐벗고 굶주림에 죽지 못해 살던 피지배 계층이 있어 사회구조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때 그 유명한 장 자크 루소 같은 사회사상가의 이론은 화약고에 불을 지르듯 하여 훗날(1789)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는 1751년 ‘Observation’ 이라는 잡지 기고문에서 악의 근원은 불평등, 불공정으로 결국 부의 한 곳으로 축적 내지 쏠리는 곳은 평등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심한 양극화로 인해 위험지경에 도달한 아슬아슬한 불안정한 공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며 심하게 말하면 내 조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 일면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부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10 ~ 20년 전보다 빈부 차가 더 심해졌다.

여기서 옛 성현들의 지혜를 되살펴 보고 싶다. 중국의 고대 철학서 중 하나인 중용(中庸)은 결코 고답적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만하면 실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선 중용의 진정한 뜻은 기계적, 산술적으로 중간이라는 게 아니라 과(過)하거나 지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급(不及) 부족하거나 미치지도 않는 상태지만, 대개 어떤 것이라도 양단이 있게 마련이다.

대(大)가 있으면 소(小)가 있고, 과(過) 넘치는 것이 있으면, 불급(不及)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중(中)이란 다시 말하건데, 기계적인 중(中)이 아니라 소위 ‘한 개의 적당한 곳’, 즉 ‘올바른 것’ 을 가리킨다.

고로 우리들은 무슨 의견의 차이, 이념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반대 의견, 이념을 매도하는 습관을 순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점 중 좋은 점을 취해 공동선(共同善) 즉 정의를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경제관념도 이념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는 기업 회사 사장들의 봉급을 중간치의 10배가 넘지 못하게 하자는 국민 발의가 있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더욱 심한 것 같다.

자본주의의 단점이 여기에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선 분배보다 성장을, 그러나 미국은 물론 한국도 성장도 게을리 해서 안되겠지만 분배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기에 재벌 규제라든가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과세율을 좀 더 증가시켜야 할 당위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마지막 저서 ‘법률’ 에서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보다 더 무서운 내분,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러기 위해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진 나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4배가 넘지 않는 사회,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지성을 지닌 나라,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나라가 이상적 국가상(理想的 國家像)” 이라고 2천년 전에 설파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원리는 만고불변임을 생각케 해준다.***

Photo of the Day-세상을 보는 창<황톳길에서>

‘중력’ 이란 이름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위태하게 두 발로 선 사람과
안정되게 네 발로 버틴 개가
길을 함께 한다.

누가 누굴 의지하는 걸까?
적어도 세 지점 착지로 넘어질 리 없는 개에게서
두 발로 위태위태한 사람은 세 번째 지지점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누가 누굴 따라가는 걸까?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걸까,
사람이 개를 몰고 가는 걸까?
아니면 옴짝달싹 못할 운명처럼
곁길 하나 없는 그 길 따라
그냥 걷는 걸까?
이 둘을 잇고 있는 저 끈은
또 뭘까?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까 봐
사람이 개에게 묶은 개 줄일까,
일직선에서도 길을 잃고
뻔한 이정표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를 위해
개가 사람에게 늘어뜨려준
우주 탯줄일까?

지구는 자신을 떠난 흙먼지도
구름도 우주 왕복선도
줄 같은 걸로 묶어두지 않는다.
성층권으로 초고속 비상 후
탈출 궤도 진입?
'그래봐야 결국
‘비’ (빗물, 유성우) 로 회수,
‘티끌’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개와 사람은 서로에게 매력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모양이다.
'중력'이란 이름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

<글 = 이충섭(공대 82)> CA
<사진=오달 김지영(사대 69)> CA

고국 동문 생명공학 칼럼

"종자와 바이오 의약 잇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주목하자"

김병동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

지난 2009년 9월 뉴욕 맨해탄 근교 소재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열린 'DNA 복제와 크로마틴 연구'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그 연구소의 전임 소장이며 왓슨 생물학 대학의 이사장인 제임스 왓슨 박사(당시 81세)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나는 나의 신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중나선의 비밀, Foldback Intercoil DNA'를 전해 주고 그의 책을 한 권 받은 일이 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매우 의미 있는 애기를 해 주었다. 그는 "1980 ~ 90년대 이래로 미국은 왓슨의 주도로 '암과 전쟁' 이라는 기치 아래 막대한 국가 연구사업을 추진해왔다. 암 유발 유전자도 밝혀졌고 분자생물학과 의약학은 많은 발전을 했으나 암 환자 발병률과 완치율은 호전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암과 전쟁에서 목표설정이 애초에 잘못 되었음을 인정한다" 고 말했다.

"암 유발 유전자를 분리하여 치료에 쓰기보다는 예방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라고 면서 "한국에서 하는 연구가 올바른 방향" 이라는 것이었다. 필자의 고추 분자 유전학 연구실에서 캡사이신 합성유전자(CS)를 분리한 일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고추 매운 맛의 원인 물질 정도로만 알려졌던 캡사이신은 사실은 진통, 신경안정, 항비만, 항암 등 생리효능이 좋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민족에 비만과 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텔레비전에 수시로 나와 채소와 고추장 애용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비만과 전쟁' 을 독려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캡사이신합성유전자(CS) 분리가 왜 관심을 끄는가? 몇 가지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제까지 다수확, 내병성에 초점을 두어 온 육종에 품질과 건강 관련 육종의 길을 열은 것이다. 둘째, 채소 뿐 아니라 약용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항암, 항당뇨 등 각종 약리활성 물질의 유전자를 분리하여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셋째, 천연물질과 그 유도물질의 합성 유전자를 분리해냄으로써 유전공학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및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

필자가 정년 후 이 분야 연구가 주춤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이미 이 분야 연구비를 대폭 증강했고 대규모 학회가 수시로 열리고 논문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합성화합물 기반 신약이 막대한 개발경비와 안전성 규제의 벽에 부딪치는 오늘날 천연물 신약이 유전공학과 맞물려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열고 있다. 우리 나라도 더 늦기 전에 관련 분야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건강식품에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천연물들이 있다. 그러나 함량은 품종과 재배법에 따라 수천 수만 배 차이가 난다. 우수한 종자와 농산물은 육종학·재배학·식물세포조직 배양학·분자유전학·육종학·생리학·생화학·분석화학·분자생물학·생물정보학 등 고도의 첨단과학기술이 종합돼 나오는 산물이다.

생약학·약리학·임상의학에서 신약물질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식물이 만들어내는 천연 화합물, 특히 고분자 화합물은 화학합성과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약초는 더디 자라고 대량 재배와 육종은 체계가 서 있지 않다. 국가마다 원산지 보호법으로 자국 생물자원 유출을 강력히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진국들은 온갖 지혜를 동원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전체 연구사업이 국제협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생약과 건강식품을 위한 식물의 유전체·대사체·단백질체 종합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이제라도 심기일전해서 세분화된 전공의 벽을 허물어 융합학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식품과 신약 개발이 신품종 육성, 재배법 개선, 생명공학과 연결되게 해야 한다.

선진국형 신성장동력을 위하여 응용과 기초가 함께 하는 이 연구에서 뜻하지 않은 학문적 발견과 기술의 도약도 기대할 수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생활의 단상

향기

이명숙(음대 52) MD
조지워싱턴대 전 교수

고향을 떠나면 그리운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낯익은 얼굴들, 익숙한 풍경, 다정한 목소리들, 가족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늘 먹던 어머니 솜씨의 맛들이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를테면 시각·청각·촉각·미각에 새겨진 추억들이겠다. 그런데 오감 중의 하나인 후각을 빼놓고는 추억을 더듬는다는 것은 향기 잃은 쑥을 씹는 것과 같은 일이다.

몸이 움직일 때 먼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코이기 때문에서인지 우리의 경험을 정확히 기억해주는 것이 냄새다. 또 냄새는 신기하게 우리를 먼 거리로,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더듬게 한다.

냄새는 추억과 함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뿌리내려 꽃을 피운다. 시력을 잃은 맹인들에게 촉각이나 청각과 함께 지침 역할을 하며, 헬렌 켈러 여사도 폭풍우나 눈이 내릴 예보를 냄새로 알아냈다고 기록했다.

동물은 냄새로 영역을 확보하며 그 사회계급을 유지하고 먹이를 찾는 일에서부터 짝을 찾는일, 제 새끼를 가려내는 일까지도 냄새에 의존해서 생존한다. 또 어떤 동물은 지진이 올 것을 땅에서 스며나오는 이온 냄새로 알고 공포와 불안에서 뛰어다닌다고 한다.

후각은 연쇄작용으로 다른 감각과 합성되어 제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사람의 본능적 감각이 국경을 초월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가 지켜온 전통 속의 문화적 소산인 음식이나 그 냄새에는 공통된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오래 전 유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일 중 하나가 학교식당의 음식 냄새였다. 우리는 낯선 음식을 대할 때 맛을 보기 전에 조심스럽게 냄새부터 맡아본다. 냄새는 식욕을 돕기도 하고 잃게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워싱턴 DC 근교에 자리잡았던 한국식당이 이웃 주민들의 불평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일을 기억한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을 일삼는 미국 사람들이지만 사시 풍기는 한식 냄새에는 못견디었던 모양이다.

서양인들은 냄새에 강박관념을 가진 사회인이다. 온 몸의 부분별로 방취제를 사용해서 체취제거에 큰 비용을 쓴다. 요즘 잡지나 카드에도 상품광고로 향수 쪽지를 끼워 넣어 향수공세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실내 방취제로는 계절별로 여름의 바닷바람 냄새에서부터 겨울철 음료수 냄새, 비온 후 들꽃 향기까지 손님에게 추억과 환상의 향기를 팔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선인들은 자연의 모방인 향수 대신 아침이면 창을 활짝 열어 자연의 대기를 방취제로 써 왔다. 그리고 동양란의 향기를, 겨울이면 유자나 모과나 귤피로 은은한 자연의 향기를 즐겼다.

기원 전부터 아름다움이나 향기로 사랑을 받는 꽃이 장미다. 클레오파트라나 로마제국의 네로황제는 장미의 향기에서 향락을 누렸고 회교에서는 장미를 영혼의 상징으로 믿으며, 천주교회의 묵주(rosary)는 원래 장미 꽃잎을 말아 만들었다. 이렇게 장미는 관능의 도취에서 영혼의 승화까지 지배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유황과 모략의 향기로 예수의 탄생을 찬양한 것을 안다 우리 땅에 피는 꽃에는 어떤 향기가 있나 생각해 본다. 시를 읊게 하는 진달래와 눈부시게 찾아오는 봄의 개나리, 그리고 무궁화에는 거의 향기가 없다. 시각의 향연만으로 꽃을 사랑했을까?

'보지 말아야 할 것엔 눈을 감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에는 귀를 막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입을 다물으라' 고 한 삶의 교훈을 기억한다.

그러나 맡기 싫은 냄새를 피하려고 코를 막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만다. 향기있는 삶과 추억을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생활의 단상

오늘은 무엇을 배웠을까?

박평일(농대 69) VA
미주 동창회 감사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매일 새벽은 나에게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마음 속에 쌓여 있을 때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한 두 시간 씩 핫 탑에 몸을 담그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명상이 생활화 되면 스트레스도 줄고 직감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실 생활에서 가장 실천하기 손쉬운 방법은 분노나 두려움이 마음 속에 일어날 때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세 번 이상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기도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강구하는 기도는 마음 속에서 욕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장례식 참석 차 L.A에 들렀습니다. 장례식 후 지인 몇 분과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식당을, 다른 한 분은 꽃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화제는 주로 사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상이 두 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자" 가 두 분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저 분들은 언젠가 돈은 벌지 모르지만 행복은 즐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구는 채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미국인들을 상대로 음식점을 경영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불경기로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상이 뚝 떨어졌을 때입니다.

부부는 그 해결책으로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고 주말이면 영력이 높다는 기도원을 찾아 다니며 금식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기도도 좋지만 사업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잘 되는 사업체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해보라" 고 권했습니다.

부인이 펄쩍 펄쩍 뛰었습니다. 그 부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매달리겠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남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도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시지요."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 달 못가서 그 사업체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부부는 부부관계도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로 나쁜 편이었습니다. 부부가 나에게 경쟁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관계가 좋은 듯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뒤에서는 딴 짓거리를 벌이는 위선자들보다는 훨씬 정직한 사람이지요. 온갖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는 부부관계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치료를 받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장남 제임스가 어렸을 때 중국 볶음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식도락가인 제임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식당을 여기 저기 두루 찾아 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한 중국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그 식당 벽에는 '和福儉副' 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복검부' 즉 '복은 평화로울 때 찾아오고, 부는 검소함에서 온다' 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 교육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내 가정에 혹시 평화가 깨지지 않았을까, 하고 점검해 보곤합니다.

그 친구 부부에게도 그 말을 권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부부가 서로 딴 마음을 품으면 그 배는 파산되어 온 가족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소?

한 친구 부부로부터 배운 귀한 지혜입니다.***

사회학 칼럼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오세경(약대 61)NE

나이가 60을 넘어 70에 가까워지면 흔히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신한 가치 생활은 이 때부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은퇴 후가 황금시대 = 미국정부가 동양인들을 입국시키기 시작한 것이 50년도 이후 였으니까 우리 동문들이 50년대에 도미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80세의 노인이 됐을 것이며, 70년도에 왔다 해도 지금쯤은 60세의 젊은 할머니들이 됐을 것이다.

인간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 인생의 최상을 지내버린, 지난 20세기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받고 최후의 순간이 올 때를 기다리는 사형수는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2차 대전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여러 차례 혁명을 지내고도 이렇게 당당히 살아 있지 않은가.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의 하나인 미국에서.

50년간 교수생활 후 75세에 은퇴한 남편은 은퇴 후 생활이 자기 인생의 가장 즐거운 황금시대라고 한다. 하버드 치과대학에서 유일한 석좌교수였던 그는 50년간 350편의 논문에 7권의 책을 펴 냈으며, 이 중 몇 권은 오늘날도 치과대학의 교재로 쓰인다.

이런 바쁜 생활 중에도 매주 하루는 집에서 쉬면서 부전공이었던 플룻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그리고 은퇴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도,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자금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란다.

그의 대학 동창이며 하버드 의대교수로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휴블 박사는 85세의 고령에도 하버드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남편의 동료였던 치과의사 한 분은 95세에도 마지막 환자를 치료한지 2주일만에 돌아가셨다.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토튼버그는 100세에도 바이올린 연주에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에 누워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노년에 업적을 남긴 위인들 = 역사적으로 볼 때 노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러시모어산에 4명의 대통령을 조각한 뿔그럼은 60대 중반에 시작하여 70대에 끝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0세 중반까지만 해도 따분하고 싫증나는 직업군인이었으나 2차대전이 일어나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 것이고 후일 대통령이 됐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자넷 렝킨 여사는 90세의 고령에도 평화군을 인솔해 체코슬로바키아에 봉사하러 갔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85세에 아직도 세계평화와 인류사회 행복한 후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도 없는 무직자였던 샌덜스 대령도 60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큰을 개발, 당대 벼락부자가 되었으며, 최근 5천만 달러의 복권을 당첨받아 억만 장자가 된 할머니도 84세의 노인이었다.

중세기 대 조각가 미켈란제로도 89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상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보다 조금전 태어난 루이지 코로나도 104세까지 장수하면서 86세에도 책을 썼고 그가 설계한 저택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파두아에 남아 있다고 한다. 독일의 시인이자 미술 평론가였던 괴테도 85세까지 60여년의 세월을 두고 명작 파우스트를 써서 후세에 남겼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예를 볼 때 노년기는 결코 죽을 날을 두려워 하며 슬프게 지낼 것이 아니다. 적어도 10년 내지 30년의 세월이 남아 있고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 "노년기는 결코 죽을 날을 두려워 하며 슬프게 지낼 때가 아니다. 적어도 10년 내지 30년의 세월이 남아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노년 여성의 생활 = 출산이나 생리통의 고생에서 풀려난 우리 여성들은 아직 배우자나 자녀, 후손들을 돌봐줄 사랑의 의무가 있다. 물론 젊은 시절에 비해 기억력이나 독창력, 체력조차 상당히 감소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력은 연마하기에 따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은퇴 후 10년 동안 요가와 필라테, 자전거 운동을 한 나는 지금도 40대와 별 차이없는 건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기억력은 많이 쇠퇴해 한 장의 악보도 외워 칠 수가 없다. 그러나 악보를 보고 연주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음악공부의 신, 구약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32개 소나타, 바하의 건반음악 1~2권(well-tempered clavier, vol.1 & 2)을 직접 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쇼팡이 졸주상드와 산타 마요카섬에서 연애할 때 썼다는 빗방울 전주곡, 슈베르트가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즉흥 환상곡,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자아내는 브람스의 인터메지 등을 직접 연주할 수 있다. 13살 때 3개월 밖에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없어 평생 늘 꿈꾸어 보던 피아노 공부를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은퇴한 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유감인 것은 90이 다 돼가는 남편이 이제는 더이상 나와 함께 2중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친구 휴블 박사는 84세에도 아직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으니 나도 앞으로 10년은 더 음악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내가 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영양학과 생화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나는 기회가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고 싶었다. 그러나 50이 넘도록 독신으로 교수와 연구생활을 하던 나는 특별한 음식을 해먹을 시간도, 또 필요도 없었다. 그래도 연중 한 두번은 후배들이나 동료들을 위해 만찬을 만들어주곤 했다. 20년이 지난 오늘, 이 후배들은 귀국해 정교수가 됐고 이들로부터 나에 대해 말만 들었던 모교 학장은 로스앤절스에서 밤비행기를 타고 와 내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갔다.

물론 그가 방문한 연유는 내가 후배들에게 음식을 해주었다는 것 뿐이 아니고, 지난 2005년 모교에 신설한 장학금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명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주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연유가 무엇이든 밤잠을 못자는 그 바쁜 시간에도 멀리 미국땅에 사는 나를 찾아준데 대해 송구함을 금할 수 없었다.

러시아계 캐나다 사람과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나도 이제는 서양요리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100권이 넘는 요리책을 보며 매일 색다른 요리 실험을 해보는 것은 실험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요리가 잘 되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직접 먹을 수 있으니까.

▶요리도 봉사의 기회 =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기회는 비단 내 가정 뿐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에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자원봉사단이 있다. 60세부터 93세에 이르는 여자 봉사단은 남북전쟁 당시에는 병사들의 양말까지 짜주었다고 한다. 나는 이 할머니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다. 매주 한 번씩, 약 3년간 100여 가지의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이를 알게 된 목사님은 내가 의대 교수로, 특히 심근경색의 진단시약을 개발한 과학자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생각했는지 교회 200년 역사책에 나의 소행을 기록해 주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받은 보답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늙고 병든 여선교사를 위해 음식을 제공했더니 1년 후 그가 고생하던 말기 대장암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는 현재 90이 넘었는데도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홀로 사는 이웃 목사님에게 우리 음식을 주었더니 그는 자기 아내가 남겨놓은 재봉틀을 탁자까지 손수 들어다 내게 주었다. 이로써 나는 더 많은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의 제자 치과의사로 특히 동양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이를 위해 때때로 군만두를 만들어 주곤 했다. 이 의사는 약 3천 달러가 드는 나의 치근 수술을 무료로 해주었다. 돌아 보니, 이 비용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약 70개의 퀼트를 만들어 남에게 나눠준 재료값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물론 이것은 내가 만두를 만들어준 것 뿐 아니라 남편을 통해 학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호의가 도움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

요즘 나는 김치를 만들어 동양인은 물론, 미국인에게까지 나누어준다. 한 번 만들어 5~6인에게 나누어주면 내가 먹을 것조차 없어서 곧 다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런 것은 즐거운 노동으로 내가 만든 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즐거움으로 충분하다. 미셸 오바마를 통해 널리 선전된 한국의 김치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될 것이다.

▶봉사의 부수적 결과 = 내가 이 자원봉사단에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나는 이들의 일 중 퀼트 만드는 것을 배웠다. 치매가 시작된 남편 때문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나는 집에서 퀼트를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중에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영국인 교수의 딸들과 13세에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외롭게 지내다 후일 의사가 돼 노벨상 수상자의 며느리가 된 친구의 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00주년 창립기념 퀼트도 내가 담당하던 영어회화반의 13명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이 퀼트는 매년 여름 우리 교회를 찾는 약 4만 명의 방문객에게 전시되고 있다. 이 일을 하는데 풍자적인 것은 이 퀼트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 동양인이었고, 2천명이나 되는 교인들은 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이 일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학교 시절 받은 동양인의 교육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물론 이렇게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꼭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혹은 배은망덕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나의 친구 교수는 자기의 월급을 끊어 새로 온 교수의 월급에 보태주면서 그를 고용했더니, 후일 이 사람이 주동이 돼 나의 친구교수를 몰아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당한 그는 사무실에 'No act of kindness goes unpunished' 라는 문구를 써 놓고 그가 당한 씁쓸한 경험을 말하기도 하였다. 서경에도 열명의 맹인을 고쳐 주었더니 오직 한 사람만이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과연 우리의 선행이 해야만 될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한 선행은 보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선행은 장사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생명은 귀중한 것 = 늙어가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세계적 석학인 나의 남편이 늙어가는 것을 보는 나는 참으로 아까운 인재를 놓친다는 생각에 애석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설령 나의 피를 그에게 나누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생명줄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두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내가 본 영화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Bird' s Man of Alcatraz' 라는 영화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살인죄수로 하루 23시간 감금생활을 해야 했다. 하루에 꼭 한 시간만 밖에 나와 하늘을 볼 수 있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상해 제대로 날지 못하면서도 살려고 퍼득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이 새를 불쌍히 여겨 자기 방에 데려와 치료해 주면서 나중에는 새를 치료하고 기르는 데 권위자가 된다. 종신형을 살고 있는 그가 후일 이 감옥이 폐지돼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게 될 때, 어느 기자가 "당신의 희망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 그는 "생명은 귀중한 것이므로 내 맘대로 저버릴 수 없는 것" 이라고 대답한다. 참말 그렇다. 우리 생명은 한 번 잃으면 그 뿐, 누구와 바꿀 수도 줄 수도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인생의 의무, 그리고 즐거움 =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여가의 틈을 타 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손으로 하는 노동 뿐이 아니다. 여고 시절 독서를 즐겼던 나는 1년에 약 300권의 소설을 읽은 일이 있었다. 나는 현재 약 8천권의 장서에 3천여장의 LP와 CD 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다 읽고 들으려면 아직도 약 30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무한히 많다. 앞으로도 계속 퀼트를 만들어 누군가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즐거운 식탁을 마련해 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얻은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남에게 알려 주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울려 자신을 즐겁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내 작은 몸이 한 줌의 재로 변할 때까지.

19세기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나로 인해 주변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후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기쁨이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내일 온 세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설령 우리에게 죽음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은 전기가 나간 컴퓨터와는 다르다. 아무리 마지막 순간이 짧다 해도, 몇 십분에서 몇 시간, 길게는 2~3년에서 20~3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양초가 다 닳아가는 촛불이나 기름이 다 없어져가는 등잔불과도 같다.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고국동문 기고>

마지막 편지

방재욱(사대 75졸)
충남대 명예교수

정년퇴임을 하며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간직해온 편지들 중에서 대학 은사이며 대학원 지도교수님이 보내주신 1999년 12월 2일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당시 1년간 안식년(安息年)으로 미국 Texas A&M 대학교에서 지낼 때 내가 보내드린 편지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읽는 편지 내용에서 선생님의 학문과 삶에 대한 열정과 제자를 아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그때보다 훨씬 더 진하게 다가와 가슴이 찡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내게 간직되어 있는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 입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은 이 편지를 보내시고 2개월이 지난 2000년 2월에 타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부음을 받고 선생님의 영전에 직접 인사를 올리지 못해 지금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중반에 뇌종양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선생님이 75세의 연세에 보내주신 편지는 분량이 6쪽이나 됩니다.

선생님은 평소대로 편지에 한자를 많이 섞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 소개에서 일반 한자는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였고, 주요 한자는 ( )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공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설명을 가필했습니다.

편지의 1쪽은 나의 안식년 미국 방문연구 축하와 안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에는 평소 음악 감상을 즐겨하시던 삶의 모습과 일본에서 지내시던 어린 시절 추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연구해 오신 식물염색체(특히 호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사람의 유전체 분석이나 유전자 조작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이 담겨 있어 75세라는 연세가 느껴지지 않는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잘 소일하고 있습니다. NHK 위성 TV에서 아침 8 ~ 9시에 일본 국내외 연주가(演奏家)들의 다양한 장르의 생음악을 접할 수 있어 음악 감상 60년의 경력을 가진 나로서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Classic의 시간이 3시간이나 됩니다.

NHK에서는 원예(園藝)의 프로도 많아 사대(師大) 온실을 30년 동안 직접 경영한 나는 계속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생물학과가 수십 개 되지만 제대로 된 온실을 가진 과는 서울사대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NHK에는 식물, 생물생태(生物生態)에 관한 내용도 많아 이해가 잘 갑니다.

얼마 전 사람의 염색체(染色體) 가운데 22번의 모든 DNA가 분석되어 human genome(참고; 사람 유전체,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지칭함) 연구에 대성과를 올렸습니다. 22번 염색체는 21번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여 1957년에 Down증(참고; 21번 염색체를 3개 지녀 나타나는 다운증후군)이 trisomic(참고; 삼염색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번인지 22번인지 구별을 못하였고, banding 기술도입(1967년경) 후에 21번임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호밀도 전 염색체의 DNA 분석이 완성되면 B염색체의 기원과 다른 맥류(麥類 참고; 보리·밀·호밀·귀리 등 보리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호밀의 야생종(野生種)과 친화 관계, 그리고 소맥속(小麥屬)과의 친화성과의 관계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missing link(참고; 알 수 없는 연관)는 존재할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遺傳子操作)은 성공적이었으나 주로 농약에 대한 내성(耐性)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산 콩·옥수수를 전면 수입 금지하고 일본에서도 된장·간장·양조회사에서는 미국산 콩을 사용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부의 80%가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된 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콩나물·식용유·된장·간장도 문제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두부를 좋아했는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두부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일본의 동경(東京)에서 자랄 때, 길 건너의 두부공장에 동갑 친구가 있어 4살 때부터 8살 때까지 공장이 놀이터가 되어 두부와 그 가공 식품의 제조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편지는 미국 줄리아드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던 따님의 소식과 함께 같은 연구실 출신인 안 교수, 나 교수, 권 박사와 우 교수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내용 중략). 그리고 20세기 마지막 달의 편지답게 '좋은 21세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집 사람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나는 작년 6월에 넘어졌을 때 오른손을 다쳐 글씨를 빨리 못 써서 이 편지를 쓰는 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난필다사(亂筆多謝).
좋은 21세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직.

나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올곧고 원칙론이 강하신 선생님의 따뜻하며 엄격한 지도를 받으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연구실의 1호 박사이기도 한 나는 선생님이 일생 동안 연구해 온 호밀을 대상으로 '한국 호밀의 세포유전학적 연구' 란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뜻을 이어 교수 임용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눈을 팔지 않고 식물 염색체 연구의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편지의 말미에 6개월 전에 넘어지시어 오른손을 다쳐 이 편지를 쓰시는 데 3일이 걸렸다는 대목과 '난필다사(亂筆多謝)' 라는 말에서 교수님의 애잔한 제자 사랑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 의 구절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그간 내가 제자들과 함께 지내온 시간들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75세가 넘도록 학문과 삶에 대한 열정과 제자를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려 다짐해봅니다.***

방재욱 명예교수

방재욱 교수는 2011년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미국의 인명사전인 '마리퀴즈 후즈후(Marquis Who' s Who)에 2010년에 이어 2011년, 그리고 2012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었다.

또한 저명한 인명사전인 미국의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 '21세기 위대한 지성인 1000명' 에 선정되었으며, 영국에서 발간하는 세계 인명사전인 IBC(International American Biographical Center)에도 선정되면서 학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방재욱 교수는 식물세포유전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식물염색체 연구의 전문가다. 1975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식물염색체 연구의 권위자였던 고 이웅직 교수의 지도로 식물세포유전학 분야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36년 동안 식물염색체 연구의 외길 인생을 걸어 왔다.

방 교수가 지금까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120편이 넘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수는 200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전공분야 서적인 '세포유전학' 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으며, 그 외 '식물발생학', '인간과 생명과학' 등 20여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동문 시 감상

빛과 물

김순길(문리대 61)CA

빛은
뜨거움에서
물은
차가움에서 왔다

빛은 멈출 줄 몰라
죽음마저 따돌린 채
영겁 속으로 달리고

물은 둘러 갈 줄 밖에 몰라
모든 것을 감싸 적신다

빛은 휠 줄 몰라
바다에 고인다
빛은 먼 길이 지루해
100억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일처럼 속여 보여주는
요술을 부리고

물은 내리다 내리다 지쳐
신기루가 되었다

연못 속에 거꾸로 잠겨
꿈처럼 일렁이는
또다른 우주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온갖 생명들
빛과 물은 거기서 합쳤다 ***

이태백·삼팔선·사오정이라지만

강신용(사대 73) CA
CPA 수필가

새크라멘토에 다녀왔다.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창공은 더없이 밝고 높았다.

항상 북적대는 LA 공항을 보다가 시골(?)의 비행장은 역시 시골다웠다.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물건 파는 매장수도 적고 적당히 친절한 공항 직원들은 급할 게 없어 보였다.

한 시간만에 바뀐 '허둥지둥 빨리빨리 문화' 에서 'Slow Life, 여유로운 삶' 의 모습에 당황한다. 그래도 북가주의 상큼한 가을 생기가 풍선처럼 가슴을 채운다.

아직도 미국의 경제는 회색빛이다. 매일 낙엽처럼 흩어지는 보도는 아침부터 어둠이 차오르는 밤까지 암울한 회색이 배회한다. 회색의 뒷편에는 경기가 나쁘고, 회사는 어렵고 직원은 해고되는 생존의 절박함이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소망한 희망을 찾으며 지난 여러 해를 보냈다. 세계의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제 배경 색감이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다.

한국의 신조어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소위 IMF 사태가 한국에 났을 때 '38선·45정·56도' 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20대 중후반에 겨우 시작한 직장생활 10여년이 지나면 벌써 이직을 생각하는 나이가 38선이라고 한다.

자녀들이 한창 학교 다닐 학부형인 나이에 명퇴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45정이다.

56세가 되도록 월급쟁이로 있다면 아랫사람이 볼 때 도둑질이라도 한 냥 눈치를 본다는 56도다. 치열한 삶의 모습이 휴전선으로, 만화 같은 손오공으로 때로는 외로운 섬으로 그려진다.

이제는 지구가 '이태백' 으로 가득하다. 이태백이란 '20대의 태반이 백수' 라는 신조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지금은 미국에도 이태백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

처음 이태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에는 글 쓰고 시 쓰는 지망생이 엄청 많다고 오해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은 젊은이, 직장을 그만둔 20대가 그렇게 많다는 표현이다. 주변에도 캥거루 가족이 많다. 부모에 의지해 사는 20대 자녀들이 그들이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고용시장에는 한 겨울의 눈보라가 지나가고 겨우 해빙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별은 달기도 힘든데 따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 별이 아니 되면 달이라도 찾아보는 시절이다. 자신의 잣대로 자존심을 지탱할 것이 아니라 앞 뒤, 좌우로 재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틈틈이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고 심미안을 닦고 조여 알차게 준비하는 것이 별나라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영화 '워낭소리' 의 황소와 농부 최씨가 뉴스에 나왔다. 늙고 충직한 소는 할아버지 최씨의 친구이고 가족이었다. 해 뜨면 일어나 날이 저물 때까지 먹고 일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영화였다. 삶의 철학도 삶의 목표도 없어 보이는 농부의 주름진 얼굴에 신은 그의 뜻을 새겼다. 사시사철 하늘의 일기에 따르는 황소의 거역하지 않는 삶에서 자연의 섭리를 신은 가르쳤다. 누렁이 황소를 보는 노인의 눈길은 신의 사랑처럼 순수하다. 워낭소리는 오감으로 느끼는 하늘의 소리다.

하루의 3분의 1 이상은 일터에서 보낸다. 아름다운 일터는 내가 가꾸고 만들기에 달렸다. 열정이 넘치는 자세가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적당히 균형 잡힌 모습은 더 아름답다. 변명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다. 공연히 아닌 데도 없는 데도 척하지 않는 순수한 일꾼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낙엽은 새해를 준비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 더욱 강해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겨울을 이겨야 한다. 당당하게 살아 십수년을 지켜야 한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둘러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별을 품고 싶다.***

미주 동문단체 및 동문동정(일부 중앙 · 한국일보 인용)

미주 동창회보 차민영(의대 76)논설위원

남가주 한인 의사회 회장 취임

'HMO 혼란…홍보 이벤트 준비' …, 회원들 세대교체 빨라져 진료환경 편하게 했으면….

"10년 동안 부회장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회장이 됐습니다."

창립 30년이 되는 남가주 한인 의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본보 논설위원인 차민영(의대 76·사진) 내과 전문의가 선출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이헌영 전임회장(신장내과 전문의)으로부터 이어 받은 차민영 신임 회장은 이미 지난 7일 첫 이사회를 열어 올 한 해 플랜과 1년 동안 호흡을 맞출 4명의 부회장을 뽑았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아시다시피 남가주 한인 의사회는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한인타운이 형성될 초창기에 몇몇 한인 의사들이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서로 격려하고 필요한 정보 교환을 하면서 형성된 친목모임으로 출발했다" 며 "현재 등록회원만도 800명이 넘어섰다" 고 말했다.

남가주 한인 의사회는 70%가 LA 지역, 20%가 오렌지 카운티이고 그 외곽으로 멀리 샌디에이고,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등까지 두루 퍼져 있다.

"예전에는 저처럼 의대를 한국에서 나온 1세대가 과반수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1.5 ~ 2세로 넘어갔다" 며 "나 자신이 마지막 '1세대 회장' 일지 모른다. 바람직한 변화다"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부회장단에 미국 의대 출신(KAGMA) 의사 한 명을 포함시켰다. 1.5세 박진하 방사선 전문의를 비롯, 한경모 내과, 배호섭 위장내과, 이광석 비뇨기과 전문의다.

우선 메디-메디 가입자들이 HMO로 바꾸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4월에 OC, 7월에는 LA한인타운에서 환자를 위한 홍보 이벤트 및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이기도 한 차 신임회장은 "사실상 지난 해부터 홍보와 계몽을 했지만 의사들 조차 혼란이 올 정도로 복잡하다. 일반 환자의 혼란스러움에 동감한다" 고 말했다.

여기에 오바마 플랜 시행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이야 말로 정부에서 어떤 시행을 할 지 카드를 열어 보아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사들도 염려와 혼란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이 의사들의 진료 환경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부탁은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의사에게 화내지 말아달라. 미 의사들도 예약하면 평균 30분 이상 기다리고 예약이 없을 때는 2~3 시간 기본,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한인 의사들 한테는 예약없이 왔는데도 30분도 못기다리며 화를 내는지, 한인 의사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고 몹시 스트레스" 라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미 의사들은 환자 차트 작성 시간도 진료비에 포함시켜 한인 의사들보다 진료비를 높게 책정한다. 그러나 한인의사들은 진료비가 미 의사보다 낮고 저녁에 차트를 집에 갖고 가서 2시간 정도 초과업무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한인의사들의 마음과 열정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매일 빡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스스로의 건강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 우리 한인의사들의 현실이다.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오픈하는 것도 돈벌기로 연관시킬 때는 엄청 마음의 상처가 돼더라" 고 말했다. ***

91세 김동휘(공대 46) 동문

미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버지니아 맥클린에 거주하는 김동휘(공대 46·사진) 동문이 91세로 지난 해 12월 17일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시험인 'SupplyChain Management' 에 당당히 합격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시험은 인터넷 테크놀러지,경영 수행 및 전략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지난 해 1월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대수술을 받은 김 동문은 병원 치료차 지난 해 2월 워싱턴에 있는 둘째딸 집에 머무르고 있던 중 원기를 회복하자 이번 시험에 과감히 도전한 것.

제 2회 기술고시 출신으로 1974년 국토건설부 항만국장으로 은퇴한 김 동문은 "한국의 항만 기술자들이 미국 전자 상거래에 대해 안다면 큰 도움이될 것 같아 이 시험에 도전했다" 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 동문은 "지난 해에는 대한민국 과학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인 한국 전자 상거래 관리사 시험에 19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합격했는데 이번에 미국 시험은 3개월간 공부해 단번에 합격해 기분이 너무 좋다" 고 말했다.

김 동문은 "한국 전자 상거래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전자상 거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있어 이번 시험은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국경이 없는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이 밝다" 고 말했다.

김 동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6년 12월 주 월남 한국대사관에 기술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으며 6.25 한국전쟁 때는 미군 군속으로 미공병대에서 2년간 통역을 하기도 했다.

김 동문은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 모교 공대 토목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미군 군속으로 근무하면서 1951년에는 평양까지 올라갔었다" 고 회고하며 "당시 전쟁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 시험을 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장과 항만협회장을 역임한 김 동문은 지난 해 6월 21 ~ 23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제2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 19번의 시도 끝에 한국 전자상거래 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문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학진(농생대 71) 장로

성경통독 신앙서 '싹난 지팡이' 출간

LA '사랑의 빛 선교교회' 에서 장로로 봉직하고 있는 이학진(농생대 71) 동문이 성경 통독과 이해를 돕는 책 '싹 난 지팡이' (사진)를 새로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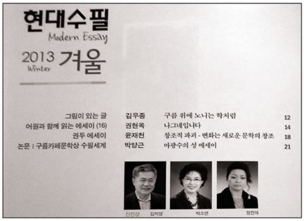
이학진 장로는 지난 20년간 교회의 구역예배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는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알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

저자는 체계적인 훈련이나 좋은 교재와 친구하여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책은 방대하고 심오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한 성경을 이해하고 같이 읽어 나가게 하는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생활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성경을 읽으며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학진 장로는 "10여년 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착수했으며 최근 5년간은 하루 10시간씩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다. 초신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자세로 만들었다" 고 덧붙였다.

'싹 난 지팡이' CD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문의 (213)434-0033, jld152@gmail.com ***


현대수필
Modern Essay
2013 Winter 겨울
그림이 있는 글 김우종 구름 위에 노니는 학처럼 12
어원과 함께 읽는 에세이 (16) 권현옥 나그네입니다 14
권두 에세이 윤재천 창조적 파괴 - 변화는 새로운 문학의 창조 18
논문 | 구름카페문학상 수필세계 박양근 마광수의 성 에세이 21
신인상 김지영
박소연
정진여

← '현대수필' 의 표지로 사진 첫번째가 김지영 동문이다.

'오달' 김지영(사대 69) 동문

'현대수필' 통해 수필가 등단

'현대수필' 2013 겨울호에 '전등사 나부상' 실려

'오달' 김지영(사대 69) 동문이 한국 '현대수필' 지의 신인상을 받고 수필가로 공식 등단했다. 수상작은 '전등사 나부상' 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수필 2013년 겨울호에 게재되었다. 다음은 그 글에 대한 심사평이다.

'전등사 나부상' 에 대하여

'전등사 나부상' 은 화자가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사 대웅보전 처마 끝 나부상의 전설을 되새기며 쓴 작품이다. 나부상이 된 주모의 고백을 화자 김지영이 문학적으로 각색, 상상력을 바탕으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에 나부상이라, 그것은 남녀 간 애증으로 범벅된 상징적 사건이 전설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설 속 나부상이 400년이 지났지만, 처음 100년은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마음, 두 번째 100년은 몸과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시기다.

세 번째 100년은 새벽녘에 스님들의 목탁소리와 독경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네 번째 100년은 중생들의 조롱과 연민의 눈길조차 처마 밑 인경소리와 다를 바 없어 초월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인간의 아집이 부서져 승화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전등사 나부상' 이 초월의 경지로 들어선다. 김지영 작가와 영적 교감을 나누며 400년간 침묵했던 얘기를 쏟아놓고 있어 문학적 기량으로 그 형태를 잡아간다.

그것은 김지영 작가의 문학적 그릇이다. 전설을 각색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모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어, 화자는 그 여인을 이해하며 도목수가 남긴 나부상에 대해서는 치묵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그것은 도목수의 마음 속에 주모에 대한 애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며, 우리도 언젠가 누구에게 떠나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전등사를 나서고 있다.

'세상의 소문은 아직도 그녀가 받치고 있는 절집 지붕보다 훨씬 무겁다' 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니다.

이 글은 문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작품으로 김지영의 상상력은 대리연출을 성공적으로 끌어간다. 앞으로도 상상력을 바탕으로 예술성이 가미된 글을 쓰고 작가로서 그 몫을 다하길 기대한다. ***

LA민주평통 최재현(수의대 66) 회장

고국 정부서 국민훈장 목련장 받아

↑LA 민주평통이 지난 1월 9일 옥스포드 팔래스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했다. 이날 하례식에서는 최재현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고 4명의 위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회장 최재현 수의대 66)의 2013년 신년 하례식 겸 대통령상 시상식 행사가 지난 1월 9일 옥스포드 팔래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하례식에서는 LA 민주평통이 차세대 육성을 목표로 창립한 주니어 평통 발대식과 통일 강연회가 있었으며, LA 민주평통 회장인 최재현 회장이 한국 정부를 대신해 신연성 LA 총영사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15 ~ 16기 LA 민주평통을 이끌며 조직의 발전과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목련장은 국민훈장의 다섯 등급(무궁화,모란,동백,목련,석류) 가운데 네 번째로 LA 민주평통 역대 회장 중 훈장을 받기는 처음이다.

최 회장은 2년 임기의 LA 민주평통 회장을 연임하며 'LA 민주평통 30년사'를 발간했고, 위안부 기림비 설립 운동 동참, 주니어 평통 창립 등을 주도했다.

최 회장은 모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뒤 1976년 도미해 평통 회장 외에도 남가주 수의사 협회, 동부 한인회 이사장, ROTC 동문회장, 충청 향우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2013년 Obama 미 대통령상, California 주정부상, 2012년 LA 시장상, 2010년 충청남북도 도지사 상, 대전시장 상,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상, 2007년 포모나 시장 상, 2006년 대한수의사회 회장 상, 2005년 Diamond Bar 시장 상, 2003년 포모나시 교육국 국장 상 등 많은 상을 받아 오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다. ***

<글 = 미주 동창회 백옥자
(음대 71) 조직국장>

이선명(문리대 59) US News 전 주필

워싱턴 문인회 번역문학상 수상

언론인이자 번역가인 이선명(문리대 59 ·US News 등 전 주필 ·사진) 동문이 워싱턴 문인회(회장 권귀순)가 제정한 번역문학상 분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월 19일 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버지니아의 한식당 우래옥에서 가진 문인회의 신년 하례식에서 타 분야의 신춘문학 당선자들과 함께 열렸다.

이선명 동문은 그동안 김원용 박사의 '한국의 미술사', 문선명 목사의 자서전, 김혜일 전 메릴랜드 한인회장의 자서전, 홍상화의 단편소설 등 다수를 번역했다.

이선명 동문은 "창작 문학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면, 작가의 작품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포럼으로서의 번역문학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정진해 달라는 격려로 알고 그 뜻을 받들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이선명 동문은 모교 국제정치학과를 수료하고 고국 한국에서 동화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지난 1970년 전태일씨 분신사건 때 전태일의 일기를 단독 입수해 영국의 언론에 발표해 당시 한국의 열악한 노동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킨 언론인이다.

그 뒤 한국을 떠났으나 London Daily Mirror 서울 특파원, Korea News Service 파리 특파원, KPI 통신 워싱턴 특파원, The Pacific Life 주필, The Washington Weekly 주필, KPI 통신 주필을 거치면서 평생 언론의 길을 걸어 왔다.

그동안 출간해 온 주요 저서로는 'The Descendants of Cane', 'Epics of Korean Immigrants', 'Korea at A Crossrode', 'The Age of Burning' 등 다수가 있다. ***

이용석 교수 스탠포드대서 강연

메사추세츠주의 윌리암스 칼리지 이용석 경제학과 교수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소장 신기욱)의 초청을 받아 지난 1월 24일(금)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이용석 교수는 '학군 제도가 주거지역과 경제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으로부터의 증거'를 주제로 한국의 학군•주거지역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강의는 엔시나 홀 필리핀스 컨퍼런스 룸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진행됐다.

이용석 교수는 모교 공대 건축학과 졸업 후 듀크 대학에서 공공 정책 석사,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곽상희 시인 시집 '두얼굴' 출간

미국에 온 한인 여성 이야기

시인 곽상희(사진) 동문이 영문 시집 '두 얼굴(Two Faces'(엑스리브리스 출판. 표지)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에 온 한인 여성 '회석'의 여정을 다양한 시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험난한 삶을 헤쳐나간 뒤 삶을 향한 긍정적인 자세를 찾게되는 이야기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상희 시인은 1980년 현대문학에 시 '허드슨강의 노을'을 추천받아 등단했다. 경남 울산에서 태어난 곽 동문은 모교 문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대 언어학과와 뱅크스트리트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시집 '끝나지 않은 하루' 등 6권에 수필집 '그 하늘 바람 홁을 꿈꾸며' 등이 있으며 제1회 박남수 시인 대상, 제1회 미주 시의회 대상, 국제도서 시인상을 받았으며 2007년 국제 계관시인 연합(UPLI) 계관시인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집 '두 얼굴'은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페이퍼백 19.99 달러 하드백 29.99 달러 e북 3.99 달러에 판매된다.

자세한 문의는 출판사 엑스리브리스(888-795-4274 교환 7879)로 하면 된다.***

이채진 명예교수 지난 해 분주한 일정

중국 남개대학 특별연구원 위촉, 한국 외교관들에게 특강, 각 대학 강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심사 등

Claremont McKenna 대학 이채진(문리대 55 사진) 국제정치학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 가을학기 동안 아주 다양한 학문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채진 교수는 10월 중국 천진에 있는 남개대학에서 열린 '주은래 총리'에 관한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아 논문 '청소년 시기의 주은래'를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남개대학 '주은래 연구소'의 특별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주은래는 1919년 남개대학의 제1기생으로 입학했으나 졸업은 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이후 11월 새로 선출된 한국 외교관들(41명)을 위하여 국립 외교원에서 일주일 동안 영어 특강을 하였다.

강의 제목은 '미국 외교정책의 이론적 및 역사적 특수성',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미 중 국교 정상화 과정과 영향',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 등이었다. 41명의 신입 외교관 중에 서울대 출신은 15명이었고 여성 22명이었다.

국립 외교원의 특강이 끝난 다음 이 교수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초청으로 2주 동안 여러 곳(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 중앙공무원 교육원, 국립 외교원, 한국 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코리아정책 연구소,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였다.

강연 제목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장래',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 등이었다.

이 교수는 12월에는 Fulbright 장학생 선발 위원회 위원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하려는 박사 학위와 석사 학위 지원자들(52명)을 심사하였고 San Francisco에서 열린 선발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Fulbright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 동안 한국이나 일본에서 연구할 수 있다. 이 교수에 의하면 한국에서 연구하려는 젊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이채진 교수는 2014년 봄학기에 강의(미국의 아시아 정책)를 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장진성 교수 맨하탄서 한국미술사 강연

장진성(사진) 교수가 뉴욕의 맨하탄 32가에 위치한 이영희 한국문화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지난 1월 16일 서울대 한국미술사 관련 공개 강연을 실시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의 연구를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장진성 교수는 '조선시대 회화의 흐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예일 대학에서 '중국 청나라 초기 산수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간 후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미술 등 동아시아 미술에 관한 활발한 연구 논문 발표해 오고 있다.

장 교수는 동아시아 미술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조선시대 회화의 흐름을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해주었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됐다.***

안태민·강순임 부부 동문

한미장학재단에 5천 달러 기탁

버지니아의 훼어팩스에서 거주중인 안태민(공대 62)·강순임(생활과대 64) 부부 동문이 지난 해 12월 30일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워싱턴의 한미 장학재단 동부지부에 기탁했다.

안태민·강순임 부부 동문은 “두 자녀가 대학 재학 당시 한미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때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 며 “될 수 있으면 한 명의 학생에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미 장학재단 동부지부 김상훈 회장은 “연말에 이렇게 뜻깊은 장학금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며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늘어나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 고 말했다.

이같은 장학생 선발은 한미 장학재단에 전적으로 위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뽑아 학업에 도움을 주게 된다.***

바리톤 윤형 동문 시애틀 오페라 공연

새해 첫 공연으로 ‘리골레토’ 역, 한인으로는 시애틀 오페라의 첫 주역맡아

바리톤 윤형(사진) 동문이 세계적인 오페라단인 시애틀 오페라의 2014년 첫 공연작 ‘리골레토’ 의 주역으로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지난 2007년 작고한 바리톤 윤치호의 아들인 그는 오는 지난 1월 11일과 24일 시애틀 오페라 극장에서 두 차례 열린 공연에서 한인 바리톤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연에 캐스팅됐다.

여주인공 질다 역엔 최근 떠오르는 소프라노 제니퍼 제란이 발탁됐고 리카르도 프리차와 린다 브롭스키로가 각각 지휘와 연출을 맡았다.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의 환락’ 에 베르디가 곡을 붙인 ‘리골레토’ 는 1851년 초연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극적인 음악과 아리아가 특징이다. ‘일 트로바토레’ 와 ‘라 트라비아타’ 와 더불어 베르디의 작품 가운데 예술적 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형 동문은 “ ‘리골레토’ 는 모든 바리톤이 해보고 싶어 하는 역할” 이라며 뿌듯해 했다.

그는 “4년 동안 44개의 배역을 맡았고 교향곡 16편에 출연했는데 이는 매년 4~5개의 새로운 오페라와 새로운 심포니를 공부하며 연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3년 전부터 베르디 작품의 바리톤으로 초청받고 있어 감사할 뿐” 이라고 밝혔다.

윤형 동문은 모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음대와 커티스 음악원에 유학해 성악을 공부했다. ***

박진 새누리당 전 의원

LA에서 한미동맹 관련 강연

박진(사진) 새누리당 전 의원 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해 12월 LA를 방문해 23일 한미동맹과 관련된 강연회를 가졌다.

박진 전 의원은 UCLA에서 ‘한미동맹 60주년’ 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진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현재의 외교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모교 법대를 나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16 ~ 18대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한나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성규(문리대 58 맨하탄 라커펠러대 생화학 교수= 지난 해 12월 27일 뉴 저지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이 동문은 모교 문리대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59년 도미 유학,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학사,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라커펠러 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창원(공대) 앰코어 A&E 회장

하와이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

차세대 육성에 심혈… “한국인이 세계인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길은 교육 밖에 없다”

“1903년 1월 13일 겔릭호를 타고 오신 아버지는 항상 ‘네가 살아가는 동안 도와준 분들 은혜는 잊지 말아라. 어디에 있든 그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약속은 꼭 지켜라’ 고 말씀 하셨지요. 한인 사회가 이민역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창원(85) 앰코어 A&E 회장(오하나 퍼시픽 은행 이사장)은 ‘한인 차세대 육성’ 이라면 늘 발 벗고 앞장서기로 유명하다. 이민 1세인 김 회장은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하와이 굴지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평사원으로 입사해 20년 만에 최고 경영자가 됐다.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 역사보존 및 정체성 교육 사업에 거금을 쾌척하며 ‘솔선수범’ 에 나서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인이 세계인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 길은 교육 밖에 없다” 며 한국 카이스트(KAIST)에도 100만 달러를 기부했을 정도.

실제로 김 회장은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총회장을 맡으며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그동안 하와이 한인사회 차세대 육성을 위한 장학금, 한국학 연구소 발전기금 등 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김 회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주류사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동화되길 희망하고 있다.

김 회장에게 차세대 교육사업은 한인이란 자긍심을 심어주고 한인사회 미래 동력을 키워주려는 배려인 셈이다.

김 회장은 “우리가 이민 역사를 외면하고 현재를 ‘컨트롤’ 하지 못하면 한인사회는 망한다” 고 일갈한다. 한인사회가 단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끼리끼리식 ‘고립’ 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 본토 한인사회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현재를 참고하면 좋겠다” 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문대양 하와이주 전 대법원장, 해리 김 빅아일랜드 전 시장, 리 도나휴 호놀룰루 전 경찰국장, 팻 하마모토 전 주교육감이 배출된 저력은 한인 부모들의 ‘철학이 담긴 교육’ 덕분이라는 것.

“한인 원로들이 명예욕을 부리거나 분열과 싸움을 일삼으면 결국 우리 자식들이 한인사회를 멀리해요. 패를 가르려는 악습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인사회가 이민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민주당 손학규 고문 UC버클리서 강연

지지조직 시민포럼이 워싱턴에도 애난데일에 사무실 개소

손학규(정치 65)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월 31일 UC버클리 데이비드 브라우어 센터 골드맨 시어터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UC버클리 한국학 센터 초청으로 북가주를 방문한 손 상임고문은 ‘동아시아와 한국 정치의 역동적 변화’ 를 주제로 발표했다.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1973년)하고, 1988년 옥스포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손 상임고문은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1996년)에 올랐으며 경기도지사(2002년)와 민주당 대표(2010년)를 역임했다.

2012년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손 상임고문은 현재도 현역의원 20여 명의 지원과 함께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상임고문의 지지 조직으로 서울에 총본부를 둔 시민포럼 자유광장(상임대표 정기용)은 지난해 12월 13일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사무실은 애난데일 최강기원(7535 Little River Tnpk #B1, Annandale, VA)에 있다.***

신상우 동문 피아노 무료 연주회

피아니스트 신상우 동문이 지난해 12월 24일 CA 브레아 나침반 교회가 마련한 이웃초청 신년음악회에서 무료 연주했다. 이 음악회는 새해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해 치유와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상우 동문은 모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복음성가 작곡가이기도 하다. 요즈음 교회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 를 작곡했고 드라마 OST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드라마 전우치, 마의, 주몽, 베토벤 바이러스, 제빵 왕 김탁구, 대조영 등 OST와 오케스트라 편곡 등을 담당한 바 있다.

신 동문은 현재 온누리 교회 지휘자이며 중앙아트 음악감독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청빙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나침반교회는 지난 2012년 6월 교회를 부에나팍에서 브레아로 이전한 후 세 번째 이웃 초청 신년음악회를 마련했다. 1회에는 테너 박인수 교수, 두 번째 음악회에는 테너 김준만 교수가 참가했다.***

김준희 동문 피아노 무료 연주회

“재능 묻어둔 엄마들 힘 내세요…어린 자녀 육아 현실 어렵지만 ‘엄마는 강하다’ 보여줘

김준희(음대 98·사진) 동문이 지난 해 12월 21일 캘리포니아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 사이프레스 리사이틀 홀에서 무료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김준희 동문은 이날 베토벤의 열정을 비롯해 쇼팽의 발라드 4번, 클로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조곡,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등을 연주했다.

김 동문은 본래 피아노 매스터다. 지난 2002년 모교 음대를 졸업했고 이스트만 음대에서 피아노 연주 및 문헌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주최한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시애틀과 멤피스에서 열린 피아노 경연대회에서도 상을 탔다.

김 동문은 결혼과 출산에 피아노와 소원해졌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난 2009년에는 피아노에 손도 대지 못했다.

김 동문은 “손이 근질근질했다. 2년 전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볼티모어 콩쿠르 대회에 참가해 협주곡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독주회가 다른 주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주위 친구들은 결혼하거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대부분 피아노를 그만둔다. 전업주부가 되면서 더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분들에게 꼭 용기를 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 말했다.joonheek@hotmail.com ***

남가주 총동창회

JJ Grand Hotel서 정기 이사회

남가주 총동창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JJ Grand Hotel에서 2014년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상임이사(남가주 총동창회 역대 회장), 선임이사(각 단과대학회장 추천 2명 이상), 평이사(총동창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단과대 회장)등이 모여 업무보고 및 안건 토의, 제안, 이취임식 준비, 신년도 사업계획, 차기 수석부회장 선출등을 논의했다.

김상찬(문리대 65) 총동창회장은 "바쁜 생활에서도 행사때마다 참여한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임원들의 열성적 협조로 많은 행사를 재미있게 이끌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이서회(법대 70)회장께서는 못다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전하고, 선후배가 함께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 취임할 이서회 회장은 "기쁨으로 화합하는 동창회를 구성해 다양한 취미활동, 동우회 적극지원 및 증폭, 관악연대 유대강화, 사회봉사 지원, 어려운 동문 위로, 참가의식에 대한 제의"를 요망했다.

한태호(법대 71) 총무국장의 사회와 사업보고에서 정기 이사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김지하 시인 문학강연, 커뮤니티 포럼 강연회(노규식 박사-뇌과학학습, 김선신 교수-엘러지, 양한광 의대교수-위암정복, 이영목 교수-계몽주의), 24회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챔피언십 대회, 추계 골프 토너먼트, 소식지 2회 발행, Hollywood Bowl 가족의밤, Bishop Camping, 솔뱅 및 와이너리 여행, 등의 행사를 보고했다.

김기형(상대 75) 재무국장은 "많은 행사에도 불구, 약간의 흑자를 남겼다"고 말했다.

안건으로 동창회비, 현안토의, 신구 회장 이취임식 준비, 신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박혜옥(간호대 69) 동문과 홍선애(미대 62) 동문이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홍 동문의 양보로 박혜옥 동문이 당선됐다.***

<글·사진= 백옥자(음대 71)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남가주 총동창회 임원들이 정기 이사회후 한 자리에 모였다. 아래 왼쪽 사진은 앞으로 새로 취임할 이서회(법대 70) 신임 회장(왼쪽)과 김상찬(문리대 65) 회장, 오른쪽은 박혜옥(간호대 69) 차기 회장

남가주 법대 동창회

LA 용궁에서 총회 및 송년회

남가주 법대 동창회(회장 이서회·법대 70)가 지난 해 12월 6일 LA의 용수산에서 연말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총 40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해인 2013년도에 있었던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인 2014년도에 있을 여러 행사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었다.***

남가주 음대 동창회

JJ Grand Hotel서 총회 및 송년회

남가주 음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박인옥·음대 65)가 지난 해 12월 10일 2013년 총회 및 송년행사를 LA의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참석 동문과 가족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2014년의 힘찬 새해 설계를 약속했다.

이날 Claremont McKenna 대학의 이채진(문리대 55) 명예교수도 참석(왼쪽)해 동문들간 활발한 교류를 다짐했다. ***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

용궁식당에서 신년 하례식 열어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회장 이학진(71)가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 LA 용궁식당에서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학진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야유회, Golf 대회, 남가주 총동창회 행사 참가(Bishop Camping, Hollywood Bowl, Solvang Wineries, 음대 음악회) 등 여러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물심양면 협조해주신 동문과 임원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학진 회장 자택에서 모인 봄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 동문들이 더 많이 동창회에 참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하였다.

이상호(80) 회계국장의 회계보고에서는 4천200달러의 넉넉한 재정 흑자가 보고돼 동문들을 흡족하게 했다.

2014년도 신임회장 선출에서는 정병혁(70) 동문이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정병혁 신임 회장은 인삿말에서 "좀 더 많은 동문과 젊은 후배들이 동창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미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 동문들이 2014년 신년 하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아래 왼쪽 사진은 남가주 농생대 이학진(71) 전 회장과 정병혁(70) 신임회장이 동문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다.

이어 동문들의 여러 가지 제언과 여흥 및 담소를 나누었다.

특히 원로 동문 방석훈(55) 전 회장은 신년회 축하와 더불어 "농생대 화합의 힘을 더욱 과시해보자" 고 제의했다.***

<글·사진 = 백옥자(음대 71)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엄세옥(69) 동문과 김용주(69) 동문의 익살스러운 '이수일과 심순애' 연기가 큰 인기를 끌었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JJ Grand Hotel에서 정기총회

←원로 동문 강윤희 교수(46)께서 덕담 강좌를 하고 있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회장 박혜옥 69)가 지난 1월 11일 LA의 JJ Grand 호텔에서 정기총회와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동문들은 미 간호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로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선후배들간 따뜻한 새해 인사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참가 동문들 중에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원로 강윤희(46) 교수로부터 젊은 정선영(95) 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푸근했던 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박혜옥 회장의 인삿말에 이어 흔쾌히 참석해준 남가주 총동창회 김상찬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 그리고 사업 보고와 회계 보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2부에서는 손선행(68) 동문이 전문인 못지 않은 사회 솜씨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첫 순서로 김경(69) 동문과 박혜옥 회장의 부군 백정현(음대 66) 동문께서 듀엣을 보였는데 김경 동문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멋진 사랑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특히 이 날은 멀리 뉴욕에서 온 이정희(69) 동문의 시원스럽고 신나는 노래와 익살스러운 춤 또한 모든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또한 엄세옥(69) 동문과 김용주(69) 동문이 스스로 만든 대본으로 '심순애와 이수일' 의 드라마 연출을 했는데 아주 재치있는 장면으로 대본 하나 하나마다 관중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모임에서는 너무 웃어 혈압이 좀 높았던 어느 동문은 집에 가서 혈압을 재보았더니 그래도 아주 정상으로 나와 오히려 좋은 치료가 되었다고 했다.

그외 손선행 사회자의 넌센스 퀴즈, 방정자(61) 동문의 미니 하프 연주, 원로 강윤희 교수의 덕담 등, 마음 속에 새기며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서울대 동창회와 동문들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원에 핀 꽃이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향기를 날라듯이 마음 깊이 향기를 남기고 가는 우리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 = 김수향(68)
사진 = 황석만(부군)>

남가주 의대 동창회

Oxford Palace Hotel서 신년회

남가주 의대 동창회(회장 최광휘)가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 LA의 Oxford Palace Hotel에서 178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특히 San Diego지역에 거주 중인 동문들이 대형 버스를 대절해 참석했으며 1949년 졸업하신 원로 김지익·고영철 동문을 비롯해서 이른바 졸업환갑을 넘긴 동문들이 10여 명 참석해 노익장을 과시한 자리가 됐다.

행사 제 1부는 최광휘(의대 76) 동문의 깔끔한 사회와 참석인 전원에 대한 돌아가기식 소개가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Radio Seoul에서 초대된 이영돈 MC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밤 10시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게 흥을 돋우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임에 가보면 참석자들이 예정 시간이 다 돼서야 하나 둘씩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 서울의대 동문들은 오후 6시에 이르자 이미 절반 이상이나 참석해 있곤 한다. 이것은 우리 의대 동문들만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가주 의대 동창회는 지난 2년간 열심히 일한 전경배(의대 75) 동문의 바턴을 이어 받아 올해에는 최광휘 동문의 영도(?)하에 차민영(의대 82)·인상훈(의대 94) 두 동문이 부회장, 조형기(의대 92) 동문이 총무, 김동훈(의대 77) 동문이 재무를 맡아 수고해주기로 했다. 동창회 이사장은 전회택(의대 64) 동문이 맡아 계속 봉사하기로 했다.***

<글 = 이원택(의대 65)
사진 = 나두섭(의대 66)>

남가주 수의대 동창회

용궁 레스토랑에서 신년하례식

남가주 수의대 동창회(회장 이사균 79) 가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 LA의 용궁식당에서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사균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행사에도 적극 참석, 후원해준 여러 동문과 임원진,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주셨던 모교 류판동 수의대 학장님과 윤정희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행사 사업보고에서는 ▶류판동 학장 방문환영 = 박종수(58) 제18대 수의대 회장댁에서 열렸으며 권태삼(73)·이병희(75) 동문께 감사패 ▶모교 학부생 실습 및 연수= 김은영(3년)·최은영(3년) ▶서울대병원 연수 = 이재현(76)·강동원(75)·이사균(79)·성홍환(76) 동문이 6월 29일부터 4주간 ▶이재현(76) 동문= 모교 수의대 초청 강의 ▶모교 수의대 동창회 초청 한국방문(10월 6일) =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상 수상-김현영(58)동문, 박종수·주한수(62)·이사균 동문 참여 ▶이호택(07) 동문 = 2012년 California State Board 시험에 합격, Associate Veterinarian 근무 ▶남가주 총동창회 Golf대회, Hollywood Bowl, Bishop Camp 등 행사참여 등이 보고됐다.

↑수의대 동창회 동문들은 신년 하례식 후에도 박종수 전 회장 자택에서 뒷풀이(?)를 했다.

이후 이호택 동문이 류판동 학장의 '재미 수의대 동문들께 드리는 신년인사' 를 대독했다.

이어 회계보고(이호택 재무)에서는 연수학생에 대한 경비, 행사, 경조사 등의 경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후원금으로 2천 63달러의 잔액이 남았다.

토의 안건으로 모교 대학원 졸업자 초청건과 이재현 신임회장, 김영주(88)총무, 안형준(98) Web 담당, 조선아(01) 대학원 WEB담당의 인사와 소개가 있었다.

2012년도 이병희 회장과 고병찬 총무께 감사패를 수여했다.

폐회후 박종수 전 회장댁으로 자리를 옮겨 박정현 사모님께서 준비한 맛있는 다과로 더욱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글·사진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필라델피아 동창회

Blue Bell 남산식당에서 송년회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한중회 공대 80)가 지난 해 12월 7일(토) 오후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Blue Bell에 위치한 남산식당에서 약 90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연말 송년 파티를 가졌다. 이날 참석해준 동문들은 1947학번부터 2004학번까지 5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연배였슴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문들이 모여 서로 하나가 되는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Reception과 식사에 이어 음대 출신 동문들의 작은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백윤학 동문의 반주로 유지연 동문(음대 85)의 첼로연주 'The love of God' 과 'Stand up for Jesus' , 심회진 동문(음대 90)의 '내마음' 과 '새타령' , 최혜은 동문(음대 04)의 'O mio abbino caro' 와 '그리운 금강산' 연주가 겨울밤의 정취를 더욱 무르익게 해주었다.

2부에서는 간단한 총회로 필자(한중회 회장)의 회계 보고와 서중민(공대 64) 장학위원장의 장학보고, 그리고 손재옥(생활과대 77) 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지난 10월 있었던 한국방문 보고와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송년회를 위해 작은 음악회로 봉사해준 음대 출신 동문과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오른쪽부터 최혜은(음대 04) 동문, 이인영(음대 87) 동문, 심회진(음대 90) 동문, 심회진 동문 부군, 가장 왼쪽은 김순주(치대 95) 동문.

손재옥 차기 회장은 지난 10월 모교를 방문하여 67년 개교 기념일과 Homecoming Day 등에 참석하고 돌아온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2014년과 15년 사업계획으로 Membership drive, website maintenance, 그리고 Fund-raising 등을 제시했다. 이후 필자의 사회로 여흥 순서가 이어졌다. 테이블별로 숫자를 Guess하는 게임(예로 Empire State Building의 계단수는? White House의 화장실 갯수는? 등)을 통해 가장 근접한 팀에 선물을 주었다.

또한 OX퀴즈, Raffle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전달이 있었다.

1등(TV 모니터)에는 백윤학 동문이 당첨되었다. 김금자 동문은 1, 2, 3등 모두에 당첨되는 엄청난 행운을 보였으나 2등 상품을 골라 가는 미덕을 보여주었다.

행사 뒤 동문들에게 회장단이 준비한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과 travel mug를 나누어 드리며 올해 말에는 더욱 풍성한 연말 파티를 기약했다. 송년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준 박혜란· 강은규 부회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는 바이다.***

<글 = 한중회(공대 80) 회장>

그동안 장학생을 선발해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한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North Penn High(한인학생 1명, African American 학생 1명), ▶Cheltenham High(한인학생 1명과 African-American 학생 1명), ▶Benjamin Franklin High (African - American 학생 2명) 등 총 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각각 500 달러씩 총 3천 달러를 지급한 것이다.

장학생의 선발 조건은 정직성과 사회봉사 활동이며 또 그에 대한 essay를 심사해 선발했다.

필라델피나 동창회는 다른 지역 동창회와 달리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행사를 이미 9년 전부터 시작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흑인 학생을 2명을 더 늘려 4명으로 하고 한인 학생 2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흑인 학생을 선발하게 된 것은, 흑인 형제들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또한 타인종 사회와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취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 서중민
(공대 64) 장학위원장>

2013년 휴스턴 서울대 동창회 송년의 밤
2013년 12월 14일 서울 가든

↑휴스턴 동창회 동문과 가족들이 2013년 연말 총회 겸 송년회 행사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휴스턴 동창회

한식당 서울가든에서 송년회

휴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 공대 72)가 지난 해 12월 14일(토) 한식당 서울 가든(9446 Long Point Rd, Houston,)에서 2013년 연말 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총 70여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뷔페식 식사와 함께 동문 소개 후 이호성 회장의 주재로 총회 본 행사를 시작했다.

본 행사에서는 새로 선출된 이사장 박유미 동문(약대 62)을 소개하고, 이어 2014년 동창회장으로 이호성 회장의 연임을 회원들의 동의로 결정하였다.

송년의 밤 제1부에서는 정공현 동문(공대 84)의 사회로 퀴즈게임의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구자동 동문(상대 77)의 사회로 노래자랑과 댄스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 행사는 특히 선물이 푸짐했다. 동문들이 가져온 선물 외에 쌀, 고추장, 참기름 등 생필품과 그릇, 식기 건조기 등이 게임과 노래자랑을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박유미 이사장께서 와인 두 상자와, 비데 15개, 그리고 발가락 양말 2박스를 선물로 기증하여, 풍성한 선물이 가득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경품 추첨에서 핸드헬드 블렌더는 멀리 루이지에나에서 참석한 강영빈 동문(문리대 58), 발마사지기는 김건호 동문(공대 91)의 아내인 민정원씨, 블렌더는 Texas A&M에서 참석한 김형철 동문(공대 00)에게 돌아갔다.

예년과 달리 젊은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3대가 함께 한 올 행사는 48학번 곽노환 동문(문리대) 부터 05학번 유한나(인문대) 동문까지 세대를 초월한 동문간 끈끈한 우애를 느낀 뜻깊은 행사였다.***

<글 = 이호성(공대 72) 회장>

시카고 동창회

Drurylane에서 총회 및 송년회

시카고 동창회(회장 한의일 공대 62)가 지난 해 12월 1일 Drurylane Oakbrook 에서 125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1부 본 행사에서는 2013년 타계하신 동문들과 배우자들에 대한 묵념, 한의일 회장의 인삿말, 사업·재무·감사·장학기금 현황보고,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매년 6~10명을 선발하는 동창회 장학제도는 올해도 8명을 뽑아 각 1천 달러씩 수여했다.

2013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최신우(Univ.Illinois Urbana-Champaign, Ph.D. Social Work) ▶한동현(DePaul Univ.BA Business) ▶김은기(Univ. of Minnesota, BS Mechanical Engineering) ▶김현일(Harvard Univ. M.Ed. TIE) ▶이연재(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Angela Noppenberger(Dartmouth College, major - undecided) ▶서경원 (Univ. of Chicago, BA Political Science) ▶유종원(Univ.of Chicago, PhD Nursing)이다.

차차기(2015년) 회장(2014년도 수석부회장)으로 김용주(공대 69) 동문을 선출했다.

2014년 회장을 맡게 된 필자(김호범 상대 69)는 "1982년 창설해 지난 31년 동안 동문들 친목도모와 사회 활동, 장학사업을 꾸준히 해 온 동창회 활동을 돌아보며 훌륭하게 동창회를 이끌어온 역대 회장님들의 대를 이어 열심히 봉사하겠다" 는 인삿말과 함께 임원진을 소개했다.

2014년 임원진은 ▶수석부회장=김용주 ▶부회장=연경자·김연화 ▶총무= 변용국 ▶재무= 이동균 ▶기획 및 골프 = 김동회·신택수 ▶사진 = 임현재 ▶간사 = 김승주·김윤하·홍소정·홍혜례·박인숙 ▶감사 = 조순분·최길용 ▶고문 = 문병훈·이용락·박영규·김사직·김정주·노영일·한의일·조중행·김영호 동문 등이다.

2부에서는 음대 동문들의 작은 음악회, 동문과 동문 배우자로 형성된 서울대 Dance Troupe 의 공연과 Line Dance로 이어졌다.

음악회에서는 김기봉(바리톤)동문의 주옥같은 노래 (이소정 동문 반주)와, 작년부터 시카고 심포니 멤버로 활략하는 배소영 동문의 바이올린 독주 (김귀염 동문 반주)로 모든 동문들이 매료됐다. 또 김미숙·이소정·김귀염 동문 3명이 한 피아노에 같이 앉아 6개의 손들이 크리스마스 캐롤, 김미숙 동문이 특별히 편곡한 강남 스타일곡 등을 연주해 앵콜과 브라보를 받았다.

작년 연말 총회에서 히트해 금년 또 앵콜받은 Dance Troupe는 '오늘같은 밤엔' 을 멋지게 공연해 갈채를 받았으며, 모든 동문들이 참여하는 Line Dane 로 흥을 만끽했다.

이번 총회를 위해 MB Financial 의 오국정 행장님이 특별히 donation 해 준 TV를 raffle 하여 김동회 동문이 TV를 받아가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진 = 임현재(의대 59)
글 = 김호범(상대 69)동창회장>

↑시카고 동창회의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Dance Troupe' 공연은 시카고 동포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의일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장학생들과 함께 한 장면이다.

중부 텍사스 동창회

E. Milburn Park에서 가을 야유회

중부 텍사스 동창회(회장 김성근 법대 78)가 지난 해 11월 16일 41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Elizabeth Milburn Park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바람이 좀 불었지만 약간 흐려 오히려 야외에서 행사를 갖기에는 쾌적한 날씨였다.

동문끼리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필자(이주회 부회장 음대 89)의 사회로 여흥시간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했던 OX퀴즈는 예상보다 잘 맞춰주어 꽤 많이 준비해온 문제의 밑천이 떨어질 뻔 했는데 이 역시 우리 동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런지.

팀별 구호와 함께 두 팀으로 나눠 진행한, 동물과 속담을 몸짓으로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도 흥미진진했다. 처음 시작한 A팀이 약간은 느린 듯 진행했으나, 꽤 빠르게 맞추었지만 패스를 너무 많이 써 한 문제를 덜 맞춘 B팀을 이겼습니다.

2인 3각 달리기, 아이들과 파트너가 함께 한 2인 3각도 그간의 팀웍의 확인해보고 새롭게 팀웍을 다지는 멋진 시간이었다. 이 게임도 A팀이 이겨 래플 티켓을 받았다.

최고 원로 손정철(음대 52) 이사님 건배로 시작한 식사에서는 갈비와 돼지목살 등으로 푸짐한 식단을 마련했는데 이는 강성택 부회장(공대 91), 젊은 지환시(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팀들과 상대 그룹이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신 덕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기다리던 상품 추천 시간, 푸짐한 상품 부르는 번호 소리에 다들 귀를 쫑긋하며 티슈, 페이퍼 타올, 치약과 Ziploc등을 받아 흐뭇한 모습이었다. 영예의 2등 상품(아마존 상품권)은 지환시의 이동근 동문(지구환경시스템 02), 1등 상품(미국내 왕복 여행 항공권 2매)은 그간 미국에서 여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인숙 동문(법대 대학원 74)께 돌아갔다.

이후 모두 둥글게 원을 그려 서로 손을 잡고 '사랑으로' 를 합창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이 날 찍은 사진들은 웹사이트 http://www.flickr.com/photos/54682494@N04/sets/72157637795009834에 수록돼 있으니 즐거웠던 시간들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바쁜 일정과 바람이 부는 날씨임에도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동문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다음 모임이 기대되는 멋진 야유회가 됐다.*** **<글·사진= 이주회 (음대 89) 부회장>**

↑뉴욕 동창회의 관악연대 동문들이 송년회에서 에드워드 강(사대 60) 전 회장과 박상원(음대 69)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뉴욕 동창회 관악연대

5th Avenue Lounge서 송년회

뉴욕 동창회(회장 박상원 음대 69)의 관악연대 2013년 송년회 모임이 지난 해 12월 29일(일) 뉴욕의 325 5th Avenue Lounge에서 개최됐다.

이날 뉴욕 골든 클럽의 이준행(공대 47) 회장께서는 한국을 여행 중이셨지만 젊은 관악연대 동문들을 위해 미리 후원금을 보내주셨다.

뉴욕 동창회의 에드워드 강(사대 60) 전 회장이 축사를 해주었고 역시 젊은 후진들을 위해 후원금도 기탁했다.

필자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서울대 동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IQ도 중요하지만 Daniel Golman 이 주창한 'IQ 는 성공의 20% 이고 Emotional Intelligence가 80 %를 차지한다'는 EQ의 주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음악·미술·철학·역사·인문학 등 많은 분야를 공부하고 체험할 것을 부탁했다.

관악회 동문들은 이 날 알찬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소망했다.***

<글=박상원(음대 69) 동창회장>

워싱턴주 동창회

Bellevue Hyatt에서 연말총회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김무웅 음대 64)가 지난 해 12월 7일(토) 오후 5시 Bellevue Hyatt, (900 Bellevue Way NE, Bellevue WA 98004)에서 54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 총회 및 송년 행사를 가졌다.

올해부터는 특히 원로 동문들의 안전 운전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자는 의견을 고려하여 오후 5시에 시작하여 밤 9시 정도에 행사를 마쳤다.

이날 송년회는 캘포니아 Merlot 레드 와인 건배로 동문회 총회를 시작하여, 회계 보고(하주홍 경영대 77)와 회계 감사 보고(김인배 수의대 59)를 하였으며, 1년간 수고해주신 김무웅 회장(음대 64)의 이임사, 소그룹들(시니어 클럽, 사진 동호회, 골프 그룹, 영 제너레이션 현황)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이어 한 해 동안의 신규 회원 소개하고 이원섭 동문(농대 77)을 2014년도 신임 회장, 수석 총무에 임헌민(공대 84) 동문을 선출하였다.

↑왼쪽 사진은 김무웅(음대 64) 회장이 회장 이임사 후 시니어 클럽 김재훈 회장(공대 72)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오른 쪽 사진은 직접 기타를 연주해 많은 갈채를 받은 원로 동문의 연주 모습이다.

저녁 식사로는 스테이크와 연어를 메인 메뉴로 식사를 마치고, 여흥에는 Mrs 임헌민(서인숙)의 라인댄스 인도로 신나게 함께 하였고 윤태근(상대 69), 맹병규(문리대 70)의 밴드와 함께 즐거운 가라오케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주 동창회는 내년도에도 더 많은 동문들을 만날 수 있기 기대하고 있다. ***

<글·사진 = 임헌민(공대 84) 수석총무>

관악세대/Acro광장

교과서 전쟁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인생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낸 이승만은 최초의 미주 동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4년 스물아홉 살 나이에 고종의 특사로 와서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고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고 하와이에서 교육 사업을 하며 독립 운동을 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이승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 전쟁’ 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의 실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하와이 갱단 두목으로 사리사욕만 채웠고 동포들이 모아준 독립 자금으로 노다 김 등 젊은 여성과 놀아난 플레이보이로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노다 김과 이승만의 머그샷까지 올렸다.

그러나 학생으로 이승만 추종자였던 노다 김은 이승만과 우연히 함께 기차를 타고 주 경계선을 넘었을 뿐이었는데 당시 미국법은 남성이 미혼 여성과 같이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을 뿐인데도 이 다큐는 머그샷까지 조작해 가며 이승만이 마치 간통죄로 기소된 듯 묘사하고 있다.

조선 왕족의 후예인 이승만은 젊은 시절 왕조를 뒤엎고 공화국을 세우려던 혁명가였다. 이 죄로 감옥에 끌려가 곤장 100대를 맞고 사형언도에 처해지지만 민영환 등의 구명 운동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미국으로 건너와 독립 운동을 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그의 목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3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다. 그리고는 수시로 암살 기도가 이뤄졌다. ‘백년 전쟁’ 에는 이런 얘기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이승만은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마련하고 그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여러 업적 중 중요하면서도 기억되지 않은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농지개혁이다. 친일파를 싸고 돈 그가 무슨 농지 개혁을 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앉힐 정도로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했다.

당시 한국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에 농지를 나눠주는 일은 이들을 선동하는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필수라고 본 그는 지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 1950년 6.25 한국전쟁 직전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 그 대가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은 군소 지주는 몰락했고 이 돈의 일부는 산업 자본으로 전환돼 훗날 제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

“북이 쳐들어가기만 하면 농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이란 남로당 박헌영의 주장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이미 농민들이 받을 것을 받아 챙겼기 때문이다. 박헌영은 나중에 잘못된 예측을 한 죄로 미제의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농지 개혁이 없었더라면 한반도는 일찌감치 공산화됐을지 모른다.

요즘 우리 한국은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시끄럽다. 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책이 “김구는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 깡패” 라고 묘사했다고 떠들던 단체들은 이 책이 나오자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출판사와 이 교과서 채택 학교, 집필자들에게 온갖 협박과 쌍욕을 해 가며 채택을 막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지금이 일본 제국주의나 독재 시대라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얻는 것이 있겠지만 요즘처럼 좌파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폭력 시위를 벌이는 세상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 일을 하겠는가.

좌파 사학자들 보기에는 친일파를 싸고 돈 이승만과 유신 독재를 일삼은 박정희가 이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것이 끝내 못마땅한 것이다. 이들 눈에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 일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모두 친일이고 독재 미화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농지 개혁과 산업화로 부강한 대만민국의 토대를 닦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바르고 균형잡힌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란 생각이다. ***

건강의학 칼럼

Alzhemer’ s Disease

차민영(의대 76)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질문: 레이건(Reagan)대통령이 걸려 사망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대통령을 지낸 분이 가족들도 전혀 못 알아보고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데, 치료법은 정말 하나도 없나요?

답변: 1.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병은 (Dementia:치매, 지능박약)의 원인 중 최다입니다.

Reagan 대통령이 걸렸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노망에 걸렸다’ 고 말하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2. 미국 70세이상이 되면 반 이상이 기억 감퇴에 빠지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 때문입니다.

3. 현재 미국에 3백~4백만 명의 알츠하이머 병자가 있으며 1년에 1인당 약 5만 달러 정도의 돈이 드는것으로 계산됩니다.

4. 이 알츠하이머란 이름은 1907년에 이 병을 처음으로 기술한 독일 의사인 알츠하이머(Dr. Alzheimer)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5. 증세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나, 기억력 상실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서서히 치매에 빠지게 되는데, 간단한 계산도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적 판단도 못하고, 혼자서는 일상 생활 하나도 못하며, 주위의 가족, 친구들도 전혀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냥 본인만 인격상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이 이 환자를 돌보느라고 생업에도 종사하기 어렵게 되고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환자가 돌아가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가족 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6. 이것의 병리학적 원인으로는 뇌에 Amyloid 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덩어리가 되어서, 뇌 동맥혈관 벽에 축적이 되는 병입니다. 최근 이 병의 유전인자가 4개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수시로 이유도 없이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괜히 의심도 많이 하며, 혼자서 거리를 나돌아 다니다가 경찰이 찾아서 연락을 하는 등 가족들이 진절머리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8. 다행히 요즘 아리셉트(Aricept), 엑셀론(Exelon)등 좋은 약이 개발돼 있습니다. 또 나멘다 (Namenda)라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 좋은 결과를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완치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증세를 상당히 호전시키며 더 이상 악화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은 일찍 사용할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보게 되고, 예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치료약이 없다더라 하며 포기하지 말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동문 시 감상

겨울 편지

우성봉(농대 79)
뉴스 매거진 편집고문·시인

그저 쓰는 것은 아니랍니다
눈꽃 향기 스미는 겨울편지를

하얀 눈 깊게 덮인 길 가다가
세찬 바람에라도 휘날리면
고드름 녹는 계절도 지나서
이따금씩 머언 세월마저
기다려야 하기에

어린 별들 반짝이는
저 산자락 끄트머리
타닥 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곁에서
얼마나 가슴의 말들
주고 받았습니까

사랑의 따스한 눈길 하나로
휘감는 세월의 굴레를
훌쩍 넘어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들 있기에
동짓달 이 한밤도
출렁이지 않습니까

새벽길 내닫는 발걸음 소리도
그리 설지 않은 지금은 ***

박완서의 ‘싱아’ 와 개성공단

노재원(문리대 82)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태조 왕건과 공민왕 · 노국공주의 능이 있는 고려시대의 수도. 충신 정몽주의 사연이 담긴 선죽교, 송악산과 반월성, 개성의 또 다른 이름인 송도의 3절(松都三節 · 박연폭포 서화담 황진이) 등을 책이나 어른들에게서 배우거나 들었을 뿐인 역사의 수도.

남북한 정부 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가깝고도 먼 곳이다.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30리 남짓한 곳에 위치해 있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태평양 건너 미국보다 훨씬 가기 어려운 곳이다.

개인적으로 개성은 박완서(6.25 전 서울대 입학) 선생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를 통해 더욱 친숙해진 지명이다. 개성 인근 개풍군 박적골 태생인 박완서 선생은 이 책에서 유년시절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을 하나하나 담아내고 있다. 박완서 선생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수십년 전 가족사와 개성지역의 풍습, 먹거리, 자연을 마치 얼마 전의 일인양 생생하게 풀어낸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제목에 등장하는 ‘싱아’ 다. 마디풀과의 여러해 살이 풀로 들판의 양지 바른 곳에 흔하게 피는 식물이라는 백과사전식 풀이와 달리 처음엔 조금 낯설게 다가왔다.

하지만 ‘찔레꽃 필 무렵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 즐겨 먹었다’ 는 문장을 통해 언제 어디선가 한 번은 봤음직한 친근감이 들었다.

‘박완서의 싱아’ 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학교 뒷산에 올라가 억새와 비슷한 띠의 어린 새순인 ‘삐삐(삘기)’ 를 뽑아서 씹었을 때의 달착지근한 맛을 되살려주었다. 또 대표적 개성 음식인 조랑이 떡국이나 엿을 고아 만든 강정, 민물게를 잡아 만든 간장 게장 이야기는 그곳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 쉽게 오가던 땅이었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늦여름 ‘그 많던 싱아는…’ 를 다시 읽다가 몇 년 전부터 봐두었던 집 근처 숲을 찾았다. ‘싱아’ 나 ‘삐삐’ 를 먹을 즈음 뽕나무 열매 ‘오디’ 도 익었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다지 크지 않았던 한국 뽕나무와 달리 높고 무성한 미국 뽕나무에도 푸른색, 보라색, 빨간색으로 익어가는 오디가 잔뜩 매달려있었다. 몇 개를 따서 입안에 넣자 싱긋하고 달콤한 향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 했다.

머리 속으로는 지리산 자락에 놓인 유년의 고향 마을과 어른들의 모습이 활동사진의 장면들처럼 지나갔다. 뽕나무 밭의 초여름 햇살과 보랏빛으로 물든 손바닥까지 선명하게 기억났다. 내 몸 어딘가에 남아 있는 지울 수 없는 고향의 유전자였다.

10여 년 전 시카고에 와서 처음 경험한 낯선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딥 디시(Deep Dish) 피자였다. 두꺼운 빵 위에 올려진 넉넉한 토마토 소스와 쭉쭉 늘어지는 엄청난 양의 치즈는 탄산음료를 여러 차례 들이켜도 쉽게 먹기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 새 가끔 출출할 때면 딥 디시 피자가 생각날 만큼 익숙해진 걸 보면 입맛도 세월따라 변하나 보다.

변변한 구릉조차 없는 시카고는 유난히 바람이 많다. 이 때문에 구름의 이동이 빠르고 날씨 변화도 심하다. 하지만 뚜렷한 사계절을 좋아한다는 시카고나 중서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몸과 마음이 깃드는 곳이면 어디든 고향이다. 언젠가 어제의 개성처럼 오늘의 시카고도 그립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될 것이다.

‘싱아’ 와 ‘오디’ 로 기억되는 고향의 맛이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면 딥 디시는 미래 고향의 맛이 될 수도 있겠다.***

관악세대/Acro광장

문화명당 서울 인왕산에 올라

이종호(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울 사대문 안에는 4개의 산이 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북쪽에 백악(북악), 남쪽에 목멱(남산), 동쪽에 타락(낙산), 그리고 서쪽의 인왕산이 그것이다.

이 네 개의 산을 연결해 쌓은 성이 서울성곽이다. 총 길이는 약 18㎞ 정도. 일제 때 대부분 훼손되었던 것을 최근 성문과 성벽 등 상당부분을 복원시켜 놓았다.

지난 해 고국 한국을 다녀오면서 복원된 숭례문도 둘러보고 도심의 성곽 자취도 더듬어 봤다. 성곽 길을 따라 걸으며 인왕산에도 올랐다. 해발 338m. 높지는 않지만 산세가 험하고 숲이 깊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득실거렸다는데 올라보니 그럴 만도 했겠다 싶었다.

오르는 길은 가팔랐다. 계단길 바위길, 흙길을 번갈아 밟으며 한 시간여 숨이 턱에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즈음 정상에 당도했다.

너럭바위에 올라서니 한강이 보이고 멀리 관악산 청계도 가뭇하게 다가온다. 발 아래엔 청와대와 경복궁이 손에 잡힐 듯하고 요즘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탐방 1번지로 탈바꿈했다는 북촌도 지척이다. 풍수지리를 몰라도 이 정도면 서울이 명당은 명당이구나 싶다.

조선이 도읍지를 정할 때 정도전도 이렇게 올라와 보았을 것이다. 이성계의 또 다른 스승 무학대사도 그랬을 것이다.

둘은 의견이 서로 갈렸다. 정도전은 "북한산 정기가 북악을 거쳐 목멱 쪽으로 뻗었다" 고 했다. 무학대사는 서쪽 한강 어귀 지금의 교하 쪽이라고 했다. 결국 정도전이 이겼다. 조선 궁궐이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된 연유다.

도심의 숨구멍같은 다른 궁궐들도 보였다. 창덕궁·창경궁·덕수궁·경희궁.

그러고 보니 서울은 궁궐의 도시다. 경복궁은 복원공사가 끝나 완전히 본 모습을 찾았고 외벽도 말끔히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시키는 공사도 한창이었다. 비원에서 혜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일제 때 뚫린 길을 지하 터널로 돌리고 원래 길은 덮어 복원한다는 것이다. 공사가 끝나면 서울은 또 더 좋아질 것이다.

하산 길은 자하문(창의문) 쪽을 택했다. 서울성곽을 따라 세워진 4대문 4소문 중의 하나다.

4대문은 홍인지문(동대문)·돈의문·숭례문(남대문)·숙청문이고 4소문은 홍화문(혜화문·동소문) 광희문·창의문·소덕문(소의문·서소문)을 말한다.

자하문까지 거의 다 내려와선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을 만났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로 시작하는 '서시' 시비가 반가웠다.

자그마한 야외무대에선 때마침 일단의 (윤동주 시) 동호인들이 시 낭송회를 펼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구경을 하면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거리에서 연주나 퍼포먼스를 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화의 저변이 참 넓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젠 한국이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딜 가나 공원이고 공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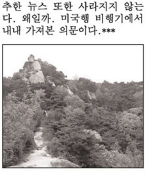
음악·연극·문학 동호인들의 활동도 다양하고 활발하다. 문화강국이 빈 말이 아니다. 싸이가 뜨고 60대 조용필이 다시 각광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등산을 끝내고 느지막이 지하철을 탔다. 역 승강장에서 또 시를 만났다.

'오선지를 발랄하게 거니는 음표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음표를 찾자/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 줄 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줄 채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줄 채우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 줄 채우고…' (최민경 '오선지' 부분)

1천만 서울 시민들은 날마다 이런 시를 보며 출퇴근한다. 그런데도 경쟁과 체면과 분노의 뉴스는 그치지 않는다.

라면상무, 성추행 대변인 같은 추한 뉴스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왜일까. 미국행 비행기에서 내내 가져본 의문이다.***



"Jackpot은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신복례(인문대) CA
미주 중앙일보 사회부장

지난 해 말 로토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당첨금 6억 3천 600만 달러. 북가주 샌호세와 조지아주 벅헤드에 사는 누군가가 대박의 행운을 거머쥐었다.

삼삼오오 몇 달러씩 거둬 로토를 구입했던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한 동안 행복한 상상에 빠졌었으리라. 하기야 몇 달러 투자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이런 저런 상상의 나래를 펴며 즐거웠다면 본전은 뽑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로토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난 연말 로토 관련 두가지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로토 당첨자들의 '그후 모습' 을 전하는 뉴스였다.

한 사람은 2천 700만 달러 상금을 5년 만에 다 써버리고 마약복용으로 간염에 걸려 호스피스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난 해 5월 잭팟을 터뜨렸는데 4천만 달러 당첨금 전액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캐나다 60대 남성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44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우 운이 좋아 성공했고 네 명의 자식들도 다 잘 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다. 당첨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해 2월 33년간 함께 지낸 아내가 암으로 숨졌는데 아내를 앗아간 암과 싸우는데 당첨금을 쓰고 싶다."

그는 우선 6년간 아내를 치료했던 암 센터의 기금모금 재단에 120만 달러를 선물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돼 행복하다" 고 밝힌 것이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려 했던 그의 뜻은 캐나다 복권당국이 그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물론 그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전기제품 도매회사 EECOL의 최고경영자를 지내다 지난 해 9월 은퇴했다. 그의 말대로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보니 그의 결정을 가진 자의 여유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천 700만 달러를 받은 지 1년 안에 고급주택에, 고급 차들을 사들이고 연일 파티를 벌이며 절반에 가까운 1천 200만 달러를 날려버린 캔자스주 50대 남성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돈벼락에 짓눌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경우다.

물론 그도 처음엔 재정설계사의 자문을 받아 돈을 관리해 평생 잘 먹고 잘 살며 자식에게까지 한 재산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전과자 출신에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하던 상황에서 주어진 거액은 그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뉴스를 접하며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더불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라고 과연 '로토 횡재의 저주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거액 복권 당첨자 5명 가운데 4명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5명 가운데 3명은 이혼하고 도박에 손을 댄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6억 3천 600만 달러의 주인공이 결정된 다음 날 출근길에서 만난 후배는 "아 오늘 회사에 안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고 말았다" 며 비켜간 행운을 아쉬워했다.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야, 누구는 44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했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없다고 하더라. 아침에 회사에 나올 수 있는게 다행이지. 그러다 출근하고 싶어도 아예 못나오는 수가 생길 수 있단다."

쉽게 온 것은 쉽게 나간다. 그리고 드라마틱하다는 것이 남보기에는 재미있어 보여도 정작 드라마를 겪는 본인에게는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별 일 없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을 일상이라고 한다.

밥 잘 먹고 그럭저럭 잠 잘자고 늘 하던 일 오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누구처럼 44년후 로토 같은 거 '힝' 하고 콧방귀 뀔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희망 'Here & Now' 살기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갑오년 청말띠에 거는 희망의 메시지가 신문과 방송에 가득한 새해다. 카드와 e메일을 통해 오가는 덕담들과 휴대폰으로 날아드는 새해 인사들이 고맙고 정겹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란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곁에 차곡차곡 쌓이는 무수한 축복들이 2014년에 겪을 고통과 시련 따위는 거뜬히 날려줄 것처럼 느껴진다. 설날이 오기 전까지, 지난 1월 한 달은 그렇게 소망을 품고 희망을 나누며 마음이 부자일 수 있어 좋은 날들이었을 것으로 믿어본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 분명 우리는 새 희망을 품고 새 꿈을 꾸어야 하리라.

그러나 '좋아지겠지' , 혹은 '잘 될거야' 등의 막연한 희망이나 근거없는 낙관은 오히려 큰 절망과 지독한 우울함과 견딜 수 없는 자책을 안겨줄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희망은 '여기에서 지금(Here & Now)'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바라보는 건강한 희망이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포로 수용소에서' 에서 막연한 희망의 위험성을 소개한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일주일 사이 전례 없이 재소자 사망률이 높아졌다. 갑자기 중노동이 늘었거나 전염병이 돌아서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절망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되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에서 소개된 '스톡데일 패러독스' 사례 또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지나친 낙관주의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전쟁 때 8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석방된 뒤 전쟁영웅이 된 미국의 스톡데일 장군에게 누군가 "감옥에서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근거 없이 낙관과 비관을 오간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막연히 무언가를 잔뜩 기대하다가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절망을 이기지 못해 죽고 맙니다" 라 답하였다.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지금(Here & Now)'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하고 바꿀 수도 없다. '후회' 는 정신적(Psychic) 에너지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걱정과 불안' 은 정신적 에너지가 미래에 있는 것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현재의 에너지를 쏟는 일은 현실의 나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powerless & helpless)함에 깔려 죽게 하는 행위이며, 결국 우울증이나 두려움에 스스로를 결박하는 일이다. 'Here & Now' 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Here & Now' 에 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오감을 느껴보는 것이다. 머리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냄새도 맡아보고, 먹을 때 맛을 음미해 보기도 하며, 손으로 자신과 가까이 있는 것을 만져보는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마음이나 뜻대로 안된다면, 배우자와 의견이 너무 달라 외롭고 힘이 든다면, 또한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못 느끼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버겁다면, 가슴 아프지만 그게 지금 나의 현실임을 겸허하게 인정하자.

'언젠가는 변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이제는 내려놓자. 나를 좌절하게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나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막연한 희망과 남이 바뀌길 바라는 나의 기대임을 인정하자. 대신,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Here & Now' 를 살아가는 힘있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counseling@fccgw.org>

*지난 1월호 이 페이지 한정민 동문의 칼럼 타이틀 '관계 회복을 위한 건강한 Boundary 세우기(1)' 에서 인쇄 실수로 'y' 자가 빠진 점 사과드립니다. <편집자>

관악세대/Acro광장<박 변호사의 영화 이야기-13>

우편배달부가 시를 읊은 까닭

박준창(문리대 79)CA
변호사

지금 칠레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며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의 시신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루다의 죽음** = 네루다는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주 프랑스 대사 등 고위직에 재직했고 이전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해 온 인물이다. 공산주의자로서 정치적인 시, 선동적인 시도 많은 반면 관능적인 사랑의 시도 많아 여성 팬도 많았다.

그런데 우익 군부 아우구스토 피노쳇(Augusto Pinochet) 장군의 군사 쿠테타가 1973년 9월 11일 일어나면서 아옌데 대통령은 자살했고 네루다는 쿠데타 발생 12일만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발표가 났다.

하지만 네루다의 죽음을 둘러싸고 살해 당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운전기사였다는 사람이 타살이었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40년만에 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영화는 네루다가 이태리의 조그만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의 집에 임시로 우편배달을 왔던 하층 섬마을 청년과의 교감을 그린 영화다.

네루다가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시절인 1948년 칠레에서는 당시 곤잘레스 비델라(Gonzalez Videla)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불법화한다. 체포를 피해 네루다는 숨어 살게 되는데, 영화는 이에 착안, 이태리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 허구에서 시작한다. 네루다는 실제 이태리로 망명한 적은 없고, 이 기간 동안 칠레에서 은신하다 아르헨티나로 도주한 적이 있었다.

▶**영화의 무대** = 무대는 이태리의 자동차도 없는 어떤 작은 섬으로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초다. 주민들 대부분은 고기를 잡아 생활해 나가고 있다.

주인공 마리오(Mario Ruoppolo)는 늙은 어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어부의 생활이 싫다. 배를 타면 알러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는 직업이 없다. 못마땅한 아버지는 그에게 직업을 가지라고 채근한다.

그런데 어느날 네루다가 이태리로 망명을 오는데, 바로 마리오가 사는 섬이 그의 주거지가 된다. 네루다의 조국 칠레에서 공산당이 불법화해 되면서 네루다에겐 체포 영장이 떨어진 것.

유명 인물이 작은 섬으로 옮겨오니 그에게로 오는 많은 우편물이 문제가 됐다. 섬의 1인 우체국 국장은 네루다의 우편물을 전담할 파트타임 우편배달부가 필요해진다.

▶**우편배달 마리오** = 우연히 우체국 앞을 지나다 우편 배달부 구인 안내를 보게 된 마리오. 자전거와 글을 읽을 줄만 알면 된다는 자격에 충족해서 그는 네루다 우편물만 전담하는 우편 배달부가 된다. 역시 공산주의자이며 네루다를 숭배하는 우체국장이 최대한 예우를 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마리오는 우편배달을 시작하면서 네루다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엔 네루다는 배움 없는 마리오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시큰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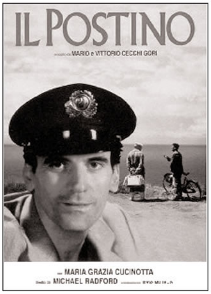
> “남자가 말로 널 만지면 손으로 만지는 것도 멀지 않아.
> ‘당신의 미소가 나비처럼 나네’ 라고 얘기하는 놈보다
> 차라리 네 엉덩이를 만지는 술집의 취객이 더 나아!”

마리오가 들고 온 자신의 시집에 사인을 해 달라는데도 네루다는 마리오의 이름조차 써주지 않아 마리오는 실망한다. 그러면서도 마리오는 그의 시를 읽고 네루다와 얘기를 나누는데, 은유(metaphor)를 설명해달라고 하면서부터 둘이는 점점 대화의 물꼬를 튼다.

마리오는 점점 더 열심히 네루다의 시를 읽게 되고 급기야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해변을 거닐며 시도 써본다. 네루다는 네루다대로 마리오가 시작(詩作)에 꽤 소질도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마리오는 마을 카페에서 일하는 처녀를 보고 첫 눈에 반해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사랑에 빠진 마리오** = 처녀는 부모 없이 숙모하고 사는 섹시하고 도발적인 미인인데 혼자 탁상 핀볼 축구 놀이를 하며 마리오의 혼을 뺀다. (예쁘다 했더니 007 World is Not Enough에 나온 이태리 여배우 Maria Grazia Cucinotta다. 너무 발칙해 보여 이런 영화엔 잘못된 캐스팅이다).



←영화의 포스터. 마리오 역은 이 영화 각본에도 참여한 배우 Massimo Troisi가 맡았는데 심장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촬영을 위해 미뤘다가 촬영 종료 다음 날 결국 41세의 나이로 죽고 만다.

그는 네루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말이라도 해 봤냐고 하니, 그가 그녀에게 한 말은 고작 다섯 마디란다.

무슨 말을 했냐니까 “What’s your name?” 했단다. 네루다가 그건 세 마디밖에 안 된다고 하니, 나머지 두 마디는 그녀의 이름을 되뇐 것, “Beatrice Russo” 라고.

마침내 네루다는 마리오와 함께 카페로 가서 베아트리스가 보는 앞에서 노트북에 그의 이름을 사인해주고 그걸 마리오에게 선물한다. 마리오는 그녀에게 네루다의 시를 읊어주며 그녀의 마음을 빼앗는다.

베아트리스의 숙모는 도대체 조카가 그런 별 볼일 없는 놈과 일(?)을 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웃음이 나비처럼 네 얼굴에 퍼진다(Your smile spreads across your face like a butterfly)” 라고 마리오가 자기에게 말해 주었다니까, 그때부터 걸걸한 목소리의 숙모의 입담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어 좀 길지만 여기 옮겨본다.

▶**숙모의 견제** = “아니, 말한 것 말고, 뭘 했냐니까(No, what did he do)?” “너의 우편 배달부는 입 뿐만 아니라 양손도 있다구(Your postman, as well as a mouth, has two hands)!” “남자가 말로 널 만지면 손으로 만지는 것도 멀지 않아(When a man starts to touch you with words, he’s not far off with his hands).”

“말이 제일 나쁜거야(Words are the worst things ever).” “‘당신의 미소가 나비처럼 나네’ 라고 얘기하는 놈보다 차라리 네 엉덩이를 만지는 술집의 취객이 더 나아(I’d prefer a drunkard at the bar touching your bum to someone who says, “Your smile flies like a butterfly)!”

베아트리스가 “나비처럼 퍼지내요(It spreads like a butterfly!)” 라고 바로 잡아주니 숙모 왈 “나는 것과 퍼지는 건 한 가지야. 네 손가락만 한 번 문질러도 넌 벌써 누워 있을걸(Flies and spreads are the same thing. One stroke of your finger, and you’re on your back).”

“침대에 관한 한 시인이건, 성직자건, 심지어 공산주의자건 아무 차이가 없단다(When it comes to bed,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a poet, a priest or even a communist)!”

하지만 베아트리스는 은유와 네루다의 시로 다가오는 마리오의 품에 결국은 안기고 만다.

숙모의 반대와 마리오가 베아트리스에게 읊어 준 네루다의 관능적인 시 때문에 발생한 신부와의 갈등에도 불구,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한다.

그런데 결혼식 날 네루다는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곧 칠레로 귀국한다.

▶**유복자 남긴 마리오의 죽음** = 이미 네루다를 흠모하게 된 마리오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파블리토(Pablito)로 짓는다. 그리고 네루다의 근황을 신문을 통해 알아가며 편지를 기다리는데….

실망스럽게도 네루다는 이태리 망명 시절이 기억에 남는다면서도 마리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편지라고 온 것은 네루다가 귀국시 남겨두고 간 짐을 부쳐달라는 네루다 비서의 사무적인 편지 뿐.

몇 년 후 네루다는 이 섬을 다시 방문, 베아트리스가 운영하던 카페를 들른다. 6살쯤 난 꼬마가 쪼르르 나오는데 “파블리토!” 하고 엄마가 아이를 부른다. 엄마는 다름 아닌 베아트리스. 그럼 마리오는?

그는 사망했고 파블리토는 유복자로 태어났단다. 마리오는 네루다가 떠난 후 공산주의자로 변신했고, 공산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그의 시를 낭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시위는 경찰에 의하여 격렬하게 진압되었고 이 와중에서 마리오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베아트리스는 마리오가 채집한 그 섬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녹음한 테입을 네루다에게 건네준다. 일전에 마리오가 베아트리스에게 반해 있을 무렵, 네루다가 라디오 기자재를 구했던 일이 있었다.

마리오에게 그 섬의 아름다운 것들을 칠레에 남아 있던 동료 공산주의자들에게 얘기하라고 마이크를 건네주었더니, 마리오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베아트리스 루소!” 라고 한 마디만 한 게 마음에 걸렸던 것.

네루다는 착잡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마리오를 생각하며 섬의 해변을 거니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못 배운 임시 우편배달부와 의식이 있는 시인과의 교제가 차분히 단계적으로 그려지며 차츰차츰 네루다에게 빨려 들어가는 마리오를 보여 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영화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무엇을 잘 찍었는지를 모르겠다.

▶**평범하면서도 잘된 영화** =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 섬의 배경인 바다 만큼이나 잔잔하고, 크게 인상적이라고 할 만한 장면도 없다. 그런데도 영화는 참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왜일까?

재미를 깨는 한 가지 사소한 점. 네루다는 이태리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잘 하는데 아무리 스페인어와 이태리어가 같은 라틴어 계통이지만 은유를 논할 정도로 유창할 수 있을까. 어차피 허구이니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 필립 느와레(Phillippe Noiret)는 또 프랑스 배우라는 점. 내가 이태리어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너무나 그의 이태리어가 자연스럽고 유창하다. 그리고 필립 느와레는 어느 역을 맡겨도 두루두루 잘 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배우다. 실제 네루다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다.

이 배우가 박중훈 주연 한국영화 ‘투 캅스’ 의 원전인 프랑스 영화 ‘My New Partner’ 에서 늙은 형사 주인공 역을 했다는 걸 아시는지? ***

동문 시 감상

저녁 때 내리는 눈발

김태환(법대 46)PA

저녁 때 내리는 눈발

산골 마을 아낙네
옹달샘물 물길
발목 적시고

산골 마을 남정네
등에 진 군불 땔 나무
적시며

산골 마을 할아버지
읍내 장날 귀가길
옷자락 적신다

그러나
눈 내리는 날
저녁 때 내리는 눈발

내리는 눈발에 적시어 지친
산골마을 사람들의 저녁 식사
밥맛을 북돋워준다

오순 도순 따뜻하게
맛있게 ***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7>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그 후부터 우리는 약혼하고 주말여행을 함께 다니기도 했다. 몇 달 후 뉴욕에 여행가서 맨해튼 5가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고 한다. 잠시 후에 지나가는 불쌍한 노인을 도와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 순간 내게서 좋은 성품을 볼 수 있었고 나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다짐했다는 이야기를 결혼한 후에 나에게 들려주었다.

▶결혼후 1남 3녀 = 아내는 내가 미국에 온 다음 해인 1967년 의학전공으로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되었고 나는 대학원을 마친 후 곧 미국의 건축가가 되었다. 우리는 1남 3녀를 두어 아이들도 모두 대학을 마쳤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기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나도 드디어 미국 시민이 되고 말았다.

나는 대학원 다니는 동안 일하던 엘러비 건축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일했다. 제도판에 엎드려 설계도면 그리는 일은 건축설계의 중노동이었다. 지금처럼 컴퓨터의 도움이 없었기에 연필이나 잉크로 매일같이 제도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휘어지고 눈도 나빠졌다.

사무실 일에는 백인들의 텃세가 대단했다. 궂은 일은 모두 내게 밀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초년병들이 겪어야 하는 노장들의 텃세이기도 하다.

그들 사이에서 낄낄대며 주고받는 농담을 알아들을 길 없고 함께 웃지 못하기에 소통이 안 돼 답답했다. 사람들은 동정심을 갖는 눈으로 쳐다보는 듯 했고 자기들의 사투리나 농담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설계하는 실력과 부지런함은 인정받는 듯 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을 잘 만나야 출세한다.

▶Good Samaritan Hospital 설계 = 멀리 캘리포니아 LA의 Good Samaritan Hospital 설계 청탁이 들어왔을 때, 회사에서는 인도 출신 노장 건축가와 젊은 한국 건축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비행기 대륙횡단 여행 6시간이 몹시 지루했다. 여러 차례 오가며 하늘에서 대도시 건물들이 모여 있는 도심을 내려다 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건축기술이 이루어놓은 걸작들을 보는 듯 감탄했고 구름 아래를 내려다 보며 조물주의 창작품 대자연의 예술도 감개무량했다.

←LA에 소재한 Good Samaritan Hospital. USC and UCLA Schools of Medicine으로 1천500여명의 직원에 60여 명의 의사가 근무 중으로 연간 9만3천500여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병원은 윌셔 길에 있고 지금처럼 멕시칸·흑인·아시안이 눈에 띄지 않고 모두 백인들의 도시였다. 병원 직원들과 설계 내용을 상의하고 미네소타 회사에 돌아오면 약 10일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캐나다 출신 건축가를 보조하며 함께 여행했다. 현장에서 회의를 마치면 캐나다 건축가와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 날 본사로 돌아갔다.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무렵에는 겨울철이어서 주말을 콜로라도 스키장에서 지냈다. 미네소타에서 스키 친구들이 몰려오는 때는 함께 겨울 나라 미네소타의 스키 실력을 뽐내고 일요일 밤 비행기로 돌아갔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아무 일 없는 듯 출근했다.

“ ‘남 위해 돈 벌어 주는 자는 3년을 빌어먹는다’ 는 옛말이 생각났다. 내 건축 사무실 계획을 세운지 15년 쯤 걸려 드디어 고용인 직책에서 고용주가 됐다”

▶내 사무실이라야 한다 = 어느 날 ‘세일즈맨의 죽음’ 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주는 숨어서 돈을 벌고 고용인은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직업을 마치는 미국의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남을 위해 돈 벌어 주는 자는 3년을 빌어먹는다” 는 옛말이 생각났다. 나는 그때부터 내 실속을 차리며 회사에 도움되는 일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내 자신의 건축 사무실을 차리려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10년 후 내 사무실 이름으로 건축 설계하는 꿈의 도표를 그렸다. 집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가끔 아내와 함께 들여다 보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는 아내의 격려는 항상 큰 힘이 되었다.

550명이 일하는 미네소타 주의 엘러비 회사에서 120명이 일하는 칼스버거 회사로 옮겨 오하이오 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는 동부 뉴욕 근교나 보스턴에 설계 일들을 맡아 하게 되었고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다른 점을 알게 되었다.

뉴요커는 유럽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백인들의 자존심이 대단했다. 그들은 서부의 흑인·히스패닉·아시안들이 함께 사는 곳을 싸잡아 ‘동물원’ 이라고 불렀다.

엘러비 회사가 남부 뉴올리언스에 분점을 차렸을 때 지사에서 6개월 동안 머물러 일하였다. 미국 내에 프랑스 전통을 이어받은 색다른 지역이다. 미국의 선진 사회에 비하면 후진성이 짙게 풍기는 사회 풍조다.

프랑스 전통 음식점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맛을 내지만, 프렌치 쿼터 길을 걸어가면 째즈 뮤직과 유럽풍의 빈민가를 구경하는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로 붐빈다. 과거 남부에서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른 백인들은 모두 중서부 시카고나 클리블랜드 근교에 숨어 살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체포되는 신문기사를 가끔 본다.

▶마침내 창업 = 120명의 직원을 가진 칼스버거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는 동안 건축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거의 배웠지만, 사무실 운영에 관한 지식은 별로 없었다. 마침 데이톤 오하이오에 40명의 직원을 가진 레빈포터에서 회사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에 파트너 계약하고 그곳으로 이사해 갔다.

3년 동안 파트너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와 세칙, 고용인 법, 고객의 법적 계약관계 등을 배워 고용주의 경험을 쌓은 다음 곧 서둘러 내 사무실을 차렸다.

미네소타에서 세운 10년 계획이 약 15년 쯤 걸렸다. 드디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인 직책을 벗어나 고용주가 되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이미 그들 나이 30대에 창업하여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들이다. 나는 10년 뒤떨어진 40대 중반에 창업하였기에 내 나이 30대였던 정열을 쏟아 이민생활 속에 뒤처진 10년을 만회하겠다고 결심했다.

우선 백인 건축가와 흑인 건축가 동료들을 구해 세 사람이 함께 일을 시작했다. 자본과 고객은 내가 맡고 설계는 백인, 공사 감독은 흑인으로 나누어 시작했다. 전문가 사업을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이다. 회사명을 ‘Architects Associated’ 로 정하고 206 South Ludlow Street, Dayton Ohio 45402에 사무실을 차렸다.

일거리를 찾아 고객을 수주하는 마케팅이 제일 어려웠다. 미국의 도시마다 30개 또는 150개의 건축 사무실이 경쟁하기에 생존경쟁은 치열하다. 나 같은 한국인이 중서부 백인들의 보수적 사회 안에서 서투른 영어실력으로 일과 고객을 찾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다행히도 미국 연방정부에서 어려움 속에 창업하는 작은 회사를 지원하는 보조 정책이 있어 연결을 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작은 관공서 건물 설계부터 시작하였다. 시간이 가면서 과거에 내가 설계한 건축물 주인을 찾아가서 좋았던 경험을 상기시키고 다시 연관을 맺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안정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기업관리에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웠다. 나도 모르게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권위주의 개성이 나타날 적마다 미국 고용인들은 딱 질색을 하였다.

▶문화 차이는 만만치 않아 = 40년 넘은 고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 한 번은 직원들이 무더기로 회사를 옮겨 떠나버렸다. 어떤 직원은 내 방에 들어와 내게 욕을 싫컷 하고 사표를 내놓기도 했다. 그들과 함께 분노를 느끼기보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 자신의 인간개조가 필요했다. 지도자 훈련도 받아보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어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했다.

듣기 싫던 아내의 잔소리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고마워졌다. 곱슬머리 최씨 고집이 차츰 무릎 꿇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해졌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목숨처럼 여겨졌다. 산에 가서 도를 닦는 수련을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듯 했다. 이웃과 동화되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실습을 했다.

함께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한 묶음이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대학교 건축, 병원 건축, 교도소, 공공시설, 공원, 야구 경기장 등의 큰 설계에는 직원이 50여 명까지도 필요했다. 토건, 구조 기술, 냉난방, 수도와 하수도, 기계기술 회사, 실내 디자인까지 하면 100여 명의 직원과 그들 가족 400여 명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93년에 나이 61세의 짐 스나이더가 6.25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우려는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는 공산군 침략에서 우리 한국을 구해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누를 길 없어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짐 스나이더는 “18세 젊은 나이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 땅에 발을 붙이고 장진호까지 진군하였다가 중공군에 의해 포위됐었다” 고 했다. 1만 5천여 명의 미 해병대원, 2천여 명의 미 육군, 200여 명의 영국 해병, 그리고 한국군 800여 명이 약 12만 명의 중공군에 의해 포위돼 발이 묶였다. 이들 미군 대부분은 캠프 캘리포니아 펜들턴에서 훈련을 받고 파병되었다가 1천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중 6천여 명이 추운 겨울의 동상으로 손발 얼굴에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고위 장성을 비롯한 수천 명이 잡혔다가 후에 포로 교환으로 귀향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진해서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 후에 보이나비치 오하이오 주지사 후원으로 1995년에 오하이오 주의 6.25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완성되었다. 데이턴의 마이애미 강변에는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발길을 잇고 있다.***

<계속>

대한민국 새해 밝는다!

최용완

2014 갑오년 푸른 말띠의 해
수백만의 동포와
수만 우방 젊은이들
자유 민주 위해 목숨 바쳐
피 뿌린 이 땅

한강의 기적 일궈내는
우리의 보금자리
‘빨리빨리’ 열정과
흥에 넘치는 ‘끼’

어려운 삶 속에
부모들의 자식 교육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한글 문자
기술계에 앞서가는
슬기로운 두뇌

태극기 오르고 애국가 울리면
감동에 복받치는
재외동포 세계는

백인 우월주의 합중국에
흑인 대통령
남존여비 나라에 여성 대통령

마지막 몸부림치는
침략자 일본
달에 착륙한
중국의 우주위성

고모부 처형하고
철없는 조카의 냉소
공포 정치 꿈꾸는
어두운 북한 군부

남한 안에 판치는 인민군 학교
북한 지령의 탈을 쓴
남한 국회의원

이 땅의 검은 구름 걷어 치우고
배달겨레 맞으려
청마(靑馬)를 타고
한강 하늘에 날개 편
민족중흥 찬가

인류의 새벽길에
평화의 횃불 밝혀라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원한 조국

나의 동방 여행기<7>

청나라 고도(古都) 심양(瀋陽)에서

김일훈(의대 51) CH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지난 2000년 8월 KAMA(한미 의사회)주최 백두산 순례단 일행이 처음 밟은 중국 도시가 '심양(瀋陽)' 이다.

심양은 일제 때 '봉천(奉天)' 이라 불리었으며 현재 중국서 4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강의 북쪽을 '양(陽)' 이라 하며 심양은 '심하(瀋河)의 북쪽 땅' 이란 의미로 서울의 옛 이름 한양(漢陽)이 한강 북녘을 뜻하는 것과 같다.

▶청나라의 옛 도읍 = 조선 땅 북녘의 여러 여진(女眞)족속을 통일한 오랑캐의 두목 누루하치는 1625년 심양을 수도로 한 국가 후금(後金 청나라의 전신)을 창업하여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고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뒤에도 '황제의 선조 묘가 있는 곳' 이라 해서 심양은 청나라의 옛 도읍(古都)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KAMA의 '성산(聖山 백두산)순례' 를 지원하면서 또 한 가지 큰 기대를 건 것은 심양을 찾아보는 일이었으니, 지난 1945년 일제치하에서 우리 한국이 해방되던 해 그곳 심양서 중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감수성 많은 소년기를 중국(옛 만주)에서 보냈으나 전쟁 말기라 세상이 어수선하여, 신나는 일이라곤 전혀 없었고, 다만 우울한 나날을 보낸 기억만이 있을 따름이다.

공장이나 작업장에 동원되기 마련인 학교생활이란 것도 무미건조하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말이 되면 한 가닥 희망이 있었으니, 학교 기숙사를 빠져 나와 친절한 상급생 따라가는 명소(名所)산책이었으며 가는 곳은 항상 정해진 듯이 심양 고궁(故宮)과 북능(北陵)이었다.

고궁은 누루하치의 옛 궁전이며 북능은 그의 아들이자 청나라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태종(혼타이치)의 무덤이 있는 공원인데, 심양의 이 두 명소가 이번 여행의 관광지로 지정돼 있었다.

▶야만의 여진족 = 지금 지구상에서 멸종해가고 있는 여진족은 옛날 왜놈 못지 않게 우리 민족을 괴롭혀 온 족속이었다. 그들은 야만인 즉 '금수와 같은 인간' 이라 하여 우리 조상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오랑캐로 한자로 동물 변이 있는 '적(狄)' 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유전학적으로 우리 조선족과 가장 유사한 민족이라고 한다. 즉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4촌' 이란 말이다.

억지 말 같지만, 여진족은 역사상 조선족 못지 않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선정에 의하면 지난 1천년 대에 인류에 가장 크게 공헌한 으뜸가는 업적은 '금속 인쇄기(movable metallic printing)의 발명' 이라 했으며 발명자는 코리언이라 판명되었다(참조: 본지 2008년 9월호의 '몽고천재-우리 자랑 인쇄술).

그런데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여진족도 코리안 못지 않은 우수한 종족일 뿐만 아니라 세계 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 '청나라' 즉 중국 지배가 바로 그것이다. 인구 50만 명 미만의 야만족이 광대한 대제국 중국대륙과 몇 억 인구의 한(漢)족을 정복하고도 무려 267년간이나 지배하였으니 그들은 전략과 전투면에서 천재적 부족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세계사의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 "열하일기에도 "심양은 본디 우리나라 땅이다. '수' 와 '당' 때 고구려에 속했다" 고 적혀 있으니, 잃어버린 옛 강토에 대한 아쉬움은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세계적 우수 여진족 = 문화대국 중국 땅에 군림하면서도, 오랑캐의 후예인 역대 청나라 황제들은 한(漢)족을 문화적으로 다스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5천년 중국 역사상 문화면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황제는 청나라 건륭(乾隆)황제와 강희(康熙)황제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 조상들이 금수(동물)와 다를 바 없다고 멸시했던 여진족은 이렇듯 당당한 위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심양 도착 첫날 우리는 심양의 명소인 고궁(故宮)과 북능(北陵)을 찾았으며, 여행의 피로도 아랑곳없이 우리 일행 모두들 밝은 표정들이었다. 해방 직전 정확히 말해서 지금(2000년도)부터 55년 전의 나는 철부지의 소년이었던 지라 역사에는 전혀 문외한이었으며 다만 전쟁 말기의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로 거닐었던 명소였는데, 이제 고희 나이에 역사 지식을 지니고 '립 밴윙클' 처럼 옛 보금자리에 돌아온 감회는 너무나 흐뭇했다.

▶심양의 명소 =7월 29일 우리 일행을 실은 KAL기가 심양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내 나이를 잊어버린 듯 옛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으니 말이다. 이 공항은 '최후의 황제' 푸이가 일본으로 탈출하려던 찰나 소련군에 체포된 곳인데,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다음은 심양 명소관광을 요약해서 적어본다.

첫날 첫 관광여정으로 심양 고궁에 안내되었다. 청나라가 북경에 천도하기 전에 1대(태조 누루하치)와 2대(태종 혼타이치)의 두 황제가 거처한 궁전이다.

이 고궁에는 6만 평방미터의 대지에 100개의 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북경 자금성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지만 서울의 '조선 궁전' 보다는 훨씬 크다.

누루하치가 건국한 북방의 부족국가를 상징하는 궁전이기도 하며, 얼마 가지 않아 중국 대륙을 제압한 대제국이 되어 황궁(皇宮) 이 북경의 자금성(紫金城)으로 이동됨에 따라, 심양 고궁은 제2의 황궁으로 남게 된다.

자금성과 더불어 '고궁 박물관' 역할을 하며, 각 건물에는 청나라 건국 초기의 많은 유물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고궁은 만주족(여진) 건축물이란 점에서 특색이 있으며, 또 훼손되지 않고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궁전으로 알려져 있다.

옛 중국 기행문의 압권이라 할 220년 전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박지원)' 에 기록된 궁전 이름과 모습 그대로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정문의 이름은 태청문(太淸門)이라 했는데 그 문을 들어서서 전전(前殿)에 이르니 숭정전(崇政殿)이라는 현판이 있고, 왼편에는 비룡(飛龍閣), 오른편에는 상봉각(翔鳳閣)이 있으며, 그 뒤는 높은 다락이 있는데 이름은 봉황루(鳳凰樓)다. 경비병이 길을 막아 할 수 없이 문밖에서 멀리 바라보니, 높은 누각 복전과 겹겹이 둘린 회랑들은 모두 오색찬란한 유리기와로 지붕을 이었다. 2층의 8각 집을 대정전(大政殿)이라 하였고'.

그 두터운 책 '열하일기' 에는 관광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됐을 뿐이나, 박지원의 그 책은 그 형안의 관찰력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엮어낸 '문명비평서' 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전(古典)중의 고전' 이 되어있는 것이다.

다음은 청 태종 즉 혼타이치와 그 황후가 묻혀있는 북능(北陵)공원을 둘러보았다.

시내에서 머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항상 관광객이 붐비는 곳이다. 450만 평방미터나 되는 넓은 대지에 숲이 우거지고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며, 정문에서 능에 이르는 기나긴 참관길 주변에는 각종 동물들의 돌조각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서탑을 지나왔다. 시간 관계로 심양의 코리아 타운 서탑을 구경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병자호란의 민족적 애환 = 심양은 400년 전 병자호란 때 수많은 우리 조선 포로와 소현세자를 비롯한 인질과 전범 등 수만 명의 우리 선조들이 유폐생활을 하던 곳으로 우리와 유서깊은 고장이다.

현재 심양에는 연변 다음으로 많은 조선족이 1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서탑거리를 중심으로 조선족이 집결되어 있다.

열하일기에도 "심양은 본디 우리나라 땅이다. '수' 와 '당' 때 고구려에 속했다" 고 적혀 있으니, 잃어버린 옛 강토에 대한 아쉬움은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심양서 버스로 한 시간 가량 달려 '본계' 라는 곳에 가서 세계에서 두번째 크다는 '수동(水洞 water cave)' 구경을 했다.

수동의 길이는 2.8킬로미터나 되며, 미국이나 중국서 본 어느 것보다 그 규모가 크고 웅장했는데 모터 보트로 수로를 왕래하며 보는 경치는 천하절경이었다. 이날 저녁 우리는 심양을 떠나 다음 행선지 연변으로 향했다.

외람되게 내 개인 이야기를 더 추가하자면, 8.15 해방 직전(8월 9일)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전하여 북녘 국경에서 물밀듯이 남으로 진격해 왔을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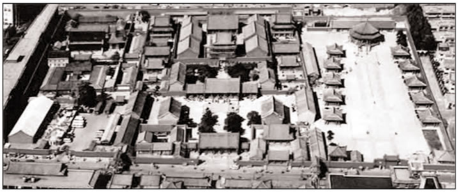
모두들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나는 심양역에서 일본군을 전쟁터로 싣고 가는 마지막 군용열차에 매달려 부모가 있는 길림으로 갔으니 북쪽 전투장 쪽을 향하여 간 셈이다.

은퇴 후 '아들이 사는 플로리다로 가느냐, 아니면 딸이 있고 20년 전 정들었던 시카고로 다시 가느냐' 는 문제로 우리 부부는 망설이다가, 결국 바람의 도시 시카고를 향해 북행을 감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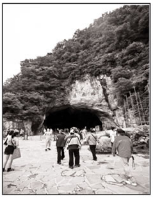
세태에 역행하는 '북행' 은 나의 '운명적인 행로' 인지도 모르지만, 이 길이 마지막 인생 길인 줄 안다.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어진 나의 인생 방랑은 이제 고희 나이에 회귀본능, 귀소본능으로 옛 것을 찾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전원시인 도연명(陶淵明)은 그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귀불귀(歸不歸)' 라 했으니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는 뜻이 담겨 있지 않는가!***



↑심양 고궁(瀋陽 古宮)의 조감도. 심양 고궁은 청 태조 누르하치와 태종(皇太極)이 창건한 황궁이다. 일명 성경황궁(盛京皇宮)이라고도 불리는데 건륭(乾隆)때 중건했으며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황궁은 북경 자금성과 이 심양 고궁의 둘 뿐이다. 부지면적 6만여㎡에 건축물이 114개로 아주 거대한 황궁이다. 644년 청나라가 지금의 북경으로 천도한 후에도 이 심양 고궁은 제2의 황궁으로 중시되었다.



←심양(瀋陽)의 코리아 타운 서탑(西塔)가 모습이다. 연변 다음으로 많은 13만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우리 한국의 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다.

←←심양의 본계수동 입구. 본계수동은 석회암으로 된 수중 동굴로 길이 5.8킬로미터 중 현재 2.8킬로미터가 개발돼 있다고 한다. 동굴의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38미터에 폭 70미터로 배를 타고 가면서 관광하고 있다.

여행기

아리조나 이야기 <1>

이건일(의대 62)OH

아리조나, 왠지 이국적이고도 사막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이름인데 내가 이곳에 관해 아는 것이 무엇일까? 1955년대 명국환이 부른 가요 '아리조나 카우보이' 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구미 당기는 제안 = 그 멀고도 아득하게 느껴지는 곳에 처음 간 것이 벌써 15년 쯤 됐는가 보다.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고남규 군이 같은 오하이오주에 살 때였다. 12월 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추운 겨울 날 그가 전화했다.

"아리조나 가본 적 있어?"

"없는데."

"그럼 한 번 가보지 않을래?"

"어떻게?"

"사실은 그곳에서 비뇨기과 학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가게 되어 자네가 대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래?"

"비용은 제약회사에서 부담하니까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몸만 오면 돼."

참으로 구미 당기는 제안이었다. 그 때만 해도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었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었다. 가서 나흘 묵으면서 골프도 좀 치고 또 그후 곧 있을 22회 동기 아리조나 골프 여정에 합류하자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서둘러 휴가계획 변경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당직 일정에서 그 한 주일을 전부 뺐다.

"Sonora사막에 살던 Hopi·Apache·Navajo·Tohono O'Dham 인디안의 슬픈 역사, 백인들에게 멸종 직전까지 갔던 그들의 역사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을 참기 어려웠다"

아내는 집에 두고 혼자 함박눈이 펄펄 날리는 날 신시내티를 겨우 출발해 아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도착해보니 차창 밖의 가로수는 전부 오렌지 나무들, 노란 오렌지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눈 구덩이에서 겨우 기어 나왔는데 여기는 오렌지가 열려 있다! 공연히 화가 끓어 오른다. 왜 나는 하필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살고 있나?

▶피닉스 호텔 = 예약돼 있던 피닉스 Biltmore Hotel로 향했다. 이 호텔은 하버드대 출신으로 Frank Lloyd Wright의 제자였던 Albert Chase McArthur(Chicago 에서 1907~1909년 사사)가 설계해 건축한 역사적인 건물이다.

방에 들어가보니 운동장만한 크기에 더블 베드가 두개나 있었다. 그 날 밤 늦게까지 기다렸으나 남규 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임금같이 독방을 즐길 수 있었다.

다음 날 도착한 남규 이야기로는 오하이오 북쪽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단다. 나의 아리조나 초기 견문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후 몇 번의 골프 여행, 아들과 Sedona, Grand Canyon 관광을 더 갔었다.

1974년 군 복무 시절 수도 통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당시 수도의대를 졸업하고 입대해 군의관으로 중위 달고 전방 근무하다 어찌 하여 단기 마취 수련을 하고 삼척 이동 외과병원에 근무하던 조 선생을 알게 된 것이다.

▶군의관 시절 만난 조 선생 = 그는 틈만 나면 우리 과를 찾아와 마취에 관해 물어 보곤 하여 친해지게 되었다. 사람이 좋아 보이고 직선적이고 활달하며 심성이 곧은 사람으로 보여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오죽하면 내가 누이 동생 중매 서고 싶어 넌지시 물어 보았다.

"조 선생, 만나는 여자 있어? 중매 들고 싶은데."

"저는 어머님이 이미 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좀 실망이 되었으나 어쩌랴, 선약이 있으니. 그러나 그 와의 관계는 계속 되었다. 제대 후 미국으로 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리조나 시골 Sierra Vista Mountain View에서 마취과 개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이 왔다.

내가 미국행을 결심하고 병원 자리를 찾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리조나에 마취 수련 자리가 있나 물어본 것이다. 그의 대답은 잘 모르겠고 다른 곳을 알아 보라는 것이었다.

그 후 내가 신시내티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가끔 격려 편지나 전화가 왔었다. 몇 번씩이나 다녀 가라는 그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다가 빌트모어 호텔에서 나와 주광국 군이 묵던 힐튼호텔 그의 방에 빈대 붙어 묵으면서 광국이의 심한 코골이를 참아가며 얻어 자면서 며칠 지내다가 드디어 조 선생을 찾아 갔다.

▶조 선생과 인연 = Phoenix에서 차로 두시간을 달려 Tucson 그의 집을 찾아 갔는데 그곳에서 제일 좋은 주택가인 Lowes Ventana Canyon Golf Villa 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골프는 치지 않는다" 고 했다.

점심 저녁 얻어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정상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나는 다시 휘닉스로 돌아왔다. 그 것이 벌써 15 여년 전 일이다.

그 후로도 그와 인연은 계속됐다. 매년 연말이면 아리조나 달력을 보내왔고 어느 해는 집에서 키운 레몬을 한 상자 보내오기고 하였고 작년에는 집 뒷뜰에서 키운 대추를 잘 말려 보내주었다.

하도 새들이 와서 대추를 쪼아 먹는 바람에 망을 씌워 놓았는데 나무 꼭대기에 망을 씌우기 위해 Bobcat 까지 빌렸다고 했다. 이 오하이오의 지루한 겨울에 잠시라도 추위를 피해 보려고 이번 겨울에는 오랫만에 Tucson으로 조 선생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와 7시 비행기로 Minneapolis를 경유, 투슨에 도착하니 오후 2시다. 마중 나온 조 선생을 만나니 반갑다. 헌데 나는 그가 SUV나 트럭 정도 몰고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4인승 폴쉐다.

그에 대한 나의 관념이 약간 수정되었다. 나중에 들어 보니 그에 얽힌 이야기가 많았다.

그의 집에 가보니 전에 살던 같은 동네인데 약간 더 언덕 윗쪽에 있는 거대한 단독 주택이었다. 아리조나 같은 더운 사막 지역에서는 언덕 위로 올라 갈수록 집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낮은 지역보다 온도가 5 ~ 10 F 낮아 지니까 말이다.

점심 저녁 잘 얻어 먹고 이 집에서 한 20 km 떨어진 정해 놓은 숙소에 들었다.

▶인디안의 슬픈 역사 = 다음 날부터 이틀은 우리 둘만 관광을 다녔다.

우선 University of Arizona 에 있는 Arizona State Museum 에 들렀다. 이 지역 Sonora사막에 살던 Hopi·Apache· Navajo·Tohono O'Dham 인디안 부족의 불행하고 슬픈 역사, 백인들에게 밀려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그들의 역사를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참기 어려웠다. 왜 인간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동물보다 같은 인간들을 박해해야 하는 건지?

다음으로 찾은 곳은 Saguaro 국립 공원인데 각종 선인장으로 가득차 있었다. 사화로 선인장은 아리조나 주 식물이며 그 꽃은 주화(州花)다. 열매는 인디언들의 식품이었으며 그것으로 담근 술은 제사에 쓰였다.

사화로 선인장은 주 법으로 파내거나 잘라버리는 것이 금지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화로는 150년까지 살기도 하며 옆으로 나오는 가지는 15~25년이 지나야 볼 수 있다. 따라서 곁가지가 많을수록 늙은 나무다.

아리조나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거친 곳이 아니었다. 선인장과 작은 관목들 사이로 로드 러너가 뛰어다니고 도마뱀이 숨어 있으며 메추리나 다른 새들이 지저귀는 황량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4~5월에 선인장 꽃들이 핀다고 한다.

이곳에 와보고부터 사막에 대한 나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왔다.

다음 날은 차로 두시간 거리에 있는 Chiricahua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작년 9월 오찬규 선생과 메인주에 있는 Acadia 국립공원에 갈 때 산 Senior 국립공원 패스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아주 잘 쓴 10달러였다. 일생 동안 미국내 모든 국립공원은 무사통과니 말이다.

입구에서 패스를 보이고 안내 지도를 얻어 공원 안으로 들어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보인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지보다 나무가 좀 많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계곡 모퉁이를 돌자 기암 괴석들이 줄줄이 나타난다. 차를 몰아 굽이굽이 도는 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니 차가 달랑 두대 정차해 있다.

지도에 있는 대로 짧은 hiking trail을 따라 걸으며 사진을 연상 찍어댔다. 아리조나 관광 사진에 꼭 나오는 그런 기묘한 바위들이 무수히 서 있다. 정상에서 좀 내려와 grotto로 가는 하이킹 트레일도 걸으며 사진을 많이 찍었다.

▶만족스런 여행 = "여기 오기를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경치 하나는 절경이었다.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 왔다. 투슨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었고 멕시코 국경과는 그것보다 가까운 듯 하였다. 멕시코로부터 오는 마약의 주요 루트라 곳곳에 검문소가 보였다.

조 선생은 이 곳에 침실 4개 짜리 단층집에 살고 있었는데 개업 후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그후 딸애들 학교 문제로 투슨에 집을 한 채 더 사고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집 뒤뜰은 각종 공구로 가득차 있었다. 골프를 치지 않는 대신 취미는 공구 사서 무어든 고치는 일인가 보았다. 집의 마루도 자기가 다 깔았고 웬만한 plumbing은 손수 해결하나 보다.

차도 트럭 두대, SUV 두대, 폴셰 2인승, 4인승 두대, 토요다 캠리 한대 등 전부 일곱대로 윤활유 교환 등 기본 정비는 손수 한다고 했다. 내게 빌려준 Toyota 4 Runner도 10년이 넘었다는데 엔진 소리가 아주 조용히 잘 달렸다.

집 뒤뜰에 보니 대추 나무가 네 그루나 있었다. 점심을 속칭 금비 라는 굴비 정식으로 잘 얻어 먹었다. 한 20 여년만에 처음으로 먹어 본 듯 하다.

식사 후 가까운 곳의 마을을 돌아 보기로 하였다. 전에 광산촌이었고 한 때는 이곳 Cochise 군 군청 소재지였다는 Bisbee부터 들렀다. 작은 산골마을로 협곡을 따라 발전한 곳이다. 마을을 통과하는 길을 따라 언덕길을 조금 걸어 올라 가니 Grand Hotel이 나온다.

마침 화장실도 갈 겸 들어가 보았다. 아주 옛날식으로 단장된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saloon 이다. Bar tender인 아줌마에게 물어 보니 바 겸 호텔 프런트 데스크란다.

내부는 한 20년 된 것이고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왔다.

한 30분 운전하여 들른 곳은 그 유명한 Tomb Stone이다.

<계속>

↑Saguaro 국립공원은 Saguaro선인장을 비롯해 각종 선인장으로 가득차 있다. 아래 사진은 Saguaro 선인장의 꽃과 열매로 아리조나 주 식물이며 꽃은 주화(州花)다. 열매는 과거 인디언들의 식품이었으며 술을 담가 제사에 쓰였다. 선인장은 주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Hopi 족 처녀가 부족 전통의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3.7.1 ~ 2014.1.23)

동창회비

(2013.7~2014.6)

▶Alaska
윤제중(농대 55)
▶Arizina
김영철(공대 55)
박양세(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정문필(사대 56)
지영환(의대 59)
진명규(공대 70)
▶California
강경수(법대 58)
강동순(법대 59)
강동원(수의 75)
강명식(의대 61)
강영호(의대 63)
강윤희(간호 72)
강재호(상대 57)
강정수(문리 61)
강정자(간호 61)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천호(사대 58)
강호석(상대 81)
강희창(공대 57)
고석원(문리 50)
고영순(음대 59)
고용규(의대 67)
고재천(공대 57)
곽용길(문리 59)
권기상(대원 72)
권길상(음대 45)
권영재(의대 57)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경숙(간호 68)
김경순(대원 64)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광하(치대 46)
김교복(농대 63)
김균빈(법대 56)
김기선(간호 55)
김기수(공대 74)
김기태(의대 52)
김기형(경영 75)
김길평(상대 62)
김낙구(상대 67)
김난경(음대 66)
김난영(공대 53)
김동산(법대 59)
김동석(음대 64)
김동호(농대 58)
김명원(의대 62)
김명환(문리 67)
김명희(간호 67)

김병곤(공대 58)
김병완(공대 58)
김병호(상대 57)
김상엽(공대 57)
김상온(약대 21)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성복(공대 59)
김성호(　　)
김성환(의대 65)
김수백(치대 49)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법대 54)
김순덕(간호 61)
김순자(치대 57)
김양희(음대 77)
김영기(의대 54)
김영춘(수의 64)
김영한(법대 54)
김영희(사대 56)
김영희(간호 66)
김완기(사대 50)
김원경(약대 59)
김원탁(공대 65)
김원호(약대 63)
김용수(경영 74)
김윤범(의대 58)
김의신(의대 60)
김은희(치대 46)
김익창(의대 51)
김재영(농대 62)
김　정(　　)
김정민(상대 58)
김정애(간호 69)
김정희(음대 56)
김종표(법대 58)
김진호(약대 64)
김창무(음대 53)
김철한(공대 57)
김현철(의대 57)
김혜숙(약대 77)
김홍묵(문리 60)
김희재(사대 66)
김희창(공대 64)
나두섭(의대 66)
남승채(공대 66)
남장우(사대 56)
노명호(공대 61)
노문희(사대 59)
럼원규(문리 57)
문병길(문리 61)
문병하(법대 51)
문석훈(농대 59)
문인일(공대 51)
민경탁(의대 61)
민병곤(공대 65)
민병돈(문리 57)

민영기(치대 61)
박경룡(약대 63)
박노면(사대 50)
박병원(의대 49)
박성옥(상대 58)
박순자(간호 60)
박영옥(사대 55)
박우성(사회 77)
박원준(공대 53)
박의순(상대 53)
박인수(농대 64)
박인창(농대 65)
박임하(치대 56)
박자경(사대 60)
박정모(문리 66)
박제인(약대 60)
박종성(법대 53)
박종수(수의 58)
박찬호(농대 63)
박창선(공대 55)
박취서(약대 60)
박태호(치대 66)
박홍근(공대 64)
방명진(공대 73)
배동완(공대 65)
배병옥(음대 58)
배옥례(간호 55)
백산옥(간호 77)
백소진(문리 55)
백승호(치대 55)
백옥자(음대 71)
백혜란(미대 70)
부영무(치대 72)
서동영(사대 60)
서영석(문리 61)
손기용(의대 55)
손창순(공대 69)
손학식(공대 61)
신광재(공대 73)
신대식(상대 60)
신동국(수의 76)
심상온(상대 54)
심진숙(간호 68)
안백영(공대 75)
안병일(의대 63)
안병협(공대 58)
안호삼(문리 58)
양명교(의대 55)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엄세옥(간호 69)
염동해(농대 74)
오문성(법대 56)
오재인(치대 33)
우춘식(상대 61)
유두영(공대 55)
유석홍(상대 61)
유희자(음대 68)

윤경민(법대 55)
윤병석(사대 51)
윤성희(사대 58)
윤성희(공대 74)
윤용길(공대 55)
윤정옥(약대 50)
이광재(공대 59)
이교락(의대 53)
이근웅(의대 61)
이근원(공대 67)
이기재(문리 52)
이명선(상대 58)
이문상(공대 62)
이미정(의대 76)
이방기(농대 59)
이범식(공대 61)
이범진(상대 60)
이병무(치대 70)
이병준(상대 55)
이상문(의대 54)
이성숙(공대 56)
이성형(공대 57)
이승재(상대 67)
이영송(치대 63)
이영수(상대 60)
이영신(간호 77)
이영일(문리 53)
이우근(음대 50)
이원익(문리 73)
이원택(의대 65)
이은경(간호 80)
이익삼(사대 58)
이일복(공대 64)
이장길(치대 63)
이장우(문리 72)
이재권(법대 56)
이재선(농대 58)
이정근(사대 60)
이정옥(공대 52)
이정희(음대 55)
이종걸(상대 53)
이종묘(간호 69)
이준식(의대 61)
이준호(상대 65)
이중희(공대 53)
이진주(문리 55)
이창무(공대 54)
이채진(문리 55)
이청광(상대 61)
이해영(공대 56)
이호진(간호 74)
이홍기(공대 62)
이홍표(의대 58)
이희순(음대 64)
이철훈(치대 60)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용오(의대 57)
임정란(음대 76)
임진환(치대 68)
임창희(공대 73)
임화식(치대 59)
임희례(간호 73)
장기열(치대 55)
장기창(공대 56)
장기화(치대 57)
장동석(문리 66)
장　준(인문 85)
장진성(약대 66)
전경배(의대 75)
전낙관(사대 60)
전병련(공대 54)
전상옥(사대 52)
전희택(의대 58)
정규남(공대 52)
정낙영(음대 52)
정대연(치대 74)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두호(공대 64)
정수만(의대 66)
정예현(상대 63)
정원훈(상대 38)
정인환(법대 54)
정재훈(공대 64)
정진수(공대 56)
정진화(약대　)
정창희(법대 54)
정철룡(의대 55)
정태무(사대 44)
정현진(간호 68)
정형민(문리 71)
조동준(의대 57)
조만연(상대 58)
조상하(치대 64)
조성윤(법대 46)
조임현(간호 72)
조재길(사대 61)
조정시(공대 60)
조태준(문리 59)
주정래(상대 65)
진성호(공대 64)
차기민(공대 85)
차재철(의대 62)
차종환(사대 54)
최경선(농대 65)
최경희(사회 83)
최리나(생활 72)
최상집(치대 65)
최승륜(상대 53)
최용완(공대 57)
최재윤(문리 54)
최종권(문리 59)
최　철(의대 62)
탁혜숙(음대 67)

하기환(공대 66)
한상봉(수의 67)
한성구(상대 53)
한종철(치대 62)
허영진(문리 61)
현기웅(문리 64)
현순일(문리 58)
현순화(　56)
홍병익(공대 68)
홍선애(미대 62)
홍유현(음대 61)
홍춘만(문리 58)
황규혁(공대 50)
황동하(의대 65)
황준오(치대 70)
▶Chicago
강영국(수의 67)
강창만(의대 58)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곽영로(수의 72)
구경회(의대 59)
권호연(문리 57)
김갑조(간호 51)
김갑중(의대 57)
김경일(공대 58)
김광천(　47)
김성일(공대 68)
김연화(음대 68)
김영호(의대 71)
김용우(공대 58)
김일훈(의대 51)
김정숙(약대 51)
김정주(문리 60)
김현주(문리 61)
노영일(의대 62)
문병훈(사대 47)
민영기(공대 65)
박기정(간호 72)
박영준(문리 67)
박용순(의대 53)
박창용(공대 87)
박창욱(공대 56)
배영섭(의대 54)
백영구(대원 60)
서상헌(의대 55)
소진문(치대 58)
손인섭(의대 68)
송재현(의대 46)
신석균(문리 54)
안은식(문리 55)
유태종(공대 50)
윤병애(약대 50)
윤봉수(간호 69)
이덕수(문리 58)
이동균(공대 75)
이상오(문리 61)
이소희(의대 61)

이승자(사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윤모(농대 57)
이정일(농대 57)
임영신(의대 54)
임이섭(미대 54)
임현재(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　홍(문리 61)
정병옥(의대 55)
정승훈(공대 60)
정영숙(사대 59)
조대현(공대 57)
조봉완(법대 53)
조형원(약대 50)
최혜숙(의대 53)
한의일(공대 62)
한재은(의대 59)
함성택(문리 55)
현윤석(법대 64)
홍영석(공대 58)
홍인표(미대 60)
▶Florida
김덕윤(수의 68)
김택희(문리 55)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신상재(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이정필(의대 60)
이중오(의대 58)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4)
황현상(의대 55)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융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김학래(공대 60)
방창모(　　)
서안희(간호 63)
손종수(의대 50)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유성무(상대 66)
유우영(의대 61)
이영진(공대 76)
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60)
정경근(농대 59)
정양수(의대 60)
정인태(의대 64)
정일화(상대 55)
진창건(의대 55)

2014.7~2015.6 회비선납

▶California
김동산(법대 59)
김혜숙(약대 77)
신대식(상대 60)
남장우(사대 56)
차재철(의대 62)
▶Chicago
강영국(수의 67)
▶Florida
황현상(의대 55)
▶Hawaii
김승태(의대 57)

▶Heartland
김경숙(가정 70)
이상강(의대 70)
▶NY & NJ
김정순(법대 53)
이재진(의대 59)
이전구(농대 60)
▶Ohio
최인갑(공대 57)
▶Wa.DC
김시환(공대 71)
▶Wa.States
김선호(사대 59)

최재학(　　)
최종진(의대 63)
▶Hawai
김승태(의대 57)
김용진(공대 50)
김창원(공대 49)
문세화(법대 57)
송호민(문리 52)
유재호(문리 59)
전영표(문리 55)
장광수(사대 51)
최경윤(사대 51)
▶Heartland
곽노균(상대 51)
구명순(간호 66)
권준희(생활 87)
김명자(문리 62)
김경숙(가정 70)
김제권(사대 68)
도태형(사회 93)
배규영(사대 68)
백산옥(문리 51)
이경배(　　)
이상강(의대 70)
이상문(상대 57)
이주현(미대 62)
정민재(농대 70)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권순관(공대 60)
김국화(공대 56)
김원정(의대 69)
김정일(의대 67)
남성희(의대 58)
문광재(의대 62)
박준환(의대 55)
서경원(공대 53)
이상설(의대 52)
정　태(의대 57)
서영일(의대 61)
신강근(공대 66)
신동화(문리 55)

유효명(의대 58)
육대식(의대 61)
윤효윤(의대 63)
이상설(의대 58)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이영모(의대 53)
임병훈(의대 54)
조문희(공대 56)
채무원(의대 59)
최병두(의대 52)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영남(사대 53)
김태환(의대 58)
남세현(공대 67)
박정선(농대 60)
변우진(인문 81)
성옥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이창재(문리 56)
주한수(수의 62)
▶Las Vegas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이순환(의대 53)
이장섭(의대 52)
최영식(법대 59)
최창식(의대 61)
▶New England
강동순(법대 59)
고일석(보대 69)
김경석(공대 70)
김경일(공대 58)
김만옥(약대 56)
김명자(문리 62)
김문소(수의 61)
김신형(의대 50)
김은한(의대 60)

<27면에 계속>

***동문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관악 후원금 등 각종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세요.**
snuaausa12@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3년 7월 ~ 2014년 6월)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 $200 □	2013.7~2014.6 $75 □	2013.7~2013.12 $120 □	명함크기(3.5" x 2") $120 □	모교 발전기금 $ □
연 $500 □	2014.7~2015.6 $75 □	2014.1~2014.6 $120 □	1/6면 (5" x 4.5") $200 □ 1/3면 (10" x 4.5")$400 □	Brain Network 후원금 $ □
연 $1,000 □			1/2면 (10" x 6.7")$600 □ 전면 (10" x 13.5")$1000 □	지부 분담금 $ □
기타 $ □			전면(Back 10" x13.5")$1500 □	종신 이사비 $ 3,000 □

보낼 곳:1952 Gallows Rd.,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703-462-9083>로(　) Check No.(　　)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26면에서 계속>

김제호(상대 56)
노인규(의대 52)
박영철(농대 64)
박종건(의대 58)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의 62)
이강원(공대 66)
이회규(공대 69)
장수인(음대 76)
정선주(간호 68)
정승훈(공대 60)
정태진(의대 53)
최선희(문리 69)
한승원(미대 60)
▶N.Carolina
김경덕(공대 75)
김기현(문리 52)
마동일(의대 57)
신두식(의대 58)
우양구(법대 70)
이범세(의대 56)
이석형(사대 56)
이종영(음대 58)
이항열(법대 57)
한광수(의대 59)
홍 훈(자연)
▶NY & NJ
강석권(법대 61)
강성권(공대 65)
강에드(사대 60)
강영선(공대 50)
강재룡(의대 51)
강태원(상대 62)
계동휘(치대 67)
고강희(약대 56)
고순정(간호 69)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선섭(공대 61)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권용구(상대 61)
김경애(간호 54)
김광현(미대 57)
김광희(간호 69)
김동욱(법대 55)
김동진(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석(의대 53)
김병숙(보대원)
김봉련( )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성현(약대 56)
김세중(공대 50)
김세환(공대 65)
김수산(의대 52)
김순자(약대 59)
김양호(의대 51)
김영숙( )
김영애(사대 56)
김영일(약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용연(문리 63)
김용술(상대 56)
김옥현(의대 59)
김윤수(상대 50)
김은섭(의대 53)
김인형(미대 59)
김자억(의대 69)
김정빈(약대 54)
김정순(법대 53)
김정필(공대 71)
김정희(간호 69)
김종원(사대 58)
김종율(사대 51)
김진승(문리 53)
김창수(약대 64)
김태원(상대 62)
김현중(공대 63)
김 훈(의대 65)
김훈일(공대 60)
김희국(약대 50)
남상래(간호 65)
노용면(의대 49)
라준국(공대 47)
라찬국(의대 57)
문석면(의대 52)
민발식(의대 60)
민준기(공대 59)
박경원(미대 66)
박상원(음대 69)
박성일(상대 58)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승화(간호 69)
박영태(상대 63)
박은규(약대 72)
박정우(의대 54)
박중섭(상대 74)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백윤자(간호 64)
변건웅(공대 65)
서병선(음대 65)
서영숙(간호 67)
서충선(사대 57)
선종칠(의대 57)
석창호(의대 66)
성기로(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손광호(의대 59)
손완배(농대 70)
송근숙(간호 66)
송기인(의대 60)
송병문(공대 62)
송영우(사대 64)
송용섭(농대 63)
신남철(인문 81)
신두식(의대 58)
신의정(음대 55)
신정택(약대 62)
안이섭(법대 53)
안태홍(상대 65)
양거영(의대 49)
양명자(사대 63)
양성택(상대 66)
엄종열(미대 61)
우관혜(음대 63)
우상영(상대 55)
유 강(의대 64)
유재룡(공대 58)
유택상(문리 58)
윤병하(농대 80)
윤봉균(사대 54)
윤신원(의대 50)
윤영섭(의대 57)
윤정옥(약대 50)
윤준식(법대 58)
이강옥(공대 70)
이경림(상대 64)
이경태(공대 63)
이국진(사대 51)
이근수(상대 64)
이능석(의대 57)
이대연(약대 65)
이성구(약대 56)
이승철(약대 66)
이시진(문리 54)
이영숙(간호 56)
이영애(농대 59)
이용대(약대 63)
이운순(의대 52)
이유성(사대 57)
이유찬(의대 58)
이재진(의대 59)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정자(간호 59)
이종대(약대 65)
이종석(상대 57)
이종환(법대 51)
이준행(공대 48)
이중춘(공대 56)
이충오(의대 63)
이태상(문리 55)
이태형(문리 62)
이회경(의대 55)
임건식(음대 54)
임공세(의대 63)
장영식(법대 59)
전병삼(약대 54)
정도현(공대 57)
정순기(문리 69)
정인식(상대 58)
정창동(간호 45)
조규웅(의대 59)
조남천(사대 59)
조달훈(사대 66)
조대영(공대 61)
조성준(의대 58)
조숙자(간호 59)
조영일(공대 68)
조종수(공대 64)
조태환(상대 56)
조회재(음대 58)
주선후( )
차국만(상대 56)
천병수(공대 70)
최구진(약대 54)
최수강(의대 65)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64)
최일단(미대 55)
최준회(의대 58)
최치권(상대 53)
최태식(의대 69)
최한선(공대 56)
최한용(농대 58)
최형무(법대 69)
최 호(문리 61)
한성호(약대 60)
한영수(의대 61)
함종금(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허병열(사대 42)
허선행(의대 58)
허정열(사대 63)
홍선경(의대 58)
▶Ohio
김동광(공대 62)
명인재(자연 75)
박 철(사대 58)
성홍환(수의 75)
송용재(의대 63)
여준구(의대 64)
이건일(의대 62)
이명진(공대 61)
이영웅(의대 56)
최인갑(공대 57)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이은설(문리 53)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고병은(문리 55)
고영자(치대 63)
김국간(치대 64)
김규화(상대 63)
김동한(문리 53)
김무형(약대 63)
김상천(농대 64)
김영우(공대 55)
김순주(치대 95)
김종규(치대 63)
김주진(법대 54)
김현영(수의 58)
남영선(공대 79)
문대옥(의대 67)
민홍식(수의 60)
박영한(약대 68)
박호현(의대 52)
배성호(의대 65)
서중민(공대 64)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선자(사대 60)
신성식(공대 56)
심영석(공대 76)
심완섭(의대 67)
안세현(의대 62)
양운택(의대 58)
염극용(의대 54)
오진석(치대 56)
원종민(약대 57)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만택(의대 52)
이성숙(가정 74)
이송옥(사대 64)
전무식(수의 61)
전방남(상대 73)
정용남(문리 60)
정홍택(상대 61)
제갈은(문리 59)
조영호(음대 56)
조화연(음대 64)
주기목(수의 68)
지재원(사대 68)
지홍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최종무(상대 63)
최종문(공대 61)
최준희(의대 58)
▶Rocky Mt.
김낙제(농대 56)
박용호(의대 65)
신경일(공대 58)
▶Tennessee
김경덕(공대 75)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세진(공대 69)
김은영(가정 77)
김장환(공대 81)
김태훈(공대 57)
김형만(공대 75)
김훈묵(사대 58)
명인성(공대 50)
박영규(사대 66)
박유미(약대 62)
박준섭(약대 63)
신달수(공대 59)
양덕주(문리 66)
유 황(농대 56)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동성(의대 51)
이상한(상대 53)
이주희(음대 89)
이찬주(문리 63)
이학호(수의 59)
이화영(음대 95)
이희덕(농대 68)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채영철(공대 5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의대 53)
탁순덕(사대 57)
▶Wa.DC
강길종(약대 69)
강준희(의대 71)
강창옥(의대 55)
공순옥(간호 66)
곽근영(사대 51)
권기현(사대 53)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김기공(문리 68)
김기한(공대 67)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병선(사대 63)
김병오(의대 63)
김부근(의대 54)
김승태(문리 66)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김정식(농대 85)
김주평(의대 62)
김주희(공대 71)
김진은(사대 55)
김찬규(공대 54)
김창호(법대 56)
김평식(의대 61)
김해식(공대 59)
나수섭(의대 50)
남춘일(사대 69)
도상철(의대 63)
문성길(의대 63)
박동수(의대 67)
박배일(공대 74)
박윤수(문리 48)
박일영(문리 59)
박평일(농대 69)
박한수(경영 81)
백 순(법대 58)
변만식(사대 49)
서윤석(의대 62)
서진석(의대 62)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송영우(사대 64)
신구용(공대 59)
신용계(의대 62)
신상균(의대 52)
안선미(농대 65)
안승건(문리 55)
엄달용(공대 69)
오광동(공대 52)
유덕영(공대 57)
유재풍(법대 60)
이경애(문리 54)
이내원(사애 58)
이명숙(음대 52)
이문항(공대 46)
이병붕(의대 57)
이선구(문리 65)
이영묵(공대 59)
이영수(공대 59)
이유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종삼(문리 54)
이주경(경제 82)
이준영(치대 74)
이형모(의대 45)
임창주(공대 55)
임청규(공대 62)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대 54)
전경철(공대 55)
전백향(음대 74)
정기순(간호 67)
정두현(의대 55)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세진(의대 65)
조화유(문리 61)
최경수(문리 54)
최규식(상대 64)
최정미(사대 54)
최준호(공대 60)
한의생(수의 60)
한정민(농대 87)
함은선(음대 77)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홍윤기(공대 61)
홍창희(공대 72)
▶Wa. States
고광선(공대 57)
구본영(공대 65)
김선호(사대 59)
김영창(공대 64)
김인배(수의 59)
김형록(간호 59)
박진수(의대 58)
류성열(공대 72)
송 준(공대 55)
이동림(의대 52)
이순모(공대 56)
이종성(의대 58)
이회백(의대 55)
최근녕(법대 63)
최준한(농대 58)
홍계인(음대 60)

2013.7~2014.6 관악후원금

▶Arizina
박양세(약대 48)200
▶California
김낙구(상대 67)200
김동석(음대 64)200
김동호(농대 58)200
김명원(의대 62)200
김병수(상대55)1000
김순길(문리 61)200
김원탁(공대 65)200
김윤범(의대 58)200
김정희(음대 56)200
백옥자(음대 71)200
송명식( )300
심영춘(수의 64)200
염동해(농대 74)200
이교락(의대 53)100
이명선(상대 58)500
이병무(치대 70)200
이영일(문리 53)200
이일복(공대 64)200
이장우(문리 72)200
이철훈(치대 60)300
정원훈(상대 38)200
조동준(의대 57)225
최 철(의대 62)200
▶Chicago
구경회(의대 59)200
이용락(공대 48)200
▶Florida
오석일(의대 64)350
▶Georgia
정일화(상대 55)200
▶Heartland
배규영(사대 68)200
이상강(의대 70)350
▶Hawai
김창원(공대 49)200
▶Houston
진기주(상대 60)200
▶Minnesota
김태환(의대 58)200
▶New England
김제호(상대 56)200
오세경(약대 61)200
윤상래(수의 62)200
▶NY & NJ
권영국(상대 60)200
김기훈(상대 52)200
김명철(공대 60)200
김병숙(보대원) 200
김은섭(의대 53)200
김정순(법대 53)200
김훈일(공대 60)200
노용면(의대 49)200
문석면(의대 52)200
라찬국(의대 57)200
박상원(음대 69)200
윤병하(농대 80)300
이운순(의대 58)200
이전구(농대 60)500
정도현(공대 57)200
최한용(농대 58)200
한용호(법대 48)200
한인섭(약대 63)300
허선행(의대 58)200
*익 명(법대)500
▶Ohio
최인갑(공대 57)200
▶Oregon
김상순(상대 67)200
▶N.Carolina
한광수(의대 57)200
▶Philadelphia
김국간(치대 64)200
김주진(법대 54)200
송성균(공대 50)200
이만택(의대 52)200
주기목(수의 68)200
▶Texas
이광연(공대 60)200
이희덕(농대 68)200
진기주(상대 60)200
▶Utah
김성완(문리 59)200
▶Wa.DC.
강길종(약대 69)200
강연식(사대 57)300
강창옥(의대 55)100
공순옥(간호 66)475
권기현(사대 53)520
권철수(의대 68)200
김기공(문리 68)200
김동훈(법대 56)200
김부근(의대 54)200
문성길(의대 63)200
박평일(농대 69)300
방은호(약대 43)1000
백 순(법대 58)200
변만식(사대 49)200
서윤석(의대 62)200
안선미(농대 65)225
유재풍(법대 60)200
윤경의(공대 57)500
이병붕(의대 57)200
이선명(문리 59)200
이영묵(공대 59)500
이영덕(사대 61)200
이영수(공대 59)200
이윤주(상대 63)200
이종삼(문리 54)225
전경철(공대 55)200
정원자(농대 62)425
정평희(공대 71)300
최준호(공대 60)200
최지원(의대 55)500
한의생(수의 60)200
함은선(음대 77)200
▶Wa.St.
고광선(공대 57)500
김성열(치대 61)200

기타 후원

▶California
강정수(문리 61)110
김기선(간호 55) 75
김난영(공대 53) 25
김익창(의대 51)100
박정모(문리 66) 25
박창선(공대 55) 25
이교락(의대 53)100
이내원(사대 58) 25
장시경(약대 58) 30
전상옥(사대 52)100
▶Georgia
정량수(의대 60) 25
정일화(상대 55)225
▶NY & NJ
강성권(공대 65) 25
배명애(간호 47)1000
윤병하(농대 80)100
이정자(간호 59)100
정창동(간호 45) 25
▶Philadelphia
민홍식(수의 60) 25
▶Terxas
조진태(문리 57) 25
▶Wa. DC
조세진(의대 65)50
홍용식(공대 51)100

2013.7~12 광고 후원

NY.Chapter 600
DC.Chapter 600
Phila Chapter 500
가정상담소(DC) 300
김 영(수의 63) 300
김정필(공대 71) 400
노명호(공대 61) 1000
뉴욕 동창회 300
듀오 2600
박상원(음대 69) 400
손재옥(가정 77) 1500
유재환(상대 67) 1000
이규섭(상대 68) 200
이만택(의대 52) 750
이병준(상대 55) 2500
자연나라
(이승훈)2400
최재현(수의 66) 400
한스여행사 1100
탑스 여행사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이준행(공대 48·뉴욕 골든클럽 회장) 2,000
▶강신호(의대 51·동아쏘시오 회장) 3,000
▶손재옥(가정 77·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10,000

2013.7~12 업소록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120
강신용(사대 73)120
강호석(상대 81)120
김경무(공대 69)120
김광철(음대 59)120
김기형(경영 75)120
김영중(치대 66)120
김재영(농대 62)200
독고원(공대 65)120
서동영(사대 60)120
성홍환(수의 75)120
신대식(상대 60)240
신혜원(사대 81)120
양태준(상대 56)240
엄달용(공대 69)120
염동해(농대 74)120
이강원(인문 76)120
이병준(상대 55)500
이상대(농대 80)120
이종묘(간호 69)120
장 준(인문 85)120
정수만(의대 66)120
정재훈(공대 64)120
정진수(공대 56)120
조임현(간호 72)120
차기민(공대 85)120
최무식(약대 66)120
하선호(치대 81)120
한상봉(의대 67)240
(1년치)
황준오(치대 73)120
▶Georgia
이영진(공대 76)120
▶Nevada
김영중(치대 66)120
▶NY & NJ
김창수(약대 64)120
윤병하(농대 80)120
이경림(상대 64)120
이재원(법대 60)120
이전구(농대 60)120
최영태(문리 67)240
(1년치)
▶Oregon
박희진(농대 78)240
(1년치)
▶Philadelphia
주기목(수의 68)120
최종문(공대 61)120
▶Texas
진기주(상대 60)120
▶Wa.DC.
남옥현(경영 84)120
박평일(농대 69)120
이준영(치대 74)120
정평희(공대 71)200

BraiNetwork W.S. 후원

권철수(의대 68)200
김윤범(의대 58)100
남장우(사대 56)200
이정자(간호 59)100
이준행(공대48)1000
이채진(문리 55)100
전방남(상대 73)100
정태진(의대 53)100

모교도서관후원

고광선(공대 57)
10,000
박상원(음대 69) 1000
손재옥(가정 77) 1000
오인환(문리 63) 1000
뉴욕동창회(2013)1000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의료/ 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클리닉/ 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치과병원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LA CA 91324

서비스 /자동차/재정/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SPIRIT®
INVESTMENT & DEVELOPMENT
Jennie Chong Lee 이종묘
Cell. 714.396.0624
Tel. 949.251.0404
Fax. 949.253.9533
Jenniec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30 Corporate Park, Ste. 207, Irvine, CA 92606
REALTOR [illegible]

재정/ 보험

Im H. Cho
Financial Consultant
CA Insurance Lic. # 0597012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7-3253 Fax: (213) 487-3254
im.cho@axa-advisors.com
Paramount
PLANNING GROUP
a division of AXA Advisors, LLC

Wharton Certificate in Retirement Planning
AXA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우주개발/기술

President & CEO
TAYCO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s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대 64)
10874 Hope Street • P.O. Box 6034
Cypress, California 90630 USA
Telephone 1-714-952-2240, Fax 1-714-952-2042
E-mail: jc@taycoeng.com
http://www.taycoeng.com

NJ-NY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부동산 중개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북가주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300 Mt.View CA 94043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

GREGORY K. JOO, D.V.M.
MICHELE CAMPELLONE, V.M.D.
JOAN CAPUZZI, V.M.D.
주기목(수의대 68)
COTTMAN ANIMAL HOSPITAL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elephone: (215) 745-9030
Fax: (215) 745-3055
Email: cottmananimalhospital@gmail.com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 /건축

C&C INDUSTRIES, INC.
Ki Choo Chin
CEO
C&C Industries, Inc.
10350 Clay Road, Suite 250
Houston, Texas 77041
www.candcvalve.com
Phone: 713-466-1644
Fax: 713-466-1715
Toll Free: 877-996-9911
kc@candcvalve.com

MD,VA 워싱턴DC

치과병원/ 컨설팅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재정/ 보험 /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O)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0.7416 Beaverton OR.97007

동문 신간

■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들려주는 Health+ 시리즈

- 梁漢光 외 지음

모교 병원 Health+ 시리즈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근거가 빈약한 의학정보가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며 표준화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모교출판문화원에서 총 7권으로 발간됐다.

1권 위암은 모교 외과학교실 梁漢光(의학78 - 84)교수, 2권 유방암은 盧東榮(의학75 - 81) · 韓元湜(의학88 - 94) · 문형곤 교수, 3권 간암은 徐敬錫(의학78 - 84)교수, 4권 췌장암은 金善會(의학72 - 78)교수, 5권 요통과 디스크는 재활의학교실 鄭宣根(의학84 - 88)교수, 6권 심장은 내과학교실 具本權교수, 7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은 趙相憲(의학80 - 84)교수가 환자와 가족들이 완전한 치유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수록했다.

질환별 증상, 진단,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중심으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으며, 앞으로도 Health+ 시리즈 간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대 출판문화원刊 · 각 권 값10,000원〉

■ 77일간의 황홀한 세계여행

- 李起台 지음

스타인터내셔날 李起台(불어교육59 - 67)대표가 지난 수년간 여행한 세계 여러 곳들에 대해 에피소드를 곁들여 설명한 책. 기존의 여타 여행서와 달리 사진 위주의 기행문이 아니고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사진을 곁들여 집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동유럽의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지와 터키, 캐나다의 노바 스코시아, 일본의 홋카이도, 베트남의 하롱베이,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중국의 항주 · 계림 · 장가계 · 만리장성 등 유명 관광지를 보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베스텐북스刊 · 값15,000원〉

■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실용화 가이드

- 金寅鎬 지음

한양대 金寅鎬(상학61 - 65)명예교수가 국내 산업계, 학계, R&D 연구분야, 정부기술정책부서 및 민간연구개발기구 그리고 혁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독자를 위해 출간한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실용화 지침서. 저자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경쟁자를 누르기만 하면 사업성공이 보장되며, 기업가는 과연 경쟁하려고 사업하는가를 반문한다. 또 이익창출동력을 기업파워로 인식하고, 사업에는 모범답안이 존재함을 규명한 바탕 위에서 이익추구 일반이론을 구축하고, 그 실용화를 통해 기업 내실화, 산업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지속번영을 꾀하려는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刊 · 값20,000원>

■ 대법원을 넘어서

- 朴 贊 지음

(주)대우 감사를 지낸 朴 贊(행정63 - 70)동문은 재직시절 대우그룹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朴동문은 이 책에서 10여 년간의 재판을 겪으면서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마라톤에 몰입, 부부가 함께 풀코스를 완주한 체험담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우의 패망 원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대학에서 대우까지, 나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대법원과 정의, 재무제표 중복 감사제도 폐지와 상법 개정, 대우는 왜 패망했나 등 총 6부로 구성됐다.

<예사랑刊 · 값15,000원>

■ 시간의 의미

- 金慶烈 지음

광주과학기술원(GIST) 金慶烈(화학67 - 71)석좌교수가 과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시간의 의미'를 탐색했다. 1582년 10월 달력에서 사라진 10일, 논란이던 부활절 날짜를 정한 325년 니케아 공의회, BC 1년 다음은 0년이 아니라 AD 1년, 하루를 10시간으로 정한 프랑스혁명 달력, 5일 1주일을 채택한 소비에트, 평균적으로만 24시간이며 점점 길어지고 있는 지구의 하루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기본적 환경인 시간의 의미와 이를 탐구해 온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생각의 힘刊 · 값6,800원〉

■ 오역의 제국

- 徐玉植 편저

연합뉴스 외신부장, 편집국장, 논설고문 등을 지낸 언론중재위원회 徐玉植(동양사학69 - 73 본보 논설위원)중재위원이 다년간 영문뉴스 번역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저술한 책.

이 책은 문학작품과 역사 · 철학 · 과학을 포함한 각종 교양 · 학술서적은 물론이고 교과서, 성서, 영화, 가요, 외교문서와 언론보도 및 세계지도자 등 저명 인사들의 어록과 자서전,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오역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역이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우리의 지식세계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도리刊 · 값 25,000원〉

■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

- 黃壽淵 외 옮김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72 - 79)교수가 조지 메이슨대 교수를 지낸 고든 털러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외교 정책의 목적부터 역사적 배경, 세력 균형과 혁명, 1815년부터 1890년까지의 동방 정책, 유럽 제국들, 제1차 세계 대전 등 미국의 외교문제와 역사를 소개한다. 털러은 이 책에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디언들과 멕시코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은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 덕분에 미국이 독립하게 됐음도 언급한다. 이처럼 이 책은 기존 역사 서적과는 다른 사실과 해석을 많이 제공한다. 한국전쟁의 진실을 알 수 있고 李承晩대통령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리버티刊 · 12,000원〉

■ 한국기업의 기술혁신
■ 공학윤리의 쟁점

- 宋成守 지음

부산대 물리교육과 宋成守(무기재료86 - 90)교수가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 `공학 윤리의 쟁점' 등 두 권의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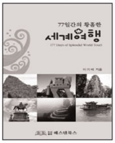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에서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대표하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해당 산업에 후발 주자로 진입했지만 지속적인 기술능력발전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이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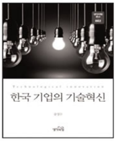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구성원들의 헌신이 결합돼 만들어 낸 혁신의 스토리와 함께 우리의 혁신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공학윤리의 쟁점'은 공학윤리의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알기 쉽게 정리함과 동시에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의 윤리적 쟁점 외에도 과학기술과 여성, 시민 참여 등 기존에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와 쟁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엔지니어와 공학도는 물론 과학기술의 윤리적 성격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

〈생각의힘刊 · 각권 값6,800원〉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여행기·독후감·기타 = 동창회보는 모든 동문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니 언제든 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정치사회적,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다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너무 치우친 내용 역시 마찬가집니다. 분량은 특집이 아닌 경우 A-4(Letter)용지 3~4매 이내로 얼굴사진과 연락처를 첨부해주십시오.

▶My Journey to America = 동문들의 지나 온 과거를 그리는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용완(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주간>**

'편집후기'

○…**필사본** = 편집실은 왼쪽 '원고청탁' 이라는 난에서처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동문님들의 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글은 반드시 워드나 한글로 타자해서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필사본으로 보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와 같은 짤막한 작품은 얼마든지 타자해서 게재할 수 있으나 letter(A-4)용지 1매 이상 되면 시간상으로도 게재우선순위에서도 제약받게 됩니다.

○…**너무 긴 글** = 최근 모 동문님께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 즉 한일관계를 주제로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letter(A-4)용지로 무려 20페이지로 동창회보 7페이지 정도가 소요되는 양이었습니다. 편집위원님들이 이에 대해 회의한 결과 한 번에 게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일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1~2페이지씩 연재를 한다는 것도 자칫 독자들에게 지리한 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필자에게 적당량(회보 1페이지 분량)으로 줄여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분량만큼은 특별한 경우(특집 기획 등)가 아닌 한 1페이지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긴 글을 보내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학술지나 전문지라면 이러한 글을 모두 수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동창회보는 학술지나 전문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몇 분의 글만으로 채워지는 회보보다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글을 게재해야 회보가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 **<편집주간>**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홍조(치)·이영묵(공)·이전구(농)·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종(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 이원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이영묵(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 행 인 : 오인환(문)
주 필 : 백 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서윤석(의)·이윤주(상)·이해덕(상)
정평희(공)·김정식(농)·정상목(약)·함은선(음)
이나래(경)·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고병철(법)·조동준(의)·이채진(문)
최용완(공)·정홍택(상)·윤상래(수의)·김창수(약)
차민영(의)· 이석구(문)·김용헌(경)·유재풍(문)
장석정(법)·하용출(사 회)·민경훈(법)·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 원= 서중민(공)·이민언(법)·윤상래(수의)
김지영(사)·신응남(농)·함은선(음)

감 사 : 박평일(농)·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부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4-2989 sangparkny@gmail.com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978-263-2827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 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록키 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i2010@gmail.com
	차기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425-643-6508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 801-474-1945 you.bae@ytah.edu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215-459-3707 215-828-9011 dhkim1107@g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jnj.com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회장	홍순호(수의대 74) 813-205-3975 awcwc@verizon.net
	부회장	김연국(수의대 74) 813-205-2552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865-693-6889 jae.park99@gmail.com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박혜송(음대 68) 913-481-1946 hyesonglee@yahoo.com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차기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남궁영(공대 77) 604-696-7090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www.jayone.com
P 562-633-7400
F 562-633-747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www.toptravelusa.com

1991년 탄생한 탑여행사가 22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탑여행사는 샤프여행사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적색은 태양의 따뜻함을 뜻하고
청색은 푸른바다와 강을 뜻하며
녹색은 푸른들판과 숲을 뜻합니다.

탑여행사
TOP TRAVEL

탑여행사는 우리교민들의 사랑으로 워싱턴 최고의 여행사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이제 탑 여행사에서는 샤프여행사와 하나 되어 교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100, Annandale, VA 22003
T. 703-256-0606 / F. 703-941-2929

버지니아 (센터빌)
13850-C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T. 703-543-2322 / F. 703-543-7233

메릴랜드 (엘리컷시티)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T. 410-480-0100 / F. 410-480-0103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직접 모시고 가는 모든 단독 여행 상품들은
차별화된 고급 여행 상품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선사해 드립니다.

2014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1월3일(금) - 1월23일(목)
  볼티모어 크 SOLD OUT
- 1월13일(월) - 1월23일(목)
  신비의 인도 SOLD OUT
- 2월 03일(월) - 2월08일(금)
  코스타리카 4박 5일
- 2월17일(월) - 2월28일(금)
  HOLY LAND / SOLD OUT RAEL, JORDAN 성지순례 11박12일
- 2월20일(목)-2월23일(일)
  뉴올리언스 3박4일
- 3월03일(월) - 3월15일(토)
  HOLY LAND / EGYPT, ISRAEL, JORDAN 성지순례 12박13일
- 3월30일(일) - 4월06일(일)
  THE BEST GREEK ISLANDS 7박8일
- 4월01일(화) - 4월11일(금)
  PERU/AMAZON 잉카의 신비 10박11일
- 4월01일(화) - 4월15일(화)
  PERU/AMAZON잉카의 신비 + 브라질 이과수, 리오데자네이로
- 4월07일(월) - 4월19일(토)
  GREECE / TURKEY 12박13일
- 4월14일(월) - 4월21일(월)
  맛따라 멋따라 고국 전국일주 (홍도, 흑산도및 해변열차) 7박8일
  4월22일(화) - 4월25일(금)
  방콕 3박4일 (POST TOUR)
- 4월18일(금) - 4월27일(일)
  Amadeus 동유럽 스페샬 9박 10일
- 5월02일(금) - 5월12일(월)
  서유럽 10박11일
- 5월02일(금) - 5월15일(목)
  정통발칸 8개국 1차13박 14일
- 5월04일(일)-5월13일(화)
  베네룩스 & 프랑스(노르망디)
  9박10일 - 2014년 SNU Group Tour
  여행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큐켄호프, 헤이그)
  -벨기에 (브뤼셀, 브뤼헤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프랑스 (파리, 도빌, 몽생미쉘, 루아르, 파리)
  여행경비: $2890 per person
  (미국 출발 국제선 항공비 불포함)
- 5월15일(목) - 5월28일(수)
  정통발칸 8개 SOLD OUT 14일
- 5월22일(금) - 6월02일(월)
  스페인 북부 11박 12일
- 7월03일(목) - 7월16일(수)
  RUSSIA / NORTHERN EUROPE 13박14일 - 1차
- 7월08일(화) - 7월14일(월)
  Amazing Korea Trip (1.5세를 위한 고국 가족여행 "신상품")
- 7월28일(일) - 8월10일(일)
  RUSSIA / N SOLD OUT EUROPE 13박14일 - 2차
- 8월10일(일)-8월23일(토)
  WONDEROUS LAND, AFREICA TOUR 13박14일

한스관광 1993~2014 21 years HANSTRAVEL.COM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 F. 703-658-3110
7601 Li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www.hanstravel.com, email: hanstravel.joanne@gmail.com
여행사진 앨범: www.flickr.com/photos/hanstravel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팔,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Durable, Efficient, Beautiful

- Digital Technologies & High-tech Monitor System
-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Saving Design
- Nationwide 18 Branches & Warehouses
- Company Operated Service Network
- 3 Year Labor & Parts Warranty

ENERGY STAR PARTNER

17th Anniversary

창업 17주년을 맞이하는 터보에어 그룹은 세계적인 상업용 냉장고 생산업체로서

미 전역 18개 지사 및 물류창고, 7개의 계열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 한국, 중국에 위치한 5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 5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Dallas, TX 에 26 Acre 부지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던 터보에어는

지난해 Long Beach, CA 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6만 Sq.Ft. 규모의 초현대식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보다 편리한 위치와 최신식 건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New Headquarters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oll Free : 800-627-0032
www.turboairinc.com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C)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